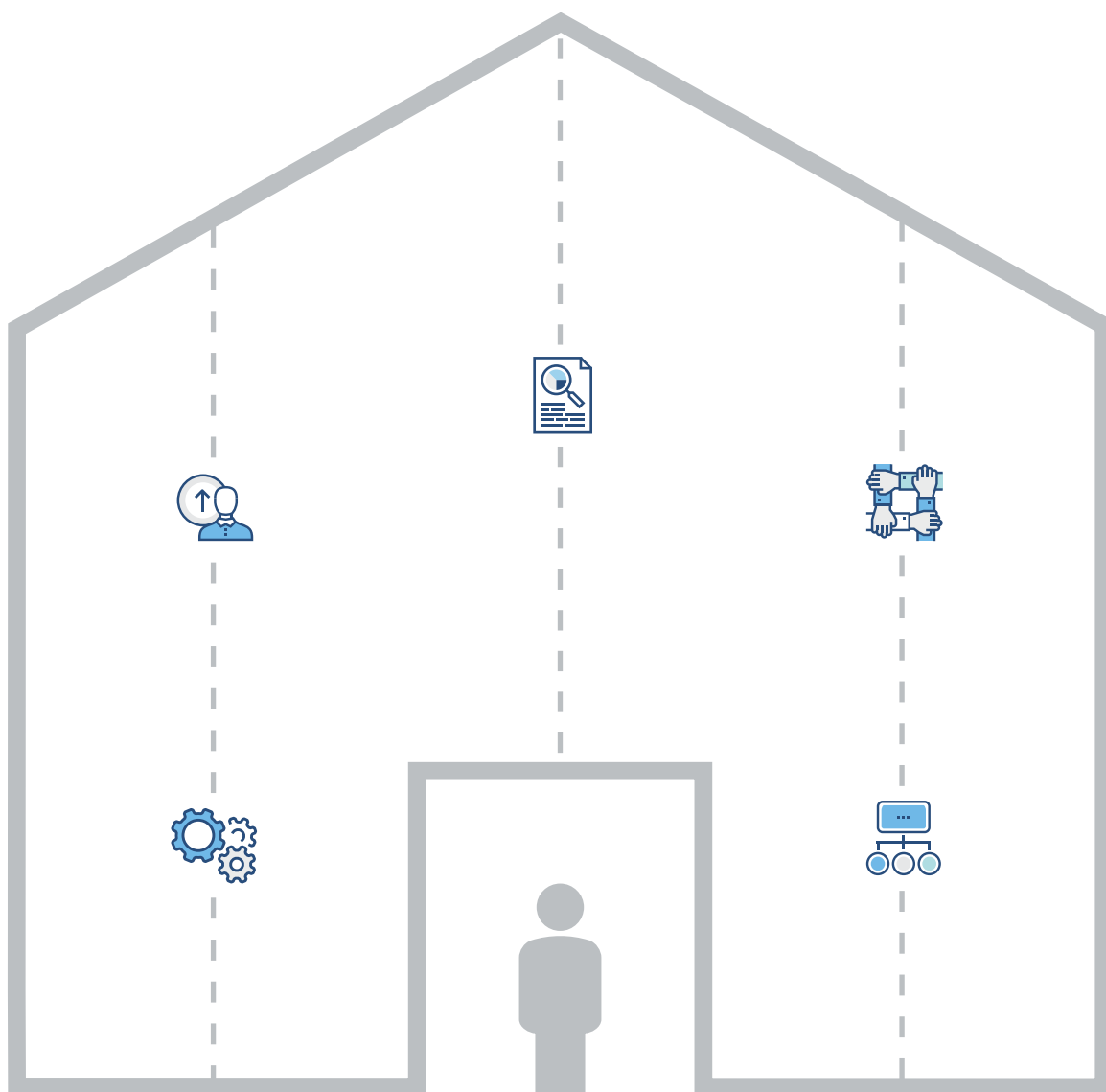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139-01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연구



여성가족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 보고서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서 의뢰한 「2022년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사업: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12.30.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연구진

과제 책임자	박은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공동 연구원	양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신호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 보조원	민수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노영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국내 제1의 가구 형태로 자리잡음. 2020년 현재 1인가구는 664만 3천가구로 이는 국내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함
- 1인가구 증가는 교육 및 취업 준비로 원 가족과 독립된 세대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한 미혼 혹은 비혼 인구 증가, 이혼 증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고령 1인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있음(변미리 외, 2009). 1인가구 증가는 특정 세대 및 지역·젠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전 세대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임
-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지원의 우수 사례를 꼽아 유형을 분석함. 정책적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 민과 관의 역할 및 결합방식,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활동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하려 함
- 또한 1인가구 지원에 있어 민관협력 혹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현장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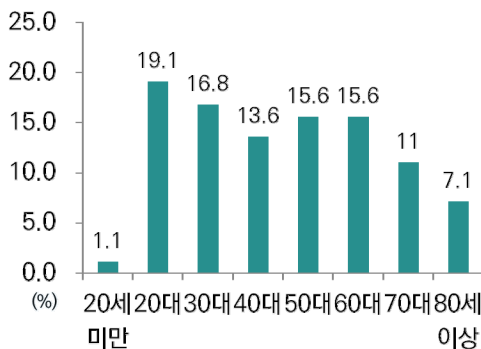
- 이 연구에서 1인가구 범위는 2018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며, 세대 및 젠더, 지역을 포괄해 1인가구 관련 지원 사업과 서비스 등 사례를 조사함.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및 집단심층인터뷰, 자문, 집담회 등을 활용
- 2장에서는 국내 1인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해 주요 영역을 도출함. 3장에서는 영역별 국내외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 4장에서는 주요 영역별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서술함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주요 영역 분석

□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 2020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하는 664만 3천가구로 전년도인 2019년 614만 8천가구(30.2%)에 비해 약 49만 5천가구 증가. 매년 1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2020년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 2018년 0.7%포인트, 2019년 0.9%포인트 증가)
- 1인가구 중에서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9.1%를 차지하며, 30대 16.8%, 50대와 60대 15.6%, 40대 13.6% 순임. 남성은 30대 1인가구가 21.6%로 가장 많고 여성은 20대가 18.5%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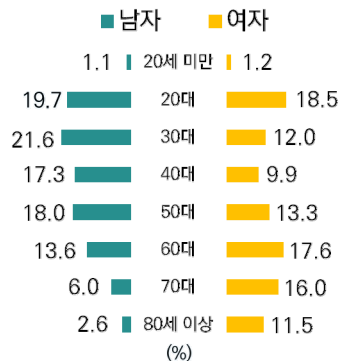
| 그림 요약-1 |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자료: 통계청,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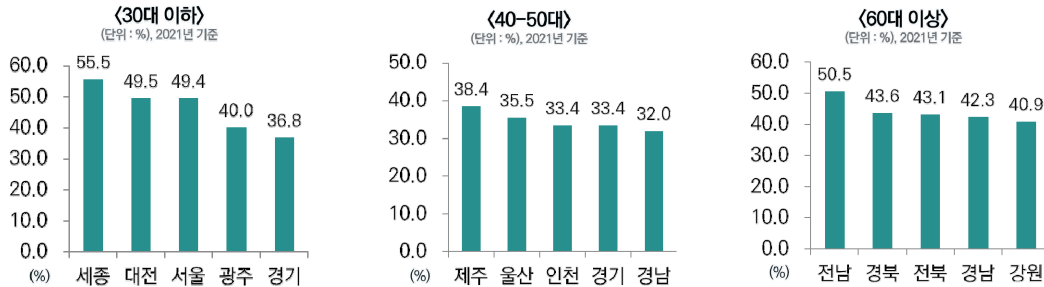
| 그림 요약-2 |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단위: %)



- 전체 1인가구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21.2%로 가장 높고, 서울(20.9%), 부산(6.9%), 경남(6.3%) 등의 순이나, 이는 전체 인구 밀집도에 따른 분포이며, 각 지역의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30% 전후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3집은 1인가구인 셈
- 세종과 대전, 서울 지역은 1인가구의 절반이 30대 이하로 나타남. 반면 전남은 1인가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경북, 전북, 경남, 강원은 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가 40% 이상으로 나타남

| 그림 요약-3 |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상위 5개 지역



자료: 통계청, 2021년

□ 선행연구

- 1인가구 증가 원인과 현황,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세대·젠더·지역별 분포 및 구분, 그에 따른 다양한 필요를 포함한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옴
- 대부분 1인가구 증가가 기존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함. 특히 특정 세대 및 젠더별 1인가구의 어려움은 단기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염려함. 주로 1인가구의 주거와 돌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찾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됨
- 이명진(2014)은 현대를 ‘고립사회’로 정의하며 가족·시장·국가의 불균형한 관계, 즉 가족 역할 축소, 시장주의 팽창, 국가 역할 필요성 증대의 교차 시점에 1인가구 확산이 발생한다고 봄
- 홍승아(2017)는 1인가구가 연령·젠더·계층 등에 따라 이질성 및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적 특징이 낮다고 보고 있음. 각 특성별 대응방안 및 전략 마련 필요를 주지

□ 1인가구 관련 국내외 정책 흐름

-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 조항이 포함되며 1인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2020년 정부는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기도 함
- 중앙부처들은 주거 및 돌봄 등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사업과 연구를 진행함. 국토교통부는 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표한 지역 기반 취약계층 돌봄계획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반 저소득층 1인가구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모색해 옴. 여성가족부는 2022년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예산 신설

-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박미현, 2020). 2016년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2022년 6월 기준) 전국 12개 광역, 41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가구를 특정한 정책보다는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려 함(김형균, 2019).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유연한 주택 정책을 도입해 청년 및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고령자 보호주택,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함
- 영국의 경우 2018년 사회적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 담당관직을 신설하고 트레이시 크라우치 스포츠·시민사회 차관을 담당으로 임명.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1인가구 당사자 및 정책전달자 심층인터뷰

- 1인가구 정책 수요 및 체감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주요 질의 내용으로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가 활동, 소비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와 안전, 1인가구 지원정책 참여 및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표 요약-1 |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구분	일시
그룹1(중장년 남성)	2022.8.20.	그룹3(중장년 여성)	2022.8.27.
그룹2(청년 남성)	2022.8.20.	그룹4(청년 여성)	2022.8.27.

- 세대·젠더별로 구분한 1인가구 집단인터뷰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중장년 여성(7.75점) > 청년 여성(7.4점) > 청년 남성(6점) > 중장년 남성(5.1점)의 순이었음
 - 1인가구는 거주지의 주거 성능(공간 협소, 채광 등)이 미흡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임
 - 중장년 1인가구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 건강,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들이 고령층에 접어들 때 현재 고령 1인가구가 직면한 고령자 빈곤, 주거 문제 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 여성 1인가구는 치안(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거주지를 비롯한 생활환경에 있

어 주된 고려사항으로 이해됨

- 중장년 참여자의 경우 ‘외로움’이란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청년 참여자들은 가족·친구를 비롯한 지인과 만남이 잦아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현장에서 접하는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집행 시 애로점 등을 수집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연구자, 정책전달자 등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주요 질의 내용은 1인가구 정책 현황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선사항 등이었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관계자에게는 1인가구 관련 사회적기업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기업에서 1인가구 관련 사업 가능성에 대해 문의함

표 요약-2 | 1인가구 관련 정책전달자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구분	일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센터장	2022.8.10	사단법인 신나는조합 기반조성팀 과장	2022.9.15
혼족의 제왕/데일리팝 대표	2022.8.10	서울시 1인가구 담당관 안전지원팀장	2022.9.22

- 1인가구 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담당자들은 젠더·세대·자산의 차이에서 오는 1인가구 특성 차이가 크다고 조언. 또한 대부분 1인가구임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기에 프로그램 홍보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답함
- 기존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갑자기 정책 기조가 바뀌며 전혀 새로운 대상과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음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1인가구를 사업 타겟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드물지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예: 외로움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거주지 보안 강화 등)가 1인가구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영역 도출

- 위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개별 이슈들은 돌봄·주거·안전·사회적 관계·생활의 범주로 좁힐 수 있음¹⁾.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직면한 돌봄·주거·생활·사회적 관계망·안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위 5개 이슈를 풀어갈 방법에 대해 방향을 모색하였음

1) 소득 역시 1인가구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지만 해당 연구의 주된 연구범위인 사회적경제 영역 및 조직을 활용한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에 집중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진행

제3장 주요 영역별 사례 분석

1. 돌봄

□ 국내 돌봄 정책

- 1인가구 특성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세대별로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고령층에 보다 정책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 중장년층의 돌봄 정책은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최근 정부는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예: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를 개발·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함. 생활형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 활용 의지가 높음
- 최근에는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IT 및 빅데이터로 외로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하거나 동작,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등 안전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관심을 보임

표 요약-3 | 1인가구 돌봄 정책 개요

구분	1인가구 연령별 돌봄 정책 방향
고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돌봄정책은 주로 65세 이상 1인가구 대상으로 진행. 중앙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 서비스, 주가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독거노인 보호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운영 •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필요 측면에서 정책 설계 및 운용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1인가구 돌봄 정책은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생애주기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건강상의 문제와 생계 문제가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돌봄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돌봄 정책은 주로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음

□ 해외 돌봄 정책

- 미국과 유럽의 경우 1인가구의 돌봄 정책은 단독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 주거, 안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계획·수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1인가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질병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

당 주거시설 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돌봄 정책을 연계하고 있음

- 일본은 일찍이 인구고령화가 시작되어 고령층 대상 통합돌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등의 연계를 통한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이 지역을 기반으로 전달됨. IT기술을 활용해 고령 1인가구의 돌봄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 중

□ 국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조직 돌봄 프로그램 현황

- 자체 사업 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 사업의 경우 대부분 노년층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병원동행서비스 포함)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며, 민관협력 사업은 일상생활 지원(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포함) 관련 사업의 운영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돌봄은 ‘지역사회’와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하는 지역사회 기반(communitary-based) 돌봄 체계 모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안을 수립함.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중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는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및 노인우울관리 지원 사업, 방문서비스 제공 ▲제주도 서귀포시는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추진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예: 서울 마포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더-이음 프로젝트’(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목적), 서울 성북구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고령 1인가구 돌봄리더육성 사업 등)

2. 주거

□ 주거 지원 정책 및 동향

- 1인가구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지 비율이 높고, 평균적으로 월세 방식이 많음.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1인가구 주거 안정성 보장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지자체에서는 주거 계약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
-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공급 모델을 활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

결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주택 매매 및 주거관리 비용이 시세와 비교해 저렴하고, 협동조합 운영으로 인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이 높지 않으며 안정된 거주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1인가구 주거 공급 대안으로 부각

□ 중앙 및 지방 정부

- 자산이 부족한 청년 1인가구에게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1~2인 가구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있음. 쾌적한 주택을 낮은 임대료(최대 시세 80% 까지)에 공급하고 거주자들 간 공동체 구성을 지원함. 최대 10년까지 안정적 주거기간도 큰 장점임
- 광역지자체들도 1인가구에게 관내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최근 소형 주택 중심으로 1인가구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 등 지원사업을 병행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1인가구 주거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으로 비영리주거모델 ‘달팽이집’을 공급·운영하고 있음. SH사회적주택, LH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정책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 청년 조합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청년 주거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활동 중
- 터무니있는집은 2018년 1월 시민과 청년이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주거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로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터무니제작소가 운영 중임. 시민출자자들은 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에 무(저)이자로 장기 출자를 하고, 입주 청년단체들은 터무니있는집에 공동으로 주거하며 주택을 관리하는 한편,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 서울시 금천구 보린주택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주택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2014년 11월 독산동 1호 보린주택을 시작으로 총 4호가 공급됨. 한국사회투자(기금)에서 용자를 받아 사회적기업이 기획,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SH공사가 이를 매입해 금천구에서 홀몸 어르신 입주자를 모집·관리하는 방식. 지역 내 고령 1인가구 필요에 맞춤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유연하고 창의적 기획력이 잘 어우러진 프로젝트로 평가됨

-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전신인 전주여성의 전화 소모임 ‘비혼들의비행’으로 2010년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를 개소하고, 중장년 여성 1인가구 공동체 주택 설립을 목표로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 활동 지역인 전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여성 1인가구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자조모임과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모임을 기획·운영함

□ 주거 계약 및 관리 지원

- 비교적 주거이동이 잦은 1인가구 특성에 맞춰 수도권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중
- 주택 수리·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수리 및 입주청소 등 서비스 지원 정책도 늘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빈집 및 노후주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공동체 주거 교육

-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은 중장년 공동체 주거 문화 전파를 위해 2015년 12월 설립한 협동조합. 40~60세 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주거·관계·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고,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 양성과 공동체 주택 시행사업 입주자 모집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공동체 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해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의 공유 공간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대여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이는 입주자 간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여 입주자 정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여성가족부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사업에서 분산화된 1인가구 간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로 1) 공동체 주택의 공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2) 기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센터 혹은 가족센터가 없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의 공간이 1인가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안전

- 응급 및 위험 상황을 혼자 맞닥뜨려야 하는 1인가구에게 안전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무인택배함, 안심홈세트 등의 사업을 시행함. 이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구분을 없애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점차 전국 각 지자체로 확장되어 가는 중임
-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변화
 - 정책 초기 주거지 방범 강화를 위한 물품 지원과 귀갓길 동행 등 1인가구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건강, 신변이상, 안전 등에 문제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된 벨을 눌러 119 안전지원신고센터, 경찰청 등과 정보를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나가고 있음
 - 개별 1인가구 방법은 물론 동네 전반의 치안과 안전까지 확대되는 사안임. 장소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자원과의 연계, 경찰 및 병원 등과의 협력이 중요
 - 또한 지역 은퇴자 및 지역 주민을 활용해 안심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치안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기업 사회공헌 및 관련 서비스
 - 국내외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면서 계량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사용량을 측정해 평소와 다른 사용량이 보이면 위기상황을 의심하는 서비스 혹은 사회공헌 사업들이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활용 및 육성
 - 지역 주민들이 안심 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에 참여한다면 결국 마을 치안을 개선하게 되기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지역 내 관계망 형성·강화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협동조합 혹은 다른 사회적경제 방식의 조직 형태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조직 단위로도 구성할 수 있음

4.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관련 사업 형태 구분

- 1인가구 정책 및 지원 서비스에서 사회적 관계망 강화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돌봄 및 주거, 안전, 생활 등 타 영역에서 생활 지원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 혹은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1인가구를 발굴하고 참여시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지원 정책

- 고독사 등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숨어있는 취약 1인가구 발굴이 필요해짐.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1인가구 지원정책을 펼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 및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음
- 사회적 관계망 정책사업은 불특정 다수에서 1인가구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특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 상향식(bottom up)으로 중앙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음

□ 심리상담 지원 사업

- 과거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되었던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연결해 1인가구 심리상담 사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1인가구가 외로움 혹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지 않도록 지원하여 관계망으로 편입시키고자 함

□ 한정된 예산과 인력

- 최근 전국으로 1인가구 관련 사업들이 퍼져나가는 추세임. 특히 1인가구에게 중요한 문제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기획-모집-홍보-운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된다는 불만도 있음

□ 정보 플랫폼

-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 온라인 버전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포털(쌍글빙글 서울) 등을 참조해볼 수 있음. 나아가 가족센터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을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제공·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5. 생활

□ 1인가구 맞춤 서비스 및 용품, 식자재 수요

- 청소 및 빨래, 장보기와 요리, 정리 및 수납 등 가사와 생활에 대한 부분은 사소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며 물품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짐. 1인가구 맞춤 물품 혹은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1인가구 당사자들은 신선한 먹거리 소분뿐 아니라 소용량 생활용품,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음
-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생협 등)을 활용해 신선 채소 꾸러미 보급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혹은 장기적으로 소용량, 소분 판매 방식에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구매자에게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로 생활 관련 서비스 조직 육성

- 수납, 수리, 인테리어 등에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을 가족센터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초청해 1인가구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방식이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하나의 사회적경제 법인체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하는 방식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생활 서비스 중 집 안에 발생한 크고 작은 수리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여성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음. 1인 여성 가구의 필요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1인가구 시장으로 신호 및 유인책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1인가구인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나타나는 중임.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1인가구 시장 및 생태계를 넓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가족친화(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 1인가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독려할 수 있음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 중 가족에 1인가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도 적극 포괄해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 집수리, 주택관리, 코인 세탁 등 서비스를 1인가구에게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있음.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4장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방안

□ 정책 방향

- 1인가구 대상 정책 및 지원사업은 주거,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개별 영역에서 설계되지만 1인가구의 필요를 충족하고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연계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성별 및 세대, 지역과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개별 영역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책 로드맵을 구상한 뒤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

□ 특히 전국 단위에 있는 여성가족부 유관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1인가구 발굴 및 사례를 축적

- 다인가구는 물론 1인가구에게도 가족센터는 통합지원과 종합 돌봄의 매개체가 되어야 함.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가 생애별 필요 정책과 정보를 전달받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 새일센터, 양성평등센터 등 여성가족부 산하 정책지원조직의 다양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더불어 1인가구 지원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필요함. 정책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사업 진행을 위해 타 기관과 부처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1인가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1인가구의 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가족·새일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1인가구의 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며, ▲이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하고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얻음. 지역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1인가구의 예상 위험을 사전에 대비
- 1인가구 관련 주요 영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해당 시장을 육성. 참여주제 및 참여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자신감을, 1인가구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조건에 1인가구 배려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거나,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시작해볼 수 있음

1. 정책 제언: 중간지원조직 활용 1인가구 지원사업

가. 정책 사업 1: 가족센터 중심 1인가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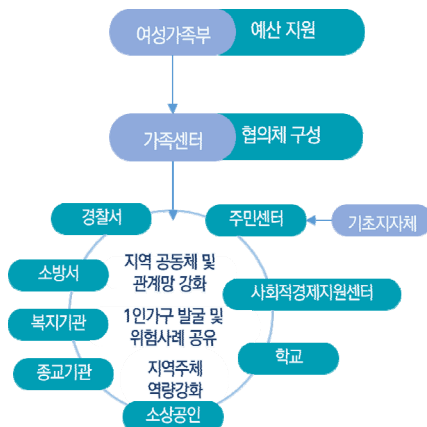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전국에 소재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돌봄 및 관계망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들과 결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으로 편입 및 지역 공동체 강화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정책 내용: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119 안전신고센터, 복지기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학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1인가구 돌봄 및 관계망 협의체 발족
- 참여 주체별: 주민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복지기관, 소상공인, 학교, 종교단체 등 협의체가 발굴한 1인가구 중 필요시 관내 복지기관과 연결, 혹은 복지기관이 파악한 위험도 높은 1인가구 타 주체들에게 연결해 필요시 적절한 대응 빠르게 조치 가능
- 사회적 고립 상태의 1인가구 혹은 고령가구 발굴 의무 있는 주민센터에게 대상자는 물론 예비 대상자라 할 수 있는 1인가구까지 포함해 지속적 1인가구 관리 가능
- 지역공동체별 1인가구 이슈 확인 및 공동체적 대응 능력 강화, 협의체 구성 각 주체별 1인가구 정보 공유, 위험군은 공유를 통해 주체별 1인가구 발굴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그림 요약-4 | 1인가구 가족센터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나. 정책 사업 2: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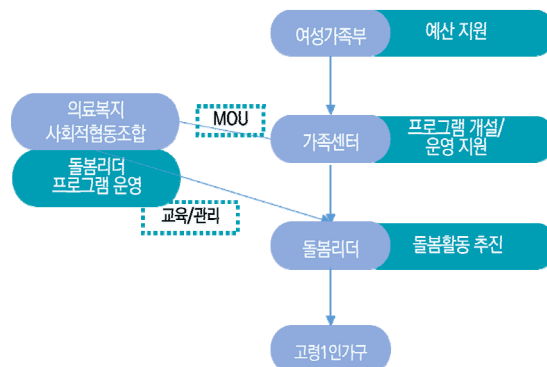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생활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돌봄 네트워크의 마련과 지역사회 내 돌봄의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의 주체를 양성해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가족센터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 MOU 체결로 가족센터 내 ‘(가칭)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참여 주체별
 -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예산 책정 (참여자 활동비 등 지원 필요),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가족센터 내 개설 및 운영 지원, 돌봄리더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품(혈압계, 체온계, 활동가방, 운동용품 등) 지원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돌봄리더가 1인가구의 안부 확인, 건강증진 활동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
 - (돌봄리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최소 교육훈련 시간 필요),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있는 1인가구를 매칭하여 돌봄 활동을 추진함. 1인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 확인하며 참여에 따른 활동비, 상해보험료 등 지원받음
- (실행단계)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취약 1인가구 대상으로 돌봄리더는 정기적 방문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보고하고, 의료사협은 이를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전달해 필요시 식사, 이동, 치료 등 관련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그림 요약-5 |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다. 정책 사업 3: 농산어촌 다문화가구원 및 경력단절자연계 1인가구 돌봄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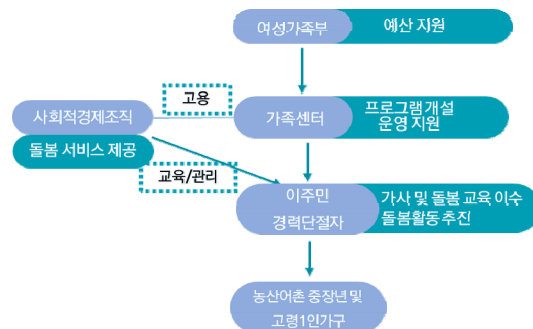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농산어촌 지역의 사각지대인 중고령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다문화인 혹은 경력단절자들의 일자리를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 고령 1인가구 돌봄지원 일자리 창출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자) 농산어촌 65세 미만 중장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면서 1인가구(독거 및 조손가구 포함) 혹은 65세 이상 고령층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인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식사 도움 및 취사, 청소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가사·일상생활 관련 교육 제공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해당 지역 가사 및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한국인 혹은 경력단절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함. 교육을 마친 수료생 중 적격자를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하는 형태. 가사 및 돌봄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이용해 가족센터와 협업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자 가정에 가사 및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령 1인가구 가사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이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1인가구 돌봄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 이주민 및 경력단절자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사 및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영역 시장 확대 가능

| 그림 요약-6 | 농산어촌 다문화인 및 경력단절자 연계 고령 1인가구 돌봄 지원사업안



라. 정책 사업 4: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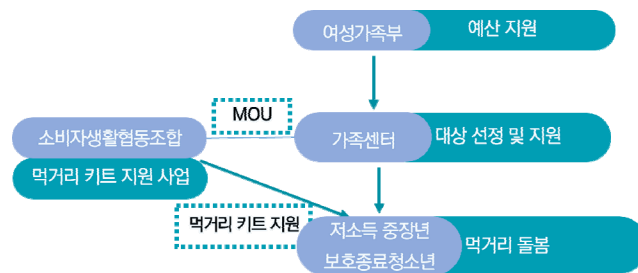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가족센터와 지역 내 위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해 안전망 밖 취약(저소득 중장년, 보호종료청소년 등) 1인가구에게 반찬 및 도시락 등 먹거리 키트 지원
- 먹거리 돌봄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자) 1인가구 내 먹거리 취약계층(저소득 중장년, 보호종료청소년 등)
- (서비스 내용) 먹거리 취약 1인가구에게 지역 내 유통가능한 신선한 먹거리로 만든 키트 구성 및 전달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센터 등이 협력해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휴 식자재를 활용해 이들에게 먹거리 키트 제공
- 기부 물품 및 못난이 식재료, 혹은 상품에 이상 없으나 여타의 이유로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 등을 먹거리 키트에 포함, 농가 및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취약 1인가구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
- 취약 1인가구 먹거리 돌봄과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지역 내 주체들 참여로 식자재 공급망 개선과 문제 해결 역량 증진, 공동체 강화 기대

| 그림 요약-7 |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안



마. 정책 사업 5: 청년 안심 주거지 탐색 서비스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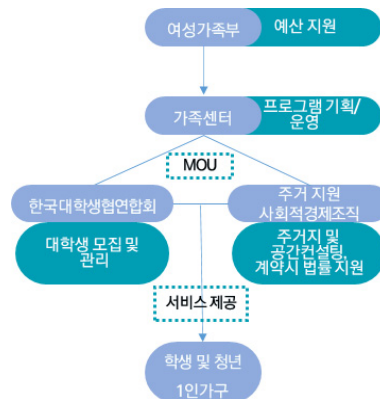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청년·학생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및 청년·학생 주택탐색 비용(중개수수료, 분쟁비용 등) 절감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자) 청년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청년·학생이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 중개 및 주거 컨설팅 제공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주거복지센터, 한국대학생협연합회(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등 전국 29개 대학생협이 회원으로 참여)등이 협약을 맺고 청년·학생 1인가구 중 주거종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지역 공감대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책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주거공간 중개 및 주거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생협 혹은 주거복지센터와 사전 사업 설계 및 참여 학생 대상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학생협연합회/주거복지센터) 사회초년생, 청년·학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유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모색
- 청년·학생의 개인별 상황 및 욕구를 반영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주거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

| 그림 요약-8 | 청년 1인가구 주거 지원 사업안



바. 정책 사업 6: 지역특화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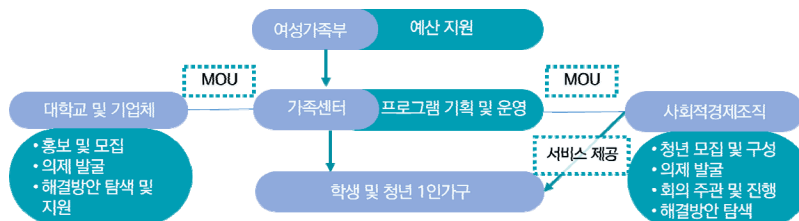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청년 및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사무실 혹은 대학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는 대체로 정주 여건과 공동체 의식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거주자들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여 청년 및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제 혹은 개선점을 찾아 지역 주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자) 사무실 및 대학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청년가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의 청년 및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청년을 조직화하여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실행주체 및 방법) 해당 지역 가족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학 혹은 기업, 청년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지역 이슈를 발굴하거나 특정 주제를 지역에 적용, 해법을 찾는 회의와 과정을 지원
 - (여성가족부) 예산 책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학 및 기업과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홍보
 -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청년 및 1인가구를 모집, 주제별로 구성하여 지역 문제를 찾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유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모색
 - (대학 및 기업) 지역 문제 발굴 및 해법 찾기 과정 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해법 적용 단계를 시범 적용하는 등의 사례 개발
-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대학가, 사무실 밀집지역, 산단 등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청년들의 관계망을 강화. 머물러 있는 지역에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움

| 그림 요약-9 |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2. 정책 제언: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가. 정책 사업 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감소 SIB(사회성과보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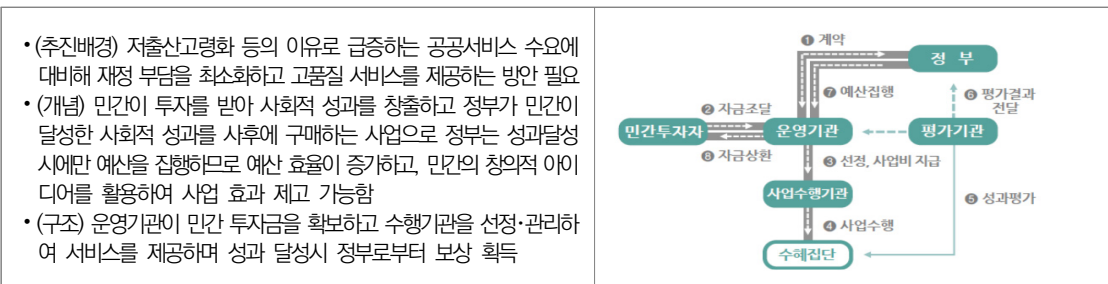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1인가구를 위한 현실적 정책의 수립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아이디어, 재원을 통해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준비단계)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참여 주체)
 - 여성가족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싶은 행정서비스를 선정하고 사업의 평가지표와 투자자에 대한 지급조건을 설정함
 - 운영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행정서비스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사업수행기관)함. 운영기관-행정, 운영기관-투자자 사이의 성과보수형 다년계약을 체결함
- * 사업수행기관 또는 민간투자자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가능
- (실행단계)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성과가 행정, 투자자, 사업수행기관 사이에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행정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이 상환됨. 사업성과가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금을 포함한 지불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부로 처리됨

| 표 요약-4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및 구조



출처: 행정안전부(2017)

나. 정책 사업 2: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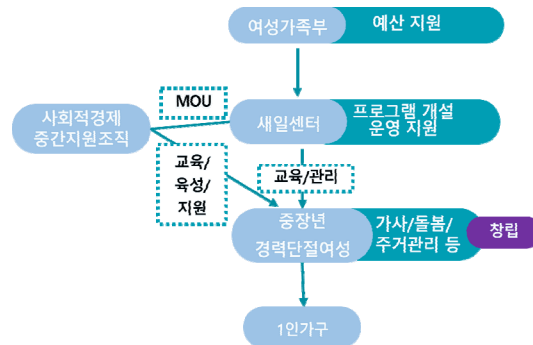
□ 정책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에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중장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희망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이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가족센터/새일센터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양해각서 등을 통해 협약을 맺어 재취업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및 1인가구 필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인큐베이팅 지원
- 가족센터/새일센터에서는 취업 혹은 창업 희망 여성 모집 및 홍보와 교육,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인력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결해 주거나 창업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창립 지원
- 1인가구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와 중장년 여성 혹은 재취업 희망 여(남)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당 영역 사회적경제 조직 유입 및 확장 가능성

| 그림 요약-10 |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인력 지원 및 양성안



다. 정책 사업 3: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정책배경 및 목적

- 1인가구 정책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1인가구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욕구 또한 연령, 세대,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1인가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1인가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1인가구 대상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제공
 - 선정된 아이디어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숙성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공모전은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혹은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함. 공모전의 주제를 통해 시장에 하나의 신호를 주어 참여자들의 관심과 실행력을 이끌어 냄
 - 1인가구 관련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것은 해당 시장이 존재하고 확장한다는 신호임
 - 1인가구 관련 서비스 및 물품을 구상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직접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유인으로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됨
- 비즈니스 모델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1인가구 대상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유인 신호

3. 정책제안: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지원 사업

가. 정책 사업: 기업 내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 정책배경 및 목적

- 기업을 중심으로 비혼을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 1인가구를 배려한 기업 문화 조성을 지원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등 직장 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비혼,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등 1인가구는 물론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사내 교육, 직원 복지 프로그램 등에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혹은 가족친화 인증 평가 항목에 고려하는 방법

-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향후 캠페인, 포럼 등을 통해 1인가구 사내복지 모범사례를 홍보·공유함
- 예) 반려동물 의료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하여,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 지원, 가사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연계해 1인가구 대상 1인 집안 및 청소 지원, 비혼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반찬 만들기, 가사, 목공 등 클래스 운영 등
- 기존 가정 중심으로 설계된 사내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상황의 직원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정책 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1인가구 관련 제도 고려

□ 정책배경 및 목적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가족'에 대한 확장적 개념을 제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1인가구를 배려한 기업 문화와 관련 제도를 가족친화 활동으로 인정해 직장 문화 개선을 촉진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중 다인가구 근로자 지원제도뿐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제도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반영
- 예) 다인가구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를 비혼 혹은 자녀계획 없는 가구에게도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인증시 고려(예: 러쉬 코리아 사례 등)
- 기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제도 구축과 인식개선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배려와 이해 제고를 꾀할 수 있음

차 례



연 구 요 약	iii
---------------	-----

CHAPTE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CHAPTER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주요 영역 분석

제1절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11
제2절 선행연구	15
제3절 1인가구 관련 국내외 정책 흐름	20
제4절 1인가구 당사자 및 정책전달자 심층인터뷰	35
제5절 주요 영역 도출	49

CHAPTER

제3장 주요 영역별 사례 분석

제1절 돌봄	55
제2절 주거	66
제3절 안전	85
제4절 사회적 관계망	94
제5절 생활	103

CHAPTER

제4장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방안

제1절 영역별 주요 내용	111
제2절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 방안	119
제3절 연구의 한계	142
 참고문헌	 145

표차례



표 1-1 연구수행절차	8
표 2-1 가구원 수별 가구	11
표 2-2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2022년 6월 현재	23
표 2-3 서울시 1인가구 담당관 주요 업무	25
표 2-4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개요	35
표 2-5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35
표 2-6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대상자	36
표 2-7 1인가구 정책전달자 및 연구자, 서비스 제공자 등 심층인터뷰 개요	45
표 2-8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51
표 3-1 1인가구 수혜가능한 중앙정부 건강·돌봄 지원 정책(일부)	57
표 3-2 정부 및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58
표 3-3 제주 먹거리 돌봄 구상안	60
표 3-4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 돌봄 프로그램	62
표 3-5 사회주택 공급방식 및 주택소유별 형태	68
표 3-6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조례	69
표 3-7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상 공동체주택의 유형	70
표 3-8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주택 유형	71
표 3-9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연도별 조합원 수 및 출자금	72
표 3-10 터무니있는집 민간전세형 및 공공협업형 유형별 특징	76
표 3-11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 현황	89
표 3-12 2021년 여성가족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선정기관 및 특징	96
표 3-13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대표 프로그램	97
표 3-14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주요 지원 프로그램	98
표 4-1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방안 정책안	121
표 4-2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요 프로그램	125
표 4-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및 구조	135
표 4-4 국내 주요 기업 1인가구 복지 프로그램	141

그림차례



그림 1-1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1985~2047)	4
그림 2-1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2
그림 2-2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12
그림 2-3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상위 5개 지역	13
그림 2-4 1인가구의 어려움	13
그림 2-5 1인가구 주거유형	14
그림 2-6 2022년 서울시 1인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	26
그림 2-7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지원센터 체계도	31
그림 2-8 1인가구 관련 이슈폴	49
그림 2-9 1인가구 지원 및 서비스 유형 분석틀	52
그림 3-1 일본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64
그림 3-2 사회주택 연도별, 유형별 공급세대 현황	68
그림 3-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택공급 현황(2022년 2월 현재)	72
그림 3-4 터무늬있는집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75
그림 3-5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시간 원격검침을 이용한 '위기 알림' 서비스 구성	90
그림 3-6 오사카 가스보안 서비스 주식회사의 안심서비스 체계도	92
그림 4-1 1인가구 주요이슈별 결합 예시	119
그림 4-2 1인가구 가족센터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123
그림 4-3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126
그림 4-4 농산어촌 다문화인 및 경력단절자 연계 고령 1인가구 돌봄 지원사업안	127
그림 4-5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안	129
그림 4-6 청년 1인가구 주거 지원 사업안	130
그림 4-7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133
그림 4-8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인력 양성안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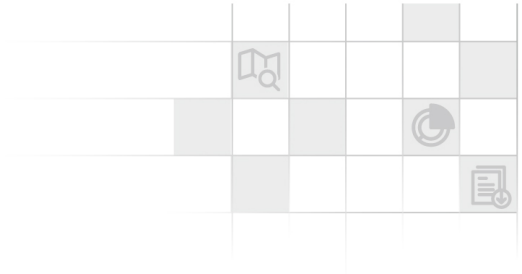


1 CHAPTER 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1인가구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국내 제1의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음. 2020년 현재 1인가구는 664만 3천가구로 이는 국내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함
- 1인가구 증가는 교육 및 취업 준비 등으로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세대의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한 비혼 인구 증가, 이혼 증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고령 1인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있음(변미리 외, 2009)
- 1인가구 증가 및 가구 규모 축소는 세계적 추세임.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의 1인가구 평균 비율은 30.6%이며, 주요국 중 핀란드 41.0%, 독일 37.3%, 일본 34.4% 임. 1인가구 증가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예외적 현상이 아님
- 1인가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대·지역을 아울러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시장-가구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사회적(재)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짐
- 1인가구 증가는 특정 세대 및 지역, 젠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
- 다만 1인가구 안에서도 세대·젠더·지역·자산 규모 등 복합적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가구 수가 1인이라는 것만으로는 동일 집단으로 상정할 수 없음

- 또한 독신 및 비혼으로 인한 1인가구, 이혼 및 별거 가족,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한부모 가족 등 1인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원인과 필요로 구성된 여러 모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

□ 가족 정책을 비롯해 국내 여러 사회보장정책은 부부-자녀 구성의 다인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방향과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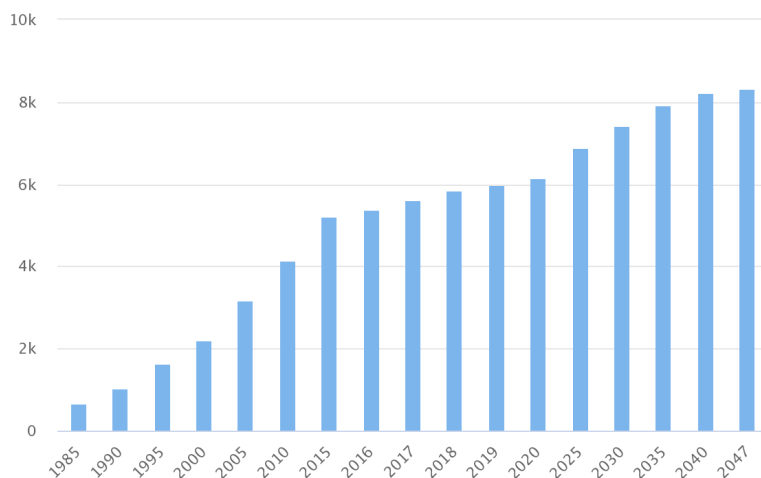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가 인구 정책 논의 요구가 높아졌고,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설치되며 이후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으로 역량을 집중함. 상대적으로 1인가구는 정책 이슈 및 단위에서 우선하여 다뤄진 적이 적었음

- 사회적으로 1인가구는 ‘거처가는 과정’ 내지는 ‘불완전한 형태’로 인식되어 최근에는 정책 대상으로서 다뤄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 및 사회적 관계망, 돌봄 등의 이슈를 맞닥뜨리며 자체적 조례 및 조직 구성, 자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옴

-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펼치기보다 1인가구이기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음

| 그림 1-1 |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1985~2047)

(단위: 천가구)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 연구목적

- 빠르게 늘어나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 특성과 필요를 확인하고 1인가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도출
-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지원의 우수 사례를 뽑아 유형을 분석함. 이를 통해 정책적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 민과 관의 역할 및 결합방식, 구체적 우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 함
- 1인가구 지원에 있어 민관협력 혹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현장 생태계를 점검하고, 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범위 및 방법

- 이 연구에서 1인가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2018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되 현실에 맞춰 물리적으로 독립한 1인가구까지 포괄함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절에 따르면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뜻함(2018년 1월 개정)
 - 다만 사례에 따라 한부모 가족,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친구 및 지인의 동거,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거 등에서 원 가족에게 지원을 받은(혹은 받는) 가구, 학습 및 취업 등을 이유로 금전적으로 지원받으며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등 현실에 맞게 범위를 확장함
- 세대 및 젠더, 지역을 포괄해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 서비스 등 사례 조사
 - 1인가구 대상 주거지 마련 사업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대상 서비스, 기업의 관련 사회공헌 및 사내 복지 지침 등을 조사
-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및 집단심층인터뷰, 자문, 집담회 등의 방식을 사용함
 - 국가 승인통계에서 발표한 1인가구 관련 내용을 발췌, 재가공하여 세대·젠더·지역별로 1인가구 분포 및 차이를 분석함.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1인가구의 분류 방식과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원인과 세대·젠더별 특성,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등을 파악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해 1인가구 지원 계획 및 안전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확인
 - 세대와 젠더를 구분한 1인가구 당사자 집단심층인터뷰를 진행해 1인가구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수집하고,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정책전달자, 1인가구 연구자 등과의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1인가구의 주요 이슈와 필요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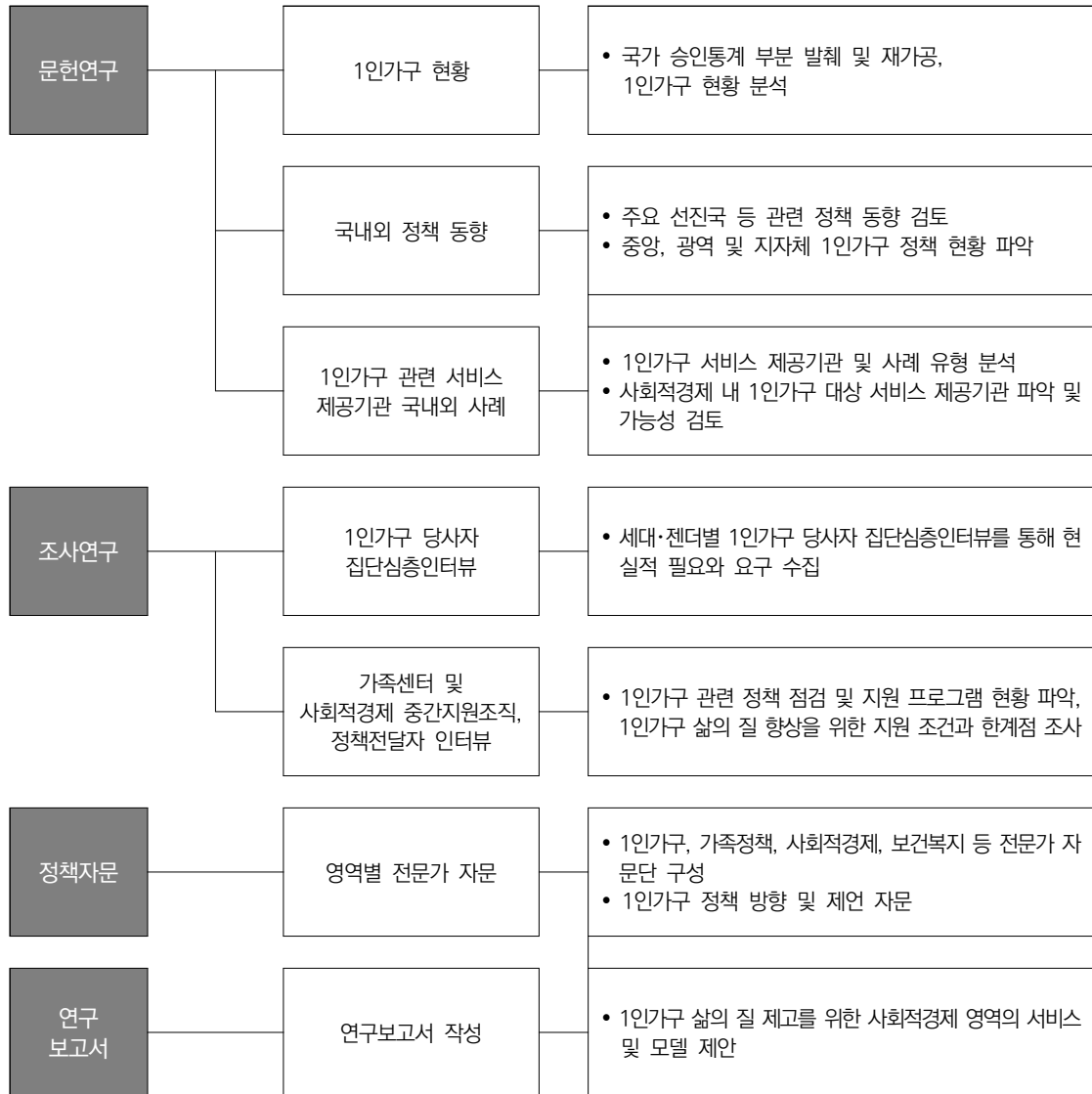
- 사례조사는 심층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진행됨. 서비스 제공자와 자금형태, 서비스 및 제품의 성격, 대상자 등을 분석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제언의 정합성을 높이고 필요 사항들을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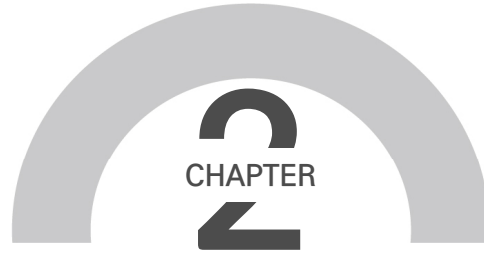
2. 연구구성 및 절차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2장에서는 국내 1인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영역을 도출함. 국가 통계를 활용해 1인가구의 양적 증가와 세대·젠더별 분포를 파악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1인가구 증가 원인과 주요 문제점을 확인함. 더불어 1인가구와 관련한 주요국 정책 흐름을 조사해 가족 정책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접근을 비교 분석함
- 또한 1인가구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필요 사항을 확인, 정책과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정책전달자 및 활동가, 1인가구 전문가 등과의 집담회를 통해 1인가구 현황과 필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봄.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1인가구의 삶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과 관련 이슈들을 파악함
-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주요 영역별 국내외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 자금의 형태(민관, 민민, 정부주도) 및 서비스 제공자를 분석하고 대상자의 유형을 세대 및 젠더로 구분함
- 4장에서는 1인가구의 주요 영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진입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서술함

| 표 1-1 | 연구수행절차





1인가구 현황 및 주요 영역 분석



제1절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11
제2절 선행연구	15
제3절 1인가구 관련 국내외 정책 흐름	20
제4절 1인가구 당사자 및 정책전달자 심층인터뷰	35
제5절 주요 영역 도출	49

CHAPTER 2

1인가구 현황 및 주요 영역 분석

제1절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 2020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하는 664만 3천 가구로 전년도인 2019년 614만 8천 가구(30.2%)에 비해 약 49만 5천 가구 증가
- 매년 1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가운데 2020년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 2018년 0.7%포인트, 2019년 0.9%포인트 증가와 견주어 볼 때 점차 1인가구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1인가구 중에서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9.1%를 차지하며, 30대 16.8%, 50대와 60대 15.6%, 40대 13.6% 순임

| 표 2-1 | 가구원 수별 가구

(단위: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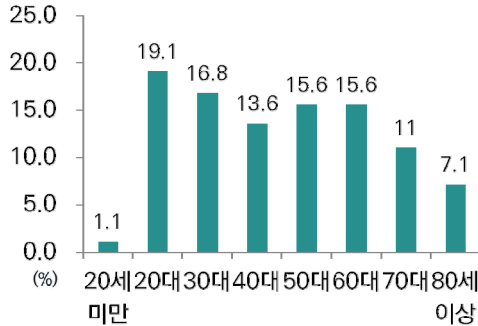
연도	전체 가구	비중	1인가구	비중	2인가구	비중	3인가구	비중	4인이상 가구	비중
2016	19,368	100.0	5,398	27.9	5,067	26.2	4,152	21.4	4,751	24.5
2017	19,674	100.0	5,619	28.6	5,260	26.7	4,179	21.2	4,616	23.5
2018	19,979	100.0	5,849	29.3	5,446	27.3	4,204	21.0	4,481	22.4
2019	20,343	100.0	6,148	30.2	5,663	27.8	4,218	20.7	4,315	21.2
2020	20,927	100.0	6,643	31.7	5,865	28.0	4,201	20.1	4,218	20.2

자료: 통계청,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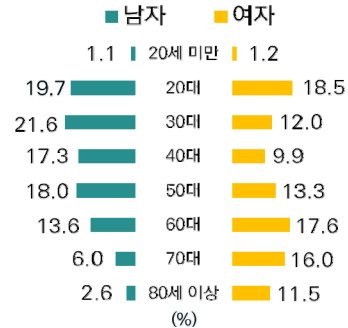
□ 남성은 30대 1인가구가 21.6%로 가장 많고 여성은 20대가 18.5%로 가장 많음

○ 여성 1인가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고, 남성은 30~50대가 56.9%를 차지해 성별에 따라 1인가구 분포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

| 그림 2-1 |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 그림 2-2 |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자료: 통계청,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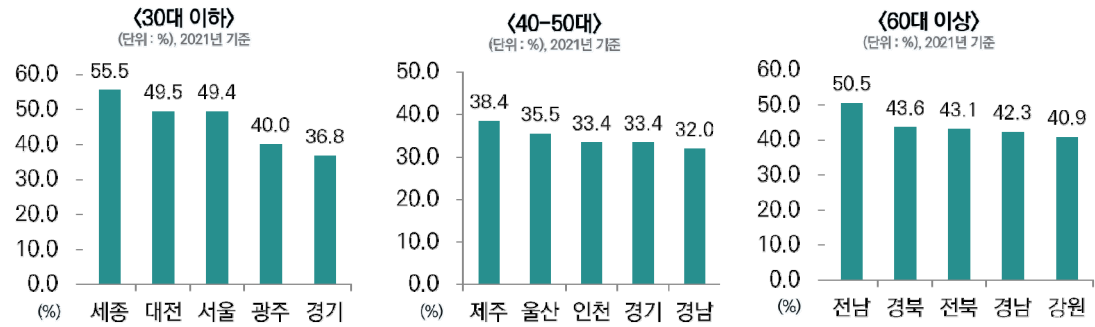
□ 전체 1인가구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21.2%로 가장 높고, 서울(20.9%), 부산(6.9%), 경남(6.3%) 등의 순임

○ 이는 전체 인구 밀집도에 따른 분포이며, 각 지역의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30% 전후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3집은 1인가구인 셈

○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이며 인천이 28.3%로 가장 낮음

□ 세종과 대전, 서울 지역은 1인가구의 절반이 30대 이하로 나타남. 반면 전남은 1인가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경북, 전북, 경남, 강원은 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가 40% 이상으로 나타남

| 그림 2-3 |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상위 5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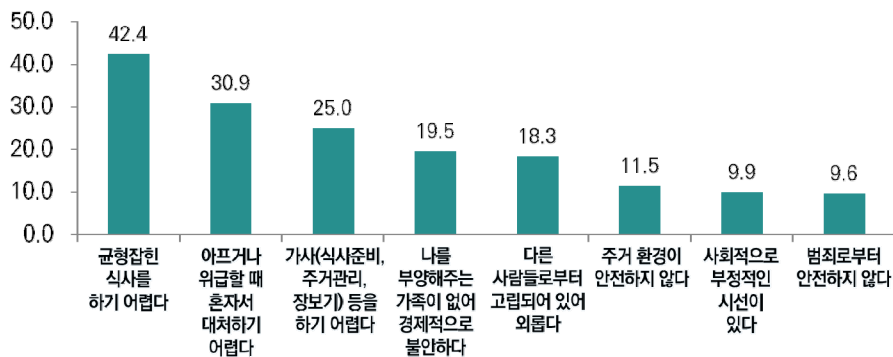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년

□ 1인가구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균형 잡힌 식사(42.4%)를 꼽았고, 응급 상황시 대처가 어려운 점(30.9%)이 뒤를 이음

○ 1인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 19.5%는 경제적 불안,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4 | 1인가구의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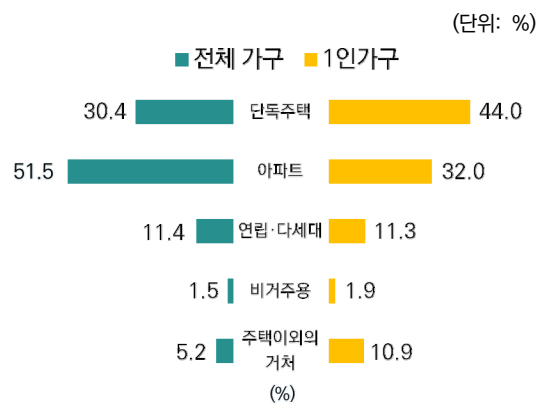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년

□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아파트(32.0%), 연립·다세대 (11.3%) 등 순으로 나타남

○ 아파트 거주 비중은 전체 가구에 비해 60% 정도의 수준이나 계속해서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2.1배 수준임

| 그림 2-5 | 1인가구 주거유형



자료: 통계청, 2021년

제2절 선행연구

-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원인과 현황,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 최근 10년간 1인가구의 세대·젠더·지역별 분포 및 구분, 그에 따른 다양한 필요를 포함한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옴
 - 대부분의 연구는 1인가구 확대가 기존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특정 세대 및 젠더별 1인가구의 어려움이 해당 집단의 단기 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세대가 이동되어 문제가 발전할 수 있음을 염려함
 - 주로 1인가구의 주거와 돌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찾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됨
- 이명진 외(2014)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립사회’로 정의하며 가족·시장·국가의 불균형한 관계, 즉 가족 역할 축소, 시장주의 팽창, 국가 역할의 필요성 증대의 교차 시점에 ‘1인가구 확산’ 현상이 존재한다고 봄
 - 이러한 불균형을 상쇄시켜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 노력이 필요함에도 국내 가족 정책은 여전히 4인가구, 핵가족 중심이어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다수의 가족을 정책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문제를 양산한다고 지적함
- 홍승아(2017)는 1인가구가 연령·젠더·계층 등에 따라 이질성 및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적 특징이 낮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각 특성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강은나·이민홍(2016)은 연령별로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고령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해 각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함. 정책설계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접근 필요성과 1인가구가 처한 공통적 위험요인을 고려해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함

- 노혜진(2018)은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주거나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청년 지원정책의 범위와 초점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책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1. 젠더별

- 여성 1인가구는 ‘여성’과 ‘1인가구’ 특성을 포함하는 교집합으로 사회 내에서 취약 집단 중 하나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1인가구들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경험이 있고 건강, 범죄, 폭력 등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장진희(2022)는 안전에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이자 특히 성폭력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 특성에 주목함. 이들의 우선적 안전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확충, 기존 사회적 관계망의 질적 향상지원, 신체건강 자조 모임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
- 김혜정(2015)은 여성 1인가구의 가장 큰 특징이 관계의 단절임을 밝히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나 대화할 상대가 없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분석함.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지역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의 제공 필요성을 제안
- 장진희·김연재(2016)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거주 청년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위치와 주거환경,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을 점검함. 서울시 청년 여성 1인가구는 교육 및 취업 준비 등 자발적 유입비중이 높아 다른 연령의 1인가구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나, 주거 불안정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저층이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의 불안감이 높았음. 이에 청년 여성 1인가구가 직면한 주거불안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
- 박건·김연재(2016)는 중장년 여성 1인가구가 비혼, 이혼·사별 등 자발적/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구성된 집단이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함. 이들은 고령 여성 1인가구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에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나 노후준비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 문은영 외(2013)는 서울시 거주 고령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 이용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제시함. 특히 고령 여성은 일반적 어려움 외에 건강·소득·활동 부문에서 남성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드러냄
- 박승곤(2021)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경제·사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삶을 분석함
 -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고령자나 여성 등의 집단에 비해 공적 지원이 부족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지적
 -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 건강, 경제, 사회관계는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세 가지 영역의 접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
- 박준범(2020)은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중장년층 여성이나 고령자층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열악한 특성을 보임을 지적
 - 특히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가 스스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방안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고 해소가 시급하다고 파악함
- 또한 장온정(2015)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이들의 사회자본 형성과정 및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
 -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이혼 등 비자발적인 1인가구의 삶을 맞이했고, 관계망 축소로 인하여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위축을 경험.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의 낙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2. 지역별

- 1인가구를 지역별로 구분한 연구들은 지역 간 1인가구 젠더·세대별 분포를 분석함
 - 많은 연구에서 집단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자치단체 및 광역시 맞춤형 1인가구 지원방안 혹은 기본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김준형(2012)은 1인가구가 갖는 특성에 있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지역별 차이를 분석함
 - 서울과 대전은 상대적으로 사회초년가구와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고차서비스업 혹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반면 부산, 대구의 경우 고령가구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천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종사 가구와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 역시 높은 수치를 보임
- 변미리(2014)는 서울시의 1인가구 현황·정책수요·관련 제도를 분석해 1)주택주거부문, 2) 사회적 안전망, 3)공유사회 지향 정책으로 나누어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제안
- 문정희 외(2017)는 질적·양적 자료를 활용해 부산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과제 도출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부산시 사회통계조사를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인터뷰를 실시. 이에 대해 부산시 청년, 중장년, 고령 1인가구 등 세대별과 경제, 주거, 생활 등 분야별 실행과제를 도출함
- 박은미(2018)는 경북 지역 20대에서 60대 이상 1인가구 500명을 중심으로 생활지원, 주거 환경 및 안전, 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청년층은 1인가구 형성 동기를 개인적 시간 희망 및 비혼으로 밝혔고,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1인가구 형성 계기가 주로 이혼과 사별이었으며 건강이나 외로움을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밝힘. 다만, 중장년층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반면, 고령층은 이웃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희진 외(2021)의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관내 1인가구 특징 및 세대·지역·성별 현황을 분석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및 단기과제를 도출함
 - 전라북도 1인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층에 많이 분포해 있었고, 이혼/별거/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청년 1인가구는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고, 중장

년은 고립에 따른 고독사의 문제 및 경제적·정서적 안정의 문제, 고령자는 위급 시 대처 방안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보다 농촌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 1인가구의 70% 이상이 고령 1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임우연(2018)은 충청남도의 1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남성 1인가구 비율과 고령자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함
 - 1인가구 내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세대별 정책 수요 차이를 반영한 가구 형태별 세분화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 임우연(2020)은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주거, 안전, 건강, 여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충청남도 1인가구를 지원하는 기본·종합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함. 주택안정, 주거환경 개선, 경제일자리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도출함
- 정혜은(2022)은 인천시 1인가구 종합적 정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 1인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인천시는 2010년 대비 2020년의 1인가구 증감률이 70.2%로 국내 주요 도시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 1인가구·50대·이혼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인천시 1인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할 인천시 전담조직, 군·구 사업 수행 주체, 공통사업 및 중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함

제3절 1인가구 관련 국내외 정책 흐름

1. 국내 정책 흐름

가. 법적 근거 마련 및 통합 TF 구축

- 1인가구 수가 매년 전망치보다도 빠르게 늘어나며¹⁾ 가히 1인가구 보편화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 조항이 포함되며 1인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절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1인가구로 정의
- 2020년 정부는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TF) 구성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등 총 15개 부처, 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 같은 해 5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를 공지하고 각 영역별 정책적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

나. 중앙부처

- 주거 및 돌봄 등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는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하며 1인가구의 실질적 필요와 지원 방안을 마련
- 여성가족부의 경우 2022년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예산을 신설하여,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

1) 2025년 이후 1인가구 비율이 30%를 상회한다고 전망하였으나(2018년, 통계청) 2019년에 이미 30.2%로 급격히 증가

- 해당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더불어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와 ‘여성 1인가구 안전실태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며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생애주기 상 특성, 정책 수요 등을 분석. 이를 반영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표한 지역 기반 취약계층 돌봄계획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반 저소득층 1인가구 돌봄과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모색 중
 - 1인가구 관련 고독사 예방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부터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행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1인가구 명단을 통해 기존 고령자 중심에서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
- 국토교통부는 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 하우스,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을 지원
 - 2021년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후 시세의 50% 이하로 향후 1인가구에게 임대 공급할 계획임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여,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했던 특별공급 신청기준을 확대해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
 - 1인가구 증가 등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 도입을 위해 ‘새로운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함
- 통계청은 2020년부터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펴내며 1인가구의 연령·세대·지역·젠더·주거형태·애로점 등을 비교 분석해 1인가구의 동향과 추이를 살핌

다. 지방자치단체

(1) 1인가구 지원 조례

- 법 개정 이전까지는 가족의 형태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기존 제도 내에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움이 있었음(장진희 외, 2018).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박미현, 2020)
- 1인가구 지원 조례는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1인가구에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임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례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해당 조례는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에 집중함. 1인가구 지원 조례는 1인가구 생애 전반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총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16년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지원 조례는 크게 목적과 정의, 책무를 통해 1인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박미현, 2020)
 - 지자체들은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1인가구 복지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인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해 사회적 가족 도시 형성에 기여

| 표 2-2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2022년 6월 현재

구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광역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마포구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동구, 유성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진구,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파주시, 구리시, 평택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전라남도	여수시, 영광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소계		12	
기초자치단체	강원도		속초시
	충청북도		청주시
	소계		41

자료: 박미현, 2022년

(2)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

- 서울시는 2019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차 기본 계획(2019~2023년)을 수립함
 -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목표, 1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됨
 - 3대 추진목표는 ①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 유지 ②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③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임
- 광주광역시시는 2019년 1인가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옴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족, 광주광역시 1인가구’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일자리와 상담 등을 통한 자립적인 삶 확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로 안정적인 삶 실현 ▲어울림과 상호돌봄을 통한 따뜻한 삶 구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 지원 ▲사회적 인식과 정책개선으로 다양한 삶 인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됨
- 경기도는 도내 140만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
 - 추진안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외로움·고립 극복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7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됨
 - 취약계층 1인가구 중심에서 보편적 1인가구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개방적이고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또한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2023~2027)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1인가구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대전광역시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함. 주거, 안전, 공동체, 돌봄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함

(3) 개별 사례: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가구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한 뒤, 이듬해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 연구를 진행. 2018년 1인가구와 서울시, 자치구, 서울복지저버너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관련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2019년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발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출범

- 민선 7기 1호 공약으로 2021년 4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출범(TF 형태로 추진)했으며, 안전·외로움(고독)·주거·일자리 4가지 분야에서 사업 추진. 민선 8기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1인가구 담당관 내 5개팀(1인가구정책팀, 1인가구협력팀, 생활지원팀, 안전지원팀, 주거지원팀)으로 구성됨

| 표 2-3 | 서울시 1인가구 담당관 주요 업무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총괄, 정책 자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사회관계망 형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병원안심동행, 단기 돌봄, 행복한 밥상, 생활관리빙랩 등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 안심마을보안관, 안심장비 지원, 불법촬영 대책 등 범죄 안심환경 구축
- 1인가구 주거모델 개발,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주거불안 해소

□ 2022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년간 5조578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밝힘

- 1인가구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대책 추진, 건강-주거-고립-범죄 등 4대 분야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
- 이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착한 먹거리 꾸러미 △‘온서울 건강온’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확대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등을 운영

| 그림 2-6 | 2022년 서울시 1인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

건강 안심	1 맞춤형 건강돌봄 제공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 1인가구 건강관리프로그램	5 고독·고립 탈출 지원 - AI 활용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사업 확대	고립 안심
	2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행복한밥상 -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	6 자립환경 조성 -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및 소통공간 - 1인가구상담센터 운영 및 경제자립 지원	
범 죄 안심	3 밤길 안전 보호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스마트보안등 및 고화질 CCTV	7 1인가구 맞춤형주택 공급 확대 -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공급 -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주거 안심
	4 1인가구 내집안전 강화 - 안전도어 지킴이 - 1인가구 안심홈세트	8 내집찾기, 내집관리 불편해소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 서울시는 1인가구 대상 필요한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자치구 ‘1인가구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있음(2020년 20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 24개소 예정)
 - 강남·강동·서초·성동구의 경우 별도 공간을 확보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 외 자치구의 경우 가족센터 내 공간과 조직 확보로 1인가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구조임. 서울시를 사업비를 지원하며 인력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조달
- 1인가구 지원센터는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혹은 예비 1인가구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문 심리상담, 1인 특화 프로그램 발굴·진행, 1인가구별 맞춤형 정책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 관계망, 건강, 경제·자립, 안전, 주거 중심을 주제로 프로그램 편성되며 공통 프로그램 외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운영 중

□ 1인가구 포털 “싱글벙글 서울”²⁾

- 서울시 및 관내 자치구의 1인가구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함. 시와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행사, 상담, 소모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주변에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줌
 - 지역 및 연령, 성별, 희망 영역(안전/주거/경제·일자리/외로움/질병)을 설정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2) <https://1in.seoul.go.kr>, 2021년 9월 오픈

2. 해외 정책 동향

-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보다 먼저 1인가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1인가구 관련 정책을 고안·도입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 증가는 1970~80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된 변화지만, 국내의 경우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 주요국 1인가구 관련 정책으로는 대부분 주거 지원과 돌봄 정책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노력함. 1인가구 증가율에 대해 높은 이혼율과 별거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발적 미혼자, 대도시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 등을 주요 원인으로 바라봄
 - 특히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려함. 다양한 주거 정책으로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면서 공동체 유지를 지향하는 형식임(김형균, 2019)
- 주요 선진국 관련 정책은 크게 청년과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돌봄과 주거 지원 정책이 중심이 되고,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이 중심이 되어왔음. 최근 들어 고령자층과 청년층이 서로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지향의 주거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임우연, 2020)
- 주거 정책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공동주택, 고령자 맞춤 주택 등과 같이 저렴한 주거비 및 1인가구 생활여건에 맞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나 주택 바우처 제도, 주거수당과 같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거주환경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함(김윤영, 2017)
- 돌봄 부문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를 보임.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독·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담당관을 신설하며 사회적 단절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가. 영국

- 영국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유연한 주택 정책을 도입해 청년 및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고령자 보호주택, 공공주택 건설·공급 사례가 다양함(이석환·최조순, 2015)
 -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체계적 공급을 추진하는 ‘감당 가능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을 진행. 201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공동체주택 공급 조직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조직에 사업비 및 보증 등을 지원
 - 2011년부터 빈집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Empty Home Community Grant Programme)’에 공동체주택 공급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변미리, 2014)
 -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은 요양원과 달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 고령 1인가구의 응급상황은 대비하되 자발성과 사생활을 보호. 공동 라운지와 세탁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이석환·최조순, 2015)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도 펼쳐짐.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자본과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제고를 꾀함
 - 외로움 종결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 2017년 영국 국가복권공동기금으로 영화 ‘외로움 프로젝트(The loneliness project)’를 제작·배포. 외로움의 심각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 2018년에는 지역에서 인사하거나 버스에서 미소 지으며 말하는 작은 순간을 기념하는 캠페인(‘Be More Us’)을 펼침
 -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외로움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연구로 외로움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 조부모 입양 캠페인: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자 감소에 따른 고령자의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부모 입양 캠페인’을 시작함. 조부모 입양 캠페인은 조부모가 없는 청년과 손자녀가 없는 고령자를 연결해 편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교류를 지원하는 온라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임

- 영국은 2017년 ‘조 콕스 고독문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8년 사회적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 담당관직을 신설하고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스포츠·시민사회 차관을 담당으로 임명
 - 영국 정부 행정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내에 구성됨. 외로움에 대한 해악을 알리고 고독으로 인한 당면한 문제부터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 보조금 지급: 고독 개입 기금, 관계 구축 기금, 코로나19 지원 기금, 지역 연결 기금 등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조직 및 자선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지원함
 - 고독 해결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 ‘고독 해결 네트워크’를 만들어 자선단체, 기업,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립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데이터 및 연구를 함께 공유
 - ‘#고독에 대해 말하기’ 캠페인(#Let'sTalkLoneliness Public Campaign): 고독에 국가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 챗봇 서비스: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앱상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고독 관련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운영

나. 일본

- 일본은 1인가구의 고독사, 이웃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관련된 다양한 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1인가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 설치와 함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진행 중
 - ▲고령 1인가구 실태 파악 ▲고독사 방지를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의 관계 만들기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이미 발생한 고독사의 조기발견을 위한 ‘고독사 110번’ 긴급연락시스템 등을 구축해 고독사를 방지하려 함(이미애, 2013)

-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니어살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2021년 2월 총리관저 내각관방(내각사무소)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³⁾’을 신설
 -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은 총리가 본부장, 현재 지방창생(創生)상이 고독·고립 담당상을 겸직하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
- 지역포괄지원센터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종합상담 지원과 고령자 권리 옹호, 개호 예방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자 및 고령 1인가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생활권 단위에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협력기관들이 제후해 고령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 지자체별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 동경도 아다치구는 고립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고립 우려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상적인 보살핌·말 걸기 활동·정기적인 방문 활동을 펼치고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함께 상가, 목욕탕, 우체국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곳들을 협력기관으로 두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대비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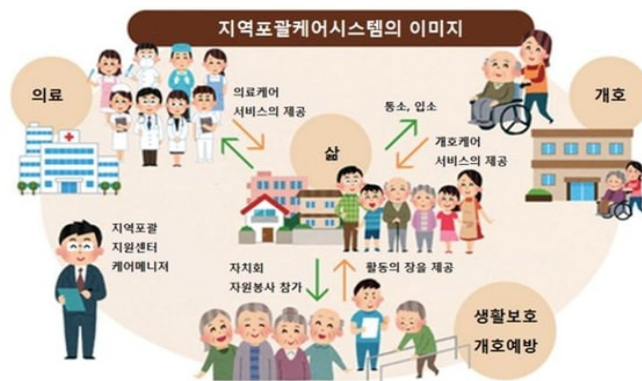
3) https://www.cas.go.jp/jp/seisaku/kodoku_koritsu_taisaku/index.html

4)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 한편 자치구별로 1인가구 주택 건축기준 조례를 제정해 1인가구를 위한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김윤영, 2017)

○ 도쿄 신주쿠구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원룸 및 맨션을 건축할 때 ▲1가구당 최소 $18m^2$ 이상의 전용 면적을 확보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관리실 설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건축기준이 있음

| 그림 2-7 |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지원센터 체계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복지뉴스 재인용

다. 프랑스

□ 프랑스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1인가구이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코자 함.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과 고령 1인가구의 돌봄 및 사회관계 증진에 대한 정책이 대표적임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는 개인별 주거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사회적 주거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caractre social)이 있음

○ 개인별 주거수당은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1인 청년가구가 주요 대상으로 월세에 따라 차등 지원함. 월세가 1,171유로(약 16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개인 은행저축이나 자산이 3만 유로(약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거수당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별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거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 주거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고령 1인가구 지원 정책은 고령자 정책 안에서 수립되며 주로 돌봄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임
 -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제도인 고령자장기요양보험 또는 가정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이 제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 수당(L'allocation simple)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자를 위한 고령자연대수당(ASPA, L'allocation simple)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고령자연대수당은 월 소득 868유로(약 118만원)로 미만(부부는 1,347유로, 약 183만원)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코로카시옹(colocation)⁵⁾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를 매칭하여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고령층의 사회고립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임
 - ‘두 세대가 함께’라는 협회가 매칭을 진행하며 입주 전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은 ① 방세는 없지만 저녁 7시까지 귀가, ② 적은 금액의 방세를 내면서 어르신인 생활을 돕는 조건, ③ 방세를 전부 내고 조건 없이 사는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음
 -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본떠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룸 셰어링 사업을 시작함. 구청에서는 어르신과 학생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하길 원하는 대학생들이 구청을 통해 신청하고 각 구마다 정해진 신청 자격 조건만 통과하면 바로 매칭이 진행됨. 룸셰어링 선정 대학생은 무보증금에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약 20~30만원 대의 월 임대료를 지급함
- 공공재단인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에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고독감 해소를 위해 약 1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사회적 카페’ 프로젝트는 1인가구들이 직접 카페에 모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임. 은퇴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청년세대는 ICT 등 신기술을 은퇴세대가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5) 한경미, "91세 할머니와 23세 여대생이 같이 살아요,"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18일. <https://han.gl/hpfos>

라. 미국

- 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는 취약계층 1인가구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이 발견됨. 민간에서는 자체적 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진행되는 형태임
-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 1인가구에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할인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지원. 특히 고령 1인가구에게는 주거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주거 취약계층 1인가구 대상 정책인 SRO(Single Room Occupancy)는 미국 주택도시부(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제정한 특수 주거 유형 중 하나로,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가 지원 자격을 가짐
 - 지역 기반의 공공주택기관(PHAs: Public Housing Agency)이 미국 주택도시부와 연간 기부 계약을 체결해 노후화된 호텔, 빈집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1인가구에 공급함.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지원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수비용, 소유비용, 관리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함(변미리, 2015)
 - 저소득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SHFYA(Supportive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비용을 지원(정순희, 2019).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24세 이하의 학생이면서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고령 1인가구 대상 정책인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ORC: Nation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⁶⁾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50% 이상의 비율로 거주하는 지역을 지정, 요양시설로 이전하는 일 없이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서비스 및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 NORC는 회원들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내 상점·병원·공공기관 및 민간 종교단체 등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 서비스에는 사례관리, 식사배달, 예방건강대책, 사회활동, 상담, 가사 서비스, 교통, 간호 서비스 등이 포함됨
 - NORC를 이용하는 고령 1인가구는 30달러(약 3만 8천원), 2인가구는 45달러(약 5만 7천원)의 연회비를 내고 프로그램 회원자격을 얻음

6) <https://jfsstl.org/norc/>

□ 이외에도 민간 영역에서 사회봉사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고령 1인가구의 생활 편의를 돕고 있음

○ YANA(You Are Not Alone)⁷⁾

- 2012년 조직된 단체로 은퇴한 경찰국 자원봉사자들이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대상자의 안전과 식사, 신체적 건강, 재정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대상자가 전화를 3번 받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혹은 경찰관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응급의료 및 구조를 요청하거나 고령자보호서비스 등에 연계

○ NODA(No One Dies Alone)⁸⁾

-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방문할 친구나 가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 옆에 머무르면서 환자의 손을 잡거나 말을 걸거나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함

○ 식사배달서비스(Meals On Wheels, MOW)⁹⁾

- 195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어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뒤, 현재 미국 전역에서 매년 약 250만 명의 고령자가 식사배달서비스를 받고 있음
- 고령자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시설을 통해 고령자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영양섭취 및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 또한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고립 및 단절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7) <https://www.sdsheriff.gov/community/you-are-not-alone>
<https://www.sdsheriff.gov/home/showpublisheddocument/739/637461520302200000>

8) <https://www.nodaweb.org/>

9) <https://www.mealsonwheelsamerica.org/>

제4절 1인가구 당사자 및 정책전달자 심층인터뷰

1.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가. 조사배경 및 방법

- 1인가구 당사자로부터 1인가구 특성 및 정책 체감도,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심층인터뷰는 생애주기,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수도권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여성 1인가구 총 18명을 <표 2-4>와 같이 총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함. 표집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모집, 진행함
 - 모든 심층인터뷰는 실시에 앞서 비밀보장과 관련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가 이루어짐
 - 고령 1인가구는 표집의 어려움 및 대표성이 낮다고 판단해 정책전달자 및 지역·고령·1인가구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통해 상황 수집

표 2-4 |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구분	일시
그룹1(중장년 남성)	2022.8.20.	그룹3(중장년 여성)	2022.8.27.
그룹2(청년 남성)	2022.8.20.	그룹4(청년 여성)	2022.8.27.

- 주요 질의 내용은 사전에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표 2-5>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가 활동, 소비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와 안전, 1인가구 지원정책 참여 및 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표 2-5 |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조사내용
기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직업, 거주지, 주거 타입 • 취미 및 관심사, 반려동물 유무
1인가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형성의 이유 • 1인가구 생활 만족도와 그 이유(삶의 질 수준) • 1인가구 유지계획: 언제까지 1인가구로 살 계획인지?

구분	조사내용
주거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지역 선택 이유 및 만족도, 만족도 이유(쾌적성 및 안전성 포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적 노력 여부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및 생필품 구매처(장보기 장소)와 그 이유 • 식재료 및 생필품 구매, 유통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외적으로 정기적인 타인과의 교류 여부(가족 포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및 학업 시간 외 무엇을 하며, 여가활동이 주는 의미 • 여가활동 횟수, 여가를 함께하는 사람(혼자 할 경우 그 이유)
노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로 생활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대상 지자체나 공공기관, NGO 등의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여부와 그 이유 • 기존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

□ 조사대상

○ 심층인터뷰에 참석한 대상자의 특징은 <표 2-6>과 같음. 인터뷰 그룹의 구성은 성별과 연령, 1인가구 기간, 소득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 표 2-6 | 1인가구 당사자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참여자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주거형태 (유형)	월평균 소득	혼인상태 (결혼의향)	1인가구 유지기간	종교 활동
남성	청년	M01	27	강서구	취업준비	오피스텔(월세)	200만원	미혼(△)	1년 3개월	○
		M02	27	관악구	사무직	오피스텔(월세)	200만원	미혼(○)	2년	○
		M03	30	용산구	사무직	빌라(월세)	300만원	미혼(○)	5년	×
		M04	36	구리시	프리랜서	빌라(전세)	120만원	미혼(○)	2년	×
	중장년	M05	41	관악구	학원강사	오피스텔(월세)	300만원	미혼(○)	8년	×
		M06	46	중구	프리랜서	단독주택(전세)	100만원	이혼(△)	5년	○
		M07	48	마포구	회사원	빌라(전세)	400만원	미혼(○)	20년	×
		M08	57	영등포구	회사원	오피스텔(월세)	500만원	이혼(×)	10년	○
		M09	60	송파구	회사원	오피스텔(월세)	300만원	이혼(×)	5년 6개월	×
여성	청년	F01	24	동대문구	사무직	빌라(월세)	190만원	미혼(×)	4년	×
		F02	26	은평구	프리랜서	빌라	210만원	미혼(○)	2년 6개월	○
		F03	30	서초구	프리랜서	상가주택(월세)	170만원	미혼(×)	11년	×
		F04	32	구로구	사무직	아파트(전세)	300만원	미혼(×)	3년	×
		F05	34	영등포구	사무직	오피스텔(월세)	210만원	미혼(×)	3년	×
	중장년	F06	41	하남시	사무직	아파트(전세)	350만원	미혼(×)	4년	×
		F07	48	서대문구	학교관련	오피스텔	250만원	미혼(△)	16년	○
		F08	57	강남구	학교관련	빌라	250만원	이혼(×)	1년 6개월	×
		F09	58	은평구	국악강사	빌라	150만원	미혼(×)	35년	○

나. 주요 결과 요약

(1) 1인가구 형성

□ 1인가구 형성 이유

- 청년 1인가구는 원 가족에서 독립하여 1인가구를 형성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기존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
 - 경제적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집단으로 보이나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확인됨
- 중장년 1인가구는 미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를 형성했다는 특징을 보임

□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물었을 때 **중장년 여성(7.75점) > 청년 여성(7.4점) > 청년 남성(6점) > 중장년 남성(5.1점)**의 순으로 높았음
- 공통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없다는 부분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중장년 남성은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과 외로움, 청년 남성은 가사 생활의 어려움이 주된 불만족의 요인이라고 응답함. 청년 여성의 경우 특히 치안(안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협소한 주거공간 등 다양한 불만족 요인이 확인됨
 - 한편 몸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응답도 공통적으로 확인됨

□ 1인가구 유지계획

- 여성 참여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1인가구로 계속 생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1인가구로서의 생활 유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함

(2) 주거와 안전

□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 대부분 교통 편리성, 직장 접근성, 저렴한 가격이 주된 거주지 선택 이유로 언급됐으며 청년의 경우 원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선택했다는 응답도 일부

확인됨

- 여성 청년 1인가구 참여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참여자는 주거 만족도가 크다고 응답함

- 참고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공유주택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청년 남성 1인가구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불편하고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음. 중장년의 경우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주택이 괜찮은 선택지나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한 시기인 청년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주거환경 만족·불만족 이유

- 오피스텔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공간이 좁아 수납의 한계, 채광의 제약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 남성 참여자들은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이 깨끗하지 않거나(청년) 거주지의 주차 문제(중장년)가 주거 불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함. 반면, 여성 참여자들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주거 불만족의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

- 여성 응답자들은 치안이 주거환경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슈로 늦은 시간 귀가를 지양하거나 호신용품 구비, 지자체 건강·가족센터로부터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 시 지자체에서 지원함)를 신청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함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자체 지원사업을 찾아봤다고 응답함.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벽지 교체 및 문 수리를 무료로 하거나 서울시 1인가구 수리지원 서비스로 창틀이나 블라인드, 조명을 교체함

(3) 소비생활

□ 식재료 및 생필품 주요 구매처

- 청년 남성 1인가구는 먹거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생필품은 온라인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간편식이나 주류를 구매한다고 응답함
- 여성 1인가구는 온라인 쇼핑몰(이마트몰, 마켓컬리, 티몬 등)에서 주로 식재료 및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간단한 제품의 경우 집 근처 마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평일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과일, 요거트, 삶은 달걀 등)하는 경향이 높음

□ 식재료 및 생필품 판매·유통의 보완 사항

- 대용량, 묶음 판매일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식품을 보관하고 먹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확인함. 비싸지만 1인가구에 맞춰 소분한 과일, 채소를 구매한다는 응답도 다수임
 - 번들로 제품 구매 시, 지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 거주공간 오픈채팅 등)를 통해 함께 제품을 나눌 사람을 찾는다는 응답도 일부 확인함
 - 한편 인터넷 구매 시 과포장으로 분리수거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일부 응답자는 과일은 소분과 보관이 어려워 먹고 싶어도 사지 않는다고 응답함
 - 여성 1인가구는 부피가 크고 한 번에 먹기 많은 양의 수박 같은 과일은 과일전문점에서 소량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주스를 구매한다고 응답함

(4) 사회적 관계

□ 타인과의 교류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지인과 주 1회 만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월 1회 모임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지인들의 결혼·육아, 취업·직장생활 등으로 점차 편한 만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함

- 청년 여성 1인가구 참여자 중 일부는 영화감상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 등 관심사에 기반한 모임 활동에 참여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참여자 중 일부는 등산이나 재테크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친목도모를 위한 가벼운 모임에서부터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독서모임까지 모임의 층위가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됨
-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응답자들은 여성보다 관계 형성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친구)을 찾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참여자는 119 안전신고센터,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답변함
 - 참여자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IoT 시스템을 설치, 움직임 감지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연락을 취하거나 냉장고를 이틀 이상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
 -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홈 케어’ 서비스로 냉장고 사용 빈도를 분석해 혼자 살거나 멀리 사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냉장고 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계속 닫혀 있으면 등록된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돼 가족의 안부확인이 가능함
- 청년 참여자는 건강을 위해 운동에 신경을 쓰는 정도라면 중장년 참여자는 혼자 살기 위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 동시에 아픈 상황이 불안으로 와닿기 시작함

(5) 여가활동 및 관심사

- 청년 남성 1인가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며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 모임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청년 남성 1인가구는 재테크를 통해 본인 명의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거 지출 비용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취미 및 관심사

- 중장년 남성은 주로 건강 관련 활동(홈트레이닝, 등산, 공원 산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청년 남성은 재테크에 관심사가 집중됨. 청년 및 중장년 여성은 독서, 영화감상, 전시회 관람,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미를 혼자 혹은 모임 참여로 즐기고 있음

□ 반려동물 유무

- 청년 및 중장년 남성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중장년 여성 1인(고양이)과 청년 여성 2인(햄스터, 구피)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함
- 정서적 유대감, 안정감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노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을 공통으로 확인함

(6) 노후준비

- 참여자의 대부분은 예·적금이 주된 노후준비 방안이며, 청년 참여자 일부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려 한다고 응답함
- 청년 여성 1인가구 참여자의 다수는 비혼을 고려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7) 1인가구 대상 지원 프로그램

□ 1인가구 대상 정책 또는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여부

- 청년 1인가구는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경향을 확인함
 - 스마트폰 맞춤형 광고 설정으로 1인가구 대상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한다는 의견도 있음
- 다양한 정책 중 서울시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높았음
-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를 통해 지자체 내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응답도 확인함

□ 기존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남성 1인가구들은 대체로 지자체나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여성 중심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냄
 - 청년 남성 1인가구는 2030남성은 운동(구기종목)이나 악기, 자동차 또는 재테크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함
 -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장년 대상 지원이 부재하다며, 양질의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비용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언급함
 - 청년 남성 1인가구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전문가가 동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응답함. 예를 들어 주거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교육 보다 지자체가 법무사협회 등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1인가구의 부동산 계약 과정에 법무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응답함

□ 청년 1인가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 표현

- 일반적인 재테크, 부동산 계약 정보 등은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지자체나 센터에서 하는 강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답변
- 반면 식자재 등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온라인 플랫폼(예: 줌(zoom) 등)으로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여성 1인가구는 가족공예, 목공예, 라탄공예 등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부담이 없다고 답변함
 -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응답이 청년 여성 1인가구 참여자들로부터 확인됨. 1인가구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

-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독거노인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 중 일부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제 공급이나 신선한 채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중장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을 통한 광고·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청년 남성 1인가구 참여자 중 일부는 커뮤니티 유지 및 운영이 주목적인 플랫폼(자취 정보 공유, 품앗이·공동구매 등)이나 1인가구의 문제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목적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지원정책이 있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 월세가 크게 오르며 1인가구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꾸준히 월세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정보는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현재 접수 중(1년간 수시 지원 가능)이나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단발성 지원이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요구

- 1인가구는 거주지의 주거 성능(공간 협소, 채광 등)이 미흡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임
- 청년 1인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아 주거 안정성이나 주거자산이 낮지만, 주거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아님
- 중장년 1인가구는 소득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 건강문제,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이 고령층에 접어들 때 현재 고령 1인가구가 직면한 고령자 빈곤, 주거 문제 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 여성 1인가구는 치안(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거주지를 비롯한 생활환경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으로 이해됨
- 간편식, 포장 등이 일상화된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대보다는 성별 차이를 확인함. 직접 조

리를 해 먹는 경우는 여성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도 혼자 먹기 때문에 간편식(샐러드 등)을 주로 조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장년 참여자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었으며, 청년 참여자들은 가족과도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친구를 비롯한 지인과 만남이 잦아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여성이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를 통한 직거래, 커뮤니티 정보 확인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정책전달자 등 심층인터뷰

가. 조사배경 및 방법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하고 있음. 이에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자,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자 및 연구자로부터 현재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1인가구 대상 사회관계망 형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여성가족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관계자 및 1인가구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 주요 질의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하였으며 주로 현재 1인가구 정책 현황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 한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관계자에게는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현황 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문의함

| 표 2-7 | 1인가구 정책전달자 및 연구자, 서비스 제공자 등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주요질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센터장	2022.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접하는 1인가구 특성 및 현황 • 1인가구 정책 효능감과 설계 • 1인가구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시 애로점 혹은 문제사항 등
혼족의 제왕/데일리팝 대표	2022.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접하는 1인가구 특성 및 현황 •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및 아이템 • 1인가구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시 애로점 혹은 문제사항 등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책임연구원	2022.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1인가구 특성 및 현황 • 1인가구 정책 효능감과 설계 • 1인가구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시 애로점 혹은 문제사항 • 1인가구 정책 방행 조언
사단법인 신나는조합 기반조성팀 과장	2022.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관련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사례 여부 •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진행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인가구 대상 사업 아이템 •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확장 가능성 및 정책 설계 방향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장	2022.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안전지원팀 주요 사업(안심홈세트, 안전도어지킴이 등) •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정책 집행 개요 • 여성가족부의 1인가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제언
용산구가족센터 가족사업1팀 팀장 및 사업담당자 2인	2022.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 가족센터 1인가구 사업 현황(여성가족부, 서울시 각 1인가구 사업 추진 개요 및 사업 비교 등) • 1인가구 대상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와 보완사항

나. 주요 내용

□ 1인가구 특성

- 응답자들은 1인가구에 대해 대체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고 답변함. 전국적으로 도농간 1인가구 세대 분포에서 차이를 보임
 - 서울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자가·전세·월세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비혼 및 미혼, 사별과 이혼 등 1인가구 구성 원인 형태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해 유형화가 어려움
 - 강남구의 경우 2030 세대 청년 계층의 비율이 높았음. 정주 기간 3년 이내, 서비스업 종사, 300만 원 미만 월급여, 초대줄 이상 학력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가 낮고, 지역사회 소속감이 적었음
- 1인가구 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지 않음.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함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혼자 거주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1인가구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음

○ 일자리, 가사 및 생활 등이 1인가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일자리는 곧 소득으로 연결되기에 1인가구에게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통해 일터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하루 중 한끼 식사를 할 수 있게도 함. 일자리가 없는 경우 자발적 동기 부여가 어려워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 1인가구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요리 및 집안일 등의 가사 관련된 부분은 1인가구들이 대체로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
- 소용량·소포장에 대한 필요가 강하지만 정작 소포장된 제품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사업 진행시 애로점

○ 청년 1인가구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1인가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한편, 중장년층은 홍보 전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의 경우 현재 22개(2022년 말까지 24개)의 1인가구 지원센터가 운영(개설)되고 있는데 1인가구 관련해 업무의 일정 부분이 가족센터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음

- 1인가구 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관련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관계는 단기간 성과를 표면화할 수 없는 부분임
- 취약 1인가구 발굴은 주민센터 등 행정이 결합하여야 함

○ 1인가구들이 혼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 1인가구 발굴 및 관련 사업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 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참여율이 특히 저조함.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위험군이면서 발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희망 정책 및 사업

○ 각 가족센터 및 1인가구 지원센터 단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력(비용, 인력 등)이 한정되어 있어 중앙 및 광역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면 함

○ 가족센터의 경우 기존 업무와 더불어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기에 인력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식자재 및 생활용품 등 1인가구를 위한 소용량·소포장에 대해 정책적 인센티브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희망
- 일반 1인 가구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효능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제안.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1인가구 정책과 사업이 구성될 때가 많은데 이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옴. 신나는조합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여성인력개발과 담당) 보조사업자임
 - 여성가족부의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예산은 약 3~4천만원으로 기업별 지원 금액은 5백만원 미만임. 주로 팸플렛, 로고 제작 등에 사용됨
 -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들어오는 기업 대부분은 여성가족부와 협력 사업을 기대함

-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의 60%는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지정된 159개 기업 중 1인가구 대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예시로는 ▲여성 주택 수리업(㈜왕왕), ▲여성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더패밀리랩), ▲병원 동행서비스(㈜이웃하다) 등임

* 2022년 기준 총 159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3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사업개발비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을 제공 중으로, 공모전 입상 기업 중 1인가구 대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예시로는 ▲다양성 영화 플랫폼(퍼플레이 컴퍼니), ▲스마트 AI 도어 워치 제공(마이오티) 등임

-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1인가구 대상 사업은 주로 주거(청년 대상 주거안정), 돌봄(고령자 돌봄서비스), 사회적 관계망(커뮤니티 사업)에서 확장할 수 있다고 보며, 1인가구를 사업 타겟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드물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예: 외로움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거주지 보안 강화 등)가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

켜줄 수 있을 것임

- 최근 커뮤니티 구축, 교육·컨설팅 등 일종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연관된 활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필요 물품 구매 시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보는 수준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함. 긴밀한 연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교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인지하고 있으나 협업한 사례는 없음

□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제언

- 1인가구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 관련한 대정부 홍보 활동
 - 사업별 홍보보다 1인가구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
- 사업 수행 우선 대상자 선정: 보호종료아동 대상 전국 단위 프로그램 등
-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전담 상담사, 헬퍼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추진

제5절 주요 영역 도출

□ 1인가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침

- 국가 통계를 이용해 1인가구 전체 현황 및 젠더·지역별 현황을 파악함. 선행연구를 통해 1인가구 증가의 인구·사회·산업적 원인과 영향, 젠더와 세대, 지역별 차이, 1인가구가 직면한 어려움 및 예상 위기를 인지함. 해외 주요 선진국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수집해 주요 이슈 및 대응을 확인하고 1인가구 관련 국내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확인하여 동향을 파악
- 당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체적 사항을 수집함. 정책집행 및 전달자,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현장 전문가 등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1인가구 현황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 파악, 정책 집행 현황과 애로점 등을 수집함

□ 위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개별 이슈들은 소득·돌봄·주거·안전·사회적 관계·생활의 범주로 좁힐 수 있음

- 전체 1인가구에 관한 주요 이슈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항, 가치 중립적 이슈들을 포괄한 범주임. 세대 및 젠더, 지역별 특이점을 고려하되 1인가구 공통의 이슈를 도출하려 함

| 그림 2-8 | 1인가구 관련 이슈물



□ 1인가구가 직면한 주요 5개 영역¹⁰⁾인 돌봄·주거·생활·사회적 관계망·안전에 대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결합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함

○ 돌봄

- 학술적으로 돌봄에 대해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내리지만, 보편적으로 돌봄은 스스로 삶을 지속할 능력이 없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정지은, 2021). ‘사회적 돌봄’은 가족 내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겪는 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고령 1인가구는 물론 돌봄에 대한 수요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 고령층은 일상적인 돌봄이 필수적이며 청·중장년 1인가구는 예상치 못한 건강 이상, 병간호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야 함.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방법을 인지 혹은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돌봄의 보편적 정의를 따르며 고령·심신미약·와병 및 입원 등 신체 혹은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상적 돌봄, 응급 시의 긴급 돌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서적 돌봄까지 포함함

○ 주거

-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한 가구의 생활을 의미. 넓게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포괄하기도 함.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물리적 조건 중 하나임
- 이 연구에서 주거는 1인가구의 주거지 마련에서부터 주거지 및 주거 형태, 주거 이전 시 관련된 행정사항, 쾌적한 삶을 위한 집수리 등을 포괄함
- 특히 현재 국내 1인가구 주거는 주거비와 면적에서 취약함. 박미선(2021)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중장년 1인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주거비 부담(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고령자층이 가장 높음. 청년층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많은 편임
- 국내외에서 1인가구 및 취약층의 주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10) 일자리 및 소득은 1인가구 삶과 사회적 관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이 존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및 조직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 범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진행

| 표 2-8 |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단위: %, 천가구)

구분	전국 일반가구	1인가구			
		전국	청년	중장년	고령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6.1	16.3	17.8	15.1	31.3
주거비 과부담 가구	26.7	30.8	31.4	21.1	43.7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5.3	10.6	11.4	12.9	8.5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060	615	251	215	122

자료: 박미선, 2021

○ 안전

- 이 연구에서 안전은 1인가구에게 피해가 없고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함. 안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동반가구 인이 없어 응급상황을 혼자 오롯이 담당해야 하는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에 남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온오프라인 침입자 혹은 공격자에 대한 대비(방법),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급작스러운 건강 이상 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포괄함
- 개인의 방법과 더불어 지자체 및 정부의 협력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식, 비공식적 연결망’(최선미, 2009). 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1인가구 당사자의 가족을 포함한 타인,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범위에 포괄함
- 많은 1인가구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함.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직접 혹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1인가구 심리지원과 사회적 관계 강화를 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 해외 주요국의 경우 1인가구를 특정하기보다는 ‘외로움 차관’(영), ‘고독부 담당상’(일) 등을 두어 캠페인, 기금 모음 등의 활동으로 사회 전체적 분위기에서 고립을 막으려 노력

○ 생활

- 이 연구에서 생활은 청소 빨래 등 가사, 요리와 식사, 집수리, 이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포괄함. 이러한 행위들은 소소하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무척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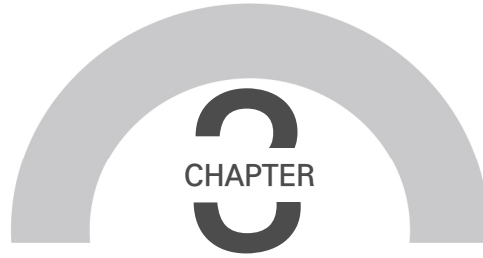
임. 그러나 다인가족 대상으로 구성된 제품 혹은 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거나 원하지 않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생김

- 1인가구에 적합한 혹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및 유인책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5개 영역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제품 및 사회공헌, 사회적경제 영역, 비영리 등)의 활동을 수집하고, 이를 <그림 2-9>의 틀을 기준으로 분석함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체(관 주도,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영역 및 시장 등), 실행기관의 성격(중간지원조직, 민간, 민관협력, 발주에 의한 외부용역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성격(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생활 등), 서비스 대상자(세대 및 젠더, 자산 등)를 주요 축으로 분석
- 현재 관 주도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급적 영역별로 지원 주체별 즉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사회적경제)으로 구분하려 함. 단 영역별 특수성에 따라 정부—민간, 혹은 정부 주도로 서술되기도 함
- 사례별로 세대와 젠더 특수성을 고려하고, 1인가구 정책 소외를 보완하며 사회적경제조직 진입 및 활동 유인 요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핌

| 그림 2-9 | 1인가구 지원 및 서비스 유형 분석틀





주요 영역별 사례 분석



제1절 돌봄	55
제2절 주거	66
제3절 안전	85
제4절 사회적 관계망	94
제5절 생활	103

3 CHAPTER

주요 영역별 사례 분석

제1절 돌봄

- 저출생, 고령화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의 자격과 특성,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전달)과 재원조달 체계, 서비스 제공인력 및 품질관리의 방식 등을 다루는 정책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적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율과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 돌봄,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긴급 돌봄, 문제 예방이나 미래 투자적 관점에서의 예방 및 역량 강화 등 돌봄의 수준에 대한 논의도 보다 세분되고 있음
- 돌봄서비스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양한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 외 부처별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정부는 청년, 1인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때 양질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려 함
- 국내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체사업 또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일상적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사회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돌봄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와 수혜자가 상호의 존하는 방향으로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의 돌봄 문화 만들기,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지자체, 복지기관 등 포함)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유럽, 미국의 경우 1인가구 돌봄 정책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전 등과 연계하여 정책이 계획·수행되고 있음. 일찍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지역통합돌봄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임
-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고령 1인가구 케어 서비스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임

1. 국내 돌봄 정책

가. 고령 1인가구 정책

- 1인가구 특성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음. 1인가구 돌봄 정책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고령 돌봄 정책은 주로 65세 이상의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돌봄 종합서비스를 들 수 있음
- 현행 고령 1인가구 돌봄정책은 고령자돌봄종합서비스와 고령자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계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하고, 기능 제한이 없는 다수의 고령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일상적 돌봄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돌봄은 장기요양돌봄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 정서적 돌봄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며, 기능 제한이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1인가구는 일상돌봄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 돌봄 정책의 틀에서는 이러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최근 정부는 고령 1인가구에게 제4차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을 활용해 안전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려 함(김혜란, 2018)
- 기업의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외로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하거나 동작,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것임
-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첫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현재(2022년 9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대구와 남원시 등 전국 30여 개 시군구에서 지역 내 고령자 돌봄과 고독사 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과 협력하고 있음. 클로바 케어콜은 현재 공공부문 사회복지·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이 확산 중으로, 외롭거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대한 자주 접촉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제한된 인력 및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 고령 1인가구를 비롯해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가운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 약 7천명에게 AI 안부 전화가 주 1~3회 정기적으로 가고 있음. 주로 식사·수면·외출·운동에 대해 묻는데 AI 상담전화에서 위기 신호나 도움 요청이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통화나 방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AI 복지사'를 도입할 계획임. 정부는 복지 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 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32억원의 예산을 배정함

표 3-1 | 1인가구 수혜가능한 중앙정부 건강·돌봄 지원 정책(일부)

정책	주요내용
고령자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
독거고령자 보호사업	• 고령자돌봄기본서비스(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독거고령자 사랑 잇기 서비스(민간자원봉사자 연계 통해 안부확인 등), 무연고 독거고령자 장례지원서비스(무연고 독거고령자의 상주 또는 연고자로 최소한의 의례지원) 등 제공
고령자장기요양 보험제도	• 고령이나 고령자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제공

출처: 이수인 외(2020)에서 재인용

나. 중장년 1인가구 정책

-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장년층은 생애주기 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건강상의 문제와 생계 문제가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긴급돌봄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적재적소에 안내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함
- 특히 중장년은 비자발적인 남성 1인가구가 많고 일자리와 주거가 열악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식생활 등이 나빠진 경우가 많아 돌봄 지원이 적절히 연계되어야 함(김성아 외, 2022)

- 청년, 중장년층은 일상의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돌봄 프로그램 설계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에서 최근 정부는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예: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를 개발·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함. 이때 양질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서울시는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약국 동행 등)

표 3-2 | 정부 및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도입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재원 조달	서비스 제공자	사업내용
2022	서울 금천구, 강동구, 종북 영등군, 전남 해남군	AI돌봄로봇 '다솜아-K'	고령층	지자체	지자체-원더풀플랫폼(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1인가구 대상 반려돌봄로봇 지원 돌봄로봇은 고령자와의 말벗, 가족이나 생활보호사와 영상통화, 복약이나 식사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전달함
2022	서울	AI 활용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시범사업)	중장년	지자체	지자체-네이버 클로바케어콜(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 강서, 노원 동작, 성동 등 중장년 1인가구 300명 대상 서비스 제공 주 2회 통화 진행, 지자체 공무원의 모니터링
2022	대구	AI 자동안부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중장년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취약 1인가구 대상 주 1~2회 안부 전화 식사, 수면, 외출, 복약 등 안부 확인
2021	부산 해운대	1인가구 고독사 예방-AI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고령층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을 챙기는 말벗 친구 서비스
2021	제주도 서귀포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중장년	지자체	지자체-SKT(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의 전력 사용 패턴에 이상이 감지되면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안내
2021	서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누구나	지자체	서울시-비지팅엔젤스 코리아(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대 1인가구 대상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 서비스 제공(이용료 시간당 5,000원)
2021	충남 천안	저소득 1인가구 급식지원(밀키트) 사업	저소득층	지자체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1인가구에 주 2회 밀키트 배송
2019	인천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지능형 안심폰 지원	고령층	지자체	인천시-아바드(주)(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고령 1인가구 대상 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영상통화 및 안심폰으로 동작 감지 등을 이용한 실시간 움직임 파악, 말벗 서비스 등 제공

2. 국내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 돌봄 프로그램

가. 직접사업 및 정부·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체사업 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자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고령층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병원 동행 서비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며, 민관 협업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일상생활 지원(사회적 관계망 형성 포함)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주)케어잇다(예비사회적기업), (주)안녕(사회적기업)은 고령 1인가구 대상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주)이웃하다(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는 병원 동행 서비스 외 행정업무동행, 산책, 말벗, 5분 안부(비대면) 등 8가지 서비스를 제공함
-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의 기술·자원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은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 구축

- 최근 돌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여가, 종교 및 사교 활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과 고려된 접근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하는 지역사회기반(communitry-based)의 돌봄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추진단과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 대상의 사업이 일부 진행 중임. 예를 들어 부천시는 독거고령자 공동주거 ‘커뮤니티홈’을 조성하여 고령자 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도 서귀포시는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사람과 노동, 공동체성,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조직에 배태된 사회적 속성을 최대한 활용함(Zamagni & Zamagni, 2009/2013). 그래서 돌봄과 관련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사각지대, 서비스 품질, 열악한 일자리, 사회적 분리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협은 최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음

〈사례〉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시소통협력센터는 제주지역의 새로운 돌봄 서비스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2021년 ‘돌봄의 재구성’이라는 돌봄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함
 -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500개이며 그중 사회복지, 교육, 간병가사지원, 청소, 방역, 보건, 문화예술 분야는 40% 이상으로 추정돼 기존의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외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개발의 잠재력이 높다고 여겨짐
- 제주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 포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협, 사회적협동조합)과 최근 2년 이내(2019~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조직을 대상으로 돌봄 사업 조사(최대 500만원 지원) 및 사업화 모델제안(1,000만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연결된 협력의 관계망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을 모색함
 - 도시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참가자(1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를 모집해 시장가격 보다 40~70% 저렴하게 반찬 제공함

표 3-3 | 제주 먹거리 돌봄 구상안

사업모델	반찬 공급 사업
주요내용	-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시중 가격의 60~70% 선에서 반찬 공급 -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밥상살림’과 농산물 원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육가공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한 정육 원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참여자의 시간, 노동의 참여를 통한 생산단가를 낮출 가능성 존재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2021)

- 생협은 교육, 자원봉사, 상조회 활동 등 일상적인 상호원조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복지 활동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내 1인가구와 생협 돌봄을 연결할 수 있는 활동 탐색이 필요함
 - (두레·한살림·아이쿱·행복중심) 지역 복지문제 해소를 위한 기금조성(15.1억원)
 - (대학생협)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연 12회 이상 식자재 꾸러미를 전달하는 ‘콩세알 프로젝트’ 진행 중(2018년~)
 - * 7개 대학생협, 28명(2018) → 30개 대학생협, 131명(2019) → 33개 대학생협, 163명(2020)

- (아이쿱) 사회공헌 플랫폼을 마련, 다양한 사회적 지원 사업을 추진

* 코로나19 긴급지원, 생태계 조성, 수해복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직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에서만 의료영업 행위가 가능하고 다른 비영리조직보다 엄격한 설립 조건이 요구돼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돌봄 의제 발굴에 적합함. 활동 지역의 제한은 소속된 지역사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동체의 성격을 강화하며, 조직 설립의 높은 기준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연대에 기반한 응집력을 강화하도록 함(남춘호·김정석, 2022)

○ 서울 성북구의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2018~2021)에 참여해 고령 1인가구가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고령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서적 지원과 건강 간식(두유, 죽, 계란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함

○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산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강반장 학교를 수료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마을 어르신 2~4명을 지속해서 돌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1인가구와 정서적인 연계를 맺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돌봄 관계망이 구축될 경우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1인가구가 일방적인 돌봄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주체자로 참여해 정서적 돌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다.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 민간 영리기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진행 중임

○ 한국야쿠르트: 고령 1인가구 대상 매일 유제품 전달로 건강과 안전 점검

○ 라이나생명: 고령 1인가구와 상담사를 1대1로 연결,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랑있는 전화' 사업 진행중

○ SKT-한국전력: 통신과 전력 데이터로 1인가구의 상태를 분석, 이상이 예측되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진행중

| 표 3-4 |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 돌봄 프로그램

도입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자원 조달	서비스 제공자	사업내용
2021	서울 동작	도시락 나눔	중장년	한화 시스템	협동조합 집밥셰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에 식사와 안부를 전하는 사업으로 한달 동안 진행. • 도시락 제작부터 배송은 협동조합이 담당, 한화시스템에서 사회공헌 차원의 지원
2020	강원 춘천	우리마을119	고령층	지자체	춘천시-사회적협동조합 별빛(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가 추진한 소셜 리빙랩 프로젝트로 형광등 갈기, 수도물 동파 방지 등 고령가구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서비스를 제공함
2019	전국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고령층	SKT	SKT-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소속 지자체 중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시스피커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운영 • 독거고령자 등에 인공지능스피커(‘누구’)를 통해 말벗 등 정서활동을 지원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2019	강원 원주	주인을 돌보는 건강반장	고령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복지재단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복지재단 지원을 받아 건강반장 학교를 수료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마을 어르신 2~4명을 지속해서 돌보는 활동
2018	서울 마포	더-이음 프로젝트	중장년	지자체-마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가구를 서로 잇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 • 협동조합의 케어매니저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 방문해 영양상태나 거주상태 점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2018	서울 성북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고령층	지자체	성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을 돕는 돌봄리더 육성 및 건강 간식 제공
-	전국	고령자 참여나눔터	고령층	한국헬프에이지	한국헬프에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독거고령자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소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배경에서 고령자 스스로가 중심이 된 자치공동체 운영 •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

3. 해외 돌봄 정책 및 민간 돌봄 프로그램

가. 유럽 및 미국 사례

- 유럽의 경우 1인가구의 돌봄 정책이 단독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닌, 사회자본, 주거, 안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1인가구 대상 돌봄 정책이 계획·수행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간병 혹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를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대상 가정도우미제도와 고령자연대수당(solidarity grant for elderly people)을 제공함
- 1인가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주거시설 내 돌봄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돌봄 정책을 연계함
- 돌봄 정책은 간병, 간호지원, 가정도우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가구 증가가 정책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임. 2000년부터 돌봄가족지원법(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한편 요양시설이나 돌봄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사회서비스(주간 돌봄, 가정 내 돌봄, 병원 진료, 식사지원, 가정 내 간호돌봄, 영양상담 등을 포함)를 담은 노인 통합진료연계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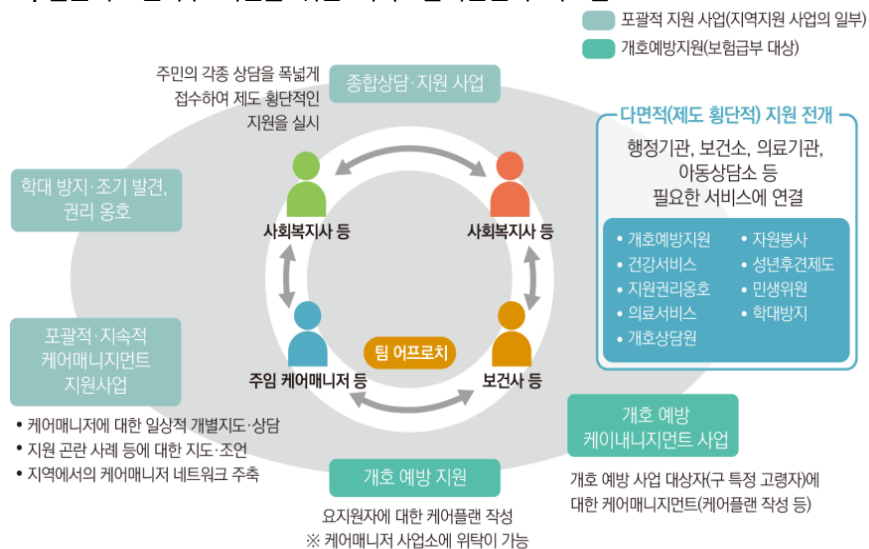
나. 일본 사례

- 일본은 일찍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어 고령층 대상의 통합돌봄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임. 통합돌봄은 고령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등의 연계를 통한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
- 통합돌봄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은 1) 지역 단위의 전담 기관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및 고령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생활권 단위에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며, 2) 공식화된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관련 기관의 연계와 조정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호·의료·요양의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해 주며, 생활 지원·복지 분야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3) 지역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 단위의 1인가구와 고령자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는 것임

- 일본의 돌봄정책은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 학대 방지), 개호(간병) 예방 매니지먼트(경증·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 지원 등이 진행 중임
-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고령 1인가구 대상의 케어서비스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파나소닉 등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고령 1인가구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음. 파나소닉은 고령 1인가구 집에 사람의 동작과 호흡을 전파로 파악하는 소형센서와 인체감지센서를 설치, 에어컨 온도 센서와 결합해 실내 환경이나 고령자들의 수면 패턴 등을 조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역을 순회하는 간호직원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고 있음

| 그림 3-1 | 일본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4. 소결

- 현재 돌봄 정책은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돌봄 정책은 생애주기별 생활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2020년 가족실태조사(김영란 외, 2021)>에 의하면 1인가구 지원 정책 1순위로 주택 안정 지원(50.1%), 돌봄 서비스 지원(13.4%), 건강 증진 지원(9.7%), 가사 서비스 지원(7.0%), 심리정서적 지원(6.0%)의 순으로 선호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지원’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안정 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최근 오픈서베이에서 진행한 <1인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정부, 기업이 1인가구 대상 정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이용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0.7%)
- 1인가구 돌봄 지원은 공식돌봄지원부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 돌봄까지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적 돌봄체계에서는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지역에 기반한 돌봄공동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돌봄 정책은 단기사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예컨대 돌봄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망은 주거 환경과 연관 있으며, 주거는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과제를 개선하는 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함

제2절 > 주거

-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저성장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신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연령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 고령층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1인가구 전반적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도 높게 나와 주거여건이 열악한 편임(박미선·우지윤, 2021)
 - 1인가구 점유 형태를 보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월세로 가장 많았고, 자가 34.3%, 전세 17.5% 순임(통계청, 2021). 청년 1인가구의 54.6%, 중장년의 39.5%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층은 자가 거주비율은 월등하나 20.8%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박미선·우지윤, 2021)
- 1인가구들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음
 - 경기도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 안정(4.17점) 정책이 1위로 나타남(황경란 외, 2021)
- 최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소단위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거 수요의 변화에 맞춰 민간주도 주택협동조합이 1인가구 주거 공급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민간 자본이 주도할 경우 영리추구 목적으로 임대료가 높고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영리·임대형 주택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 주택공급 모델의 경우 거주 및 주거관리 비용이 시세 대비 낮으며,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함. 또한 안정된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여러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형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협동조합 2만300여개 중 주택협동조합은 0.74%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협동조합이 많음. 주거 분야에서는 높은 주택 구매가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의 경우,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다양한 공급 모델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나, 최근에는 주거 수리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늘고 있음

- 이에 주거 분야는 1) 경제적이고 안전한 주거 제공 및 주거비 지원 2) 주거 구매 및 계약 지원 3) 공동체 주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주거관리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공공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례를 분석함

2. 경제적이고 안전한 주거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주거를 구매 혹은 임차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 1인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를 제공해 주택의 임차를 지원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1인가구 대상으로 주택을 제공·임차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들은 1인가구 주거와 관련해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최근에는 1인가구들의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 등 지원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인가구 주거 정책사업을 관내외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 간 사회적 관계망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음

가. 중앙정부 1인가구 주거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직업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미래 소득 창출이 불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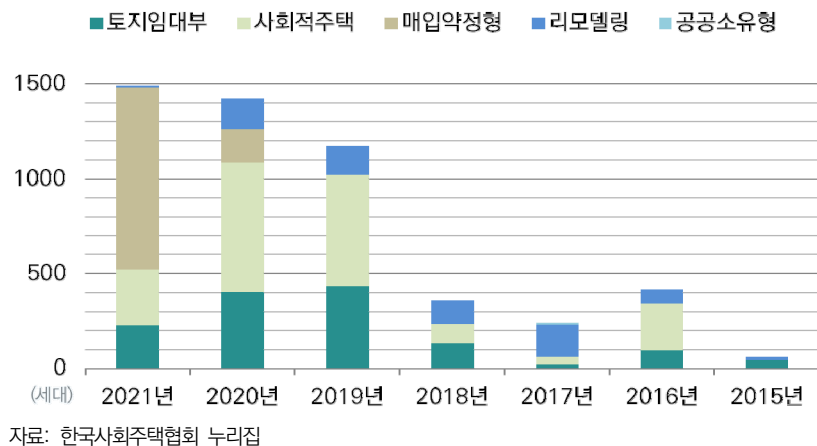
실한 청년들은 주거비 지원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런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 지원하는 청년 대상 1인가구 주택 형태는 정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택을 직접 건설, 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임대료도 주택형태나 입주인의 자산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세 대비 50~80% 수준이며, 대부분 거주기간 2년 재계약 2회 최대 6년 임대 가능

| 표 3-5 | 사회주택 공급방식 및 주택소유별 형태

공급방식	리모델링형	신축형	비주택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회적주택
주택소유	공공소유	민간소유	사회적경제주체 소유	리츠형
	단순운영위탁(사회적주택), 건설매입위탁(매입약정형), 공공매입형, 리모델링(고시원)	보조금지원형, 리모델링(고시원, 빈집 등)	공공소유 토지를 임대 받아 주택건설(토지임대부), 주택 매입 혹은 건설 (공동체주택,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시행하고 운영, 위탁 수행

| 그림 3-2 | 사회주택 연도별, 유형별 공급세대 현황



- 공공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력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인 사회주택이 있음. 단순 거주지 제공 외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포함. 부담가능한 임대료(시세 80%), 안정적 주거기간(최대 10년)을 제공함

- 사회주택의 역할은 쾌적한 주택 공급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맺기를 통한 커뮤니티 회복을 포함하며,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임
- 사회주택 공급 현황은 2018년 이후 매년 공급이 증가하여 2021년 10월 기준, 전국 4,394호 (서울 3,332, 경기 883, 인천 66 전주 73, 부산 40)임(한국사회주택협회, 2020)

나.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 서울시

- 서울시는 공공재정 투입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완으로, 시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저렴하면서도 주거 안정성을 높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함
- 2015년 사회주택지원조례 제정하고, 2016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시행. 청년, 장애인, 고령자, 1~2인 가구 등 주거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함

| 표 3-6 |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조례

(정의)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지원)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택지제공, 관리위탁,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보조 등
(유형)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 빈집살리기 등 412건 사회주택 공급

자료: 국토연구원, 2018

□ 서울시 공동체주택

-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 내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로 해결,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지칭함
-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및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불안 및 육아 등 문제를 입주자들이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임
- 2014년 10월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을 수립, 이후 공동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표 3-7 |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상 공동체주택의 유형

구분		내용
자가소유형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
임대형 공동주택	공공임대형	공공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
	민관협력임대형	사업주체가 공공으로부터 토지, 건물임차 등 지원을 받아 건설, 리모델링 후 임대
	민간임대형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

자료: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희망 하우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 및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임
- 무주택자로 서울시 소재 중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 입주자격 유지하면 2회 한해 재계약, 6년까지 거주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함.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된 형태
-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지원금액은 청년은 4천 5백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이며, 민간임대입주자만 지원 가능함
-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며 지원 금리는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임. 청년의 경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이며,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 지원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한해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함. 월세 지원은 최대 10개월, 2백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주거비 지원과 임차보증금은 중복이 불가하며, 청년 월세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함

| 표 3-8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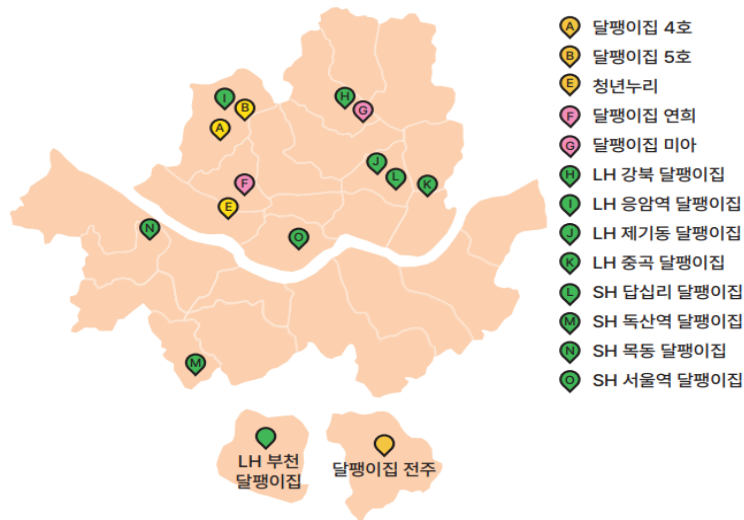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시 공동체 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정의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도심 내 주거지를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히 임대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 내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운영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사회진흥재단	민간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주거급여수급자와 만64세 이상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예정인 만 19세~39세 대학생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 △만19세~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토지임대부, 민간임대형, 자가소유 등 주택형태에 따라 다름	만19세~39세 청년청년,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서울시에 소재 중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소득, 자산, 자동차 유무 기준 충족
임대조건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무주택자, 소득과 총자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청년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공동거주(세여형) 여부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서 최소 8천 5백만원 ~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수준	입주자격은 토지임대부, 자가소유형은 무주택자이며 민간임대형은 제한없음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지원금액은 청년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휴학 등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실 시 위약금 없음 보증금 100만원/ 월세 6만원~14만원 (기숙사, 다가구, 그룹형)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청년에게는 시중 임대시세의 72%, 대학생은 임대시세의 68% 수준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수준이며,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50% 제공			시세 95% 이하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30%,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은 시세대비 85%, 일반공급은 95% 수준	
거주기간	최대 6년으로,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임	기본 2년이며 재계약 2회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함	좌 동	좌 동	토지임대부는 최장 40년, 나머지는 제한없음	기본 2년이며 재계약 2회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함	좌 동

다. 사회적경제와 1인가구 주거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2014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으로, 비영리주거모델 ‘달팽이집’을 공급·운영하고 있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며 청년 조합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 커뮤니티를 구성함. 조합원들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1년 12월 기준 조합원 수는 552명, 출자금은 1억 4,950만 원임. 2022년 2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 달팽이집을 운영 중이며, 부천과 전주 2개소를 제외하고 11개소는 서울에 위치함

| 그림 3-3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택공급 현황(2022년 2월 현재)



자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표 3-9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연도별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조합원수	92	125	205	243	281	334	442	552
출자금	69,450	77,550	97,250	101,200	111,080	121,640	147,900	149,500

자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주택공급 유형은 자체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운영위탁, 공공위탁, 공공협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적주택: LH 혹은 SH가 소유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민달팽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위탁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동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21년 6월, SH사회적주택 사업에 선정돼, SH독산역 달팽이집 2개동 66세대를 시세대비 50% 임대료로 운영 중임
 - 테마형 매입임대: 민간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매입약정을 맺고 운영테마를 갖고 제공하는 주택 형태. 민달팽이협동조합은 기획, 설계, 건설, 운영을 맡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 과정을 감독 지원함. 2021년 12월, LH테마형 주택에 조건부 선정되어, 신촌 일대에 비전형 연구 노동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에 참여해 '연구자의 집'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공이 소유한 빈집부지를 활용해, 민달팽이협동조합이 건설 및 운영을 맡는 공공협업 형태의 주택임. 올해 위탁해 운영 중인 '달팽이집 정릉'은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적 접근으로 주택 제공과 커뮤니티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자치구 민관협력 주택: 공공위탁 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 '청년누리'를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2021년 6월 재위탁, 2024년 5월까지 운영 예정임
 - 조합원 수요 맞춤형 주택: 공동체주택 TF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체공급형 모델로, 장기 거주 가능한 공동체 주택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초기 조합원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 모델임. 시행사와 필요금액 및 지역 및 주거공간 수요를 확인하고 있음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주택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소모임 혹은 세미나 등 커뮤니티 활동을 구성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월 2회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2021년 192명 대상 총 24회 교육)하고 입주자 및 입주 대의원을 대상으로 평등문화교육, 심화교육, 협동조합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함
 - 조합원 소모임: 조합원을 중심으로 인당 4,000원을 월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6개 모임을 공모하여 선정 지원함

- 자치회 및 반사회 지원: 달팽이집에 거주하는 자치회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 간 회의를 운영해, 달팽이집 자치 운영을 위한 사무국-입주자 경험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함
- 그린달팽이 TF: 청년 주거권과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 격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달팽이집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음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공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 및 회원 대상으로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노동 영역의 '유니온센터', 마음상담을 위한 '쫄아본언니들', 경제 영역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비롯해 성평등문화교육을 위해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양해각서를 맺고 프로그램 운영함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갈등관리 규정

○ 평등문화를 위한 노력

- 나이, 성적 지향, 종교, 지역, 생활력 등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함
- 동의 없는 반말, 성적 대상화, 무시, 각종 혐오발언 등을 지양함

○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갈등 담당자 2인(여1, 남1)을 지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함
-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 담당자와 각기 또는 함께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함
- 갈등 담당자는 심판하는 태도가 아닌 공감하고 중재하려는 태도로 임함
- 당사자 공히 동의할 경우, 입주조합원 전체가 사안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서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필요시 조합 사무국과 협조함

※ (의무) 갈등 당사자들은 갈등 담당자와 조합의 해결 노력에 적극 협조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자치회 운영 규정

○ 건물관리와 친목도모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임시로 여는 모임이며,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최상위 기구로서 입주조합원에게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 운영주기: 두 달에 한 번 정기 자치회, 필요할 경우 임시 자치회 개최
- 운영장소: 운영자(호스트)에 따라 유동적(거실, 옥상, 식당, 카페 등)
- 운영자: 세대별 운영(진행자와 기록자 필요)
- 내용: 근황 나눔, 공유안전, 논의안전, 결정안전, 역할분장
- 권한: 모든 입주조합원은 자치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에 관련된 안전을 제시·논의·결정하는 권한이 있음
- 의무

부득이 자치회에 불참할 경우엔, 사전에 제시된 안전과 정리된 회의록을 숙지하고 의견을 밝혀야 한다.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자치회에 3회 연속 불참(6개월 상당)하지 않는다.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자치회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엔, 다음 자치회 전까지 갈등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갈등담당자와의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조합 사무국에 조정을 요청하며, 입주계약서 제6조(중도퇴거)의 6, “본 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정한 규율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터무늬있는집

- 터무늬있는집은 시민과 청년이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주거 사회 혁신 실험을 표방하며 설립됨. 시혜적 공공지원 방식이 아닌 시민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연대형 주거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시민출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
- 시민출자기금 관리 및 주택운영 등 터무늬있는집 사업은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터무늬제작소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함. 시민출자기금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6명(곳)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 8억 2,590만 원의 출자금이 모금됨

| 그림 3-4 | 터무늬있는집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자료: 터무늬있는집

- 터무늬있는집은 시민출자금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입주 대상은 소득 혹은 연령, 신분 등의 제한 없이 공동주거에 관심이 있으며, 지역사회 정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주택형태도 공급자가 선택해서 제공하는 일방적 방식이 아닌 주거하는 청년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입주자들의 자부담은 보증금은 없으며, 사용료는 주택 보증금의 2% 선에서 공동 입주하는 청년들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약 50% 수준임

- 이 밖에도 입주 청년들과 시민출자자 간의 재능을 공유하는 ‘터무늬 타임뱅크’를 운영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을 확대하는 접점을 제공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모델 외에 공공과 협업을 통해 주택공급하는 공공협업형 모델을 확장하고 있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하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9개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하는 ‘LH사회적주택’(1개소)임

| 표 3-10 | 터무늬있는집 민간전세형 및 공공협업형 유형별 특징

주택유형	민간전세형		공공협업형	
	순수민간형	공공민간혼합형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LH사회적주택
주택계약	임대인-사회투자지원재단 (법인계약)	임대인-청년단체 (입주자별 계약) (공적대출과 시민출자금 매칭)	SH-청년단체 (입주자별 계약)	1차: LH-사회투자지원재단 2차: 재단-입주청년
사용협약	사회투자지원재단-청년단체 (법인 또는 대표자)	사회투자지원재단-청년단체 (법인 또는 대표자)	사회투자지원재단-청년단체 (법인 또는 대표자)	1차: 사회투자지원재단-운영청년단체 2차: 운영청년단체-입주청년
입주자 선발권	청년단체	청년단체	1차: 함께살이 청년학교 (SH와 터무늬제작소 공동) 2차: 심사위원회 (SH 주관, 터무늬제작소 및 외부심사위원)	1차: LH 소득심사 2차: 운영청년단체
공급호수	3호 (2개 주택 계약종료)	2호	6호	1호
입주단체 (입주자)	3개(10명)	2개(6명)	9개(32명)	1개 (26명 개별입주)
장단점	장점: 청년단체 자율성 높음 단점: 시민출자금 소요액 큼	장점: 청년단체 자율성 높음, 시민출자금 소요액 적음 단점: 공적대출 기준에 맞는 주택 찾기의 어려움	장점: 시민출자금 소요액 적음, 주택의 퀄리티 높음 단점: 입지선정 자율성 없음, 입주단체 선정의 경직성	장점: 많은 청년에게 적절한 비용의 주택제공 기능 단점: 입주자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율 낮음

자료: 터무늬있는집

터무늬있는집-SH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

- 배경: 2015년 시작해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함
- 사업개시일 및 입주단체 수: 2020년 입주 시작. 2021년말까지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총 10호의 주택에 13개 청년단체 입주(2020년 6호, 9개 단체 입주)
- 보증금·월사용료 및 임대료: 시민출자기금을 활용해 1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 월사용료 및 임대료 1인당 약10만원(시민출자기금(보증금)의 2%를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사용료로 납부
- 공급과정:
 - ① SH 빈집뱅크처에서 매입한 부지 중 입주 가능한 후보지 1차 선별
 - ② SH공사와 터무늬제작소가 함께 후보지 탐방, SH공사: 사업성 및 법적 검토, 터무늬제작소: 주거환경 및 지역활동 적합성 등 검토 후 공급지 최종 결정
 - ③ 각 대상 주택별 시민출자 보증금 지원 규모와 임대료 등 조건 확정 후, 모집공고
 - ④ 입주단체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입주단체를 선정
 - ⑤ 주택별 여건에 맞는 스케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진행
 - ⑥ 터무늬있는집 시민출자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 청년단체 입주
 - ⑦ 입주 이후 청년단체는 터무늬있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다른 지역의 입주단체와 끈끈한 연결망을 형성해 다양한 지역활동 전개
- 함께살이 청년학교 운영: 2020년부터 시작. 입주 과정을 통해 사업 주체(터무늬제작소와 SH공사)와 입주희망 단체간의 스킨십 및 상호이해도를 높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청년단체를 제대로 선발하는 것과 입주 과정 전반을 통해 입주희망 단체의 지역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강의 2회차와 워크숍 2회차, 그리고 답사 2회차 등 총 6회차로 이루어지는 기본 과정과 최종 입주단체 선발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워크숍 1회차로 진행, 기존 입주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제'도 함께 제공
 - 입주자를 개인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로 선발하고, 개인의 소득이나 취약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지역 활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터무늬있는집에서 활동하는 13개 청년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 명상 단체는 지역 활동가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주거운동 단체는 지역의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주택을 매개로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운동을 함께 추진함

□ 서울시 금천구 보린주택

-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주택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설립. 2014년 11월 독산동 1호 보린주택을 시작으로 금천구 14년 9월 4호, 15년 8월 3호를 포함해 금천구 내 4호 공급함
- 한국사회투자(기금)에서 용자를 받아 사회적기업이 기획·설계 및 시공을 담당. 노인입주자

특성에 맞는 집을 건축함.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를 매입하면 금천구에서 홀몸 어르신 입주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임

- 낮은 층수의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욕실 낙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 방지가 되는 타일을 사용함. 안전손잡이와 시각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노인친화 설계로 주택을 시공함
- 입주 대상은 금천구 거주 고령자 중 지하·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계약은 2년마다 최대 9회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이 주택을 기획·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공공기업이 이를 매입.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식임.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으로 진행된 공동체 주택이라 할 수 있음. 지역 내 고령 1인가구의 주거 필요를 잘 이해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민간기업의 유연하고 창의적 기획이 잘 어우러진 프로젝트로 평가됨

□ 비비사회적협동조합

- 2003년 전주여성의전화 소모임 ‘비혼들의비행’에서 시작해, 2010년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 개소하고 2016년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을 설립함
-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주거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체주택 공급과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 1인가구 주거 상담 활동을 하고 있음
 - 조합원과 주거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공동체 운영자 교육 및 입주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공동체 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 주거권 확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022년 전주시 사회주택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2022년 전주시 ‘성평등전주 생활연구 지원사업’으로 중장년·고령 여성 1인가구 주거공동체 연구를 진행함
- 2017년 ‘비혼여성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해 지역사회 여성 1인가구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가구를 위한 주거상담 매뉴얼 및 상담 사례집 발간, 1인가구 네트워크를 운영해 필요자원을 공유함. 1인가구 모임을 발굴하고 연대하기 위한 ‘여성1인가구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생활요가, 비혼여성 부모돌봄 자조모임 등 6~8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2. 주거 계약 및 이사 서비스 지원

- 1인가구는 학업, 일자리 등 일신상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외의 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잦은 주거 이동과 주거 계약이 발생함.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잦은 주거 이동에 따른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 중임

□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서울시는 거주 혹은 거주예정 1인가구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
- 관내 5개 자치구(성북·성동·광진·관악·서대문·송파 및 중구)에서 제공 중이며 점차 확대 예정
- 주거안심매니저를 배치하여 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주거안심동행 ▲현장방문 집보기 ▲계약서 작성 시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반값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 서울시 성동·광진·송파·성북·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1인가구 대상으로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혹은 대학생 등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점차 관내 1인가구 전체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경향임
- 지원서비스는 관내, 지자체와 MOU를 맺은 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보증금+(월세액*100) 임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를 감면하는 혜택 제공함

□ 서울시 이사비 지원서비스

- 서울시는 서울시로 전입 혹은 관내에서 이사하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 해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만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지원되는 이사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되도록 했으며,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도록 함
- 이 밖에도 서울 성동구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1인가구의 차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3. 공동체 주거 교육 및 컨설팅: 더함플러스협동조합

- 주거문제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공동체 주거를 전파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설립한 협동조합임. 이사장 1인과 유급직원 1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그 외 조합원들은 조합 외 직업을 갖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진행함
- 주거 공유 및 공동체 주택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주거 욕구를 가진 수요자 커뮤니티를 발굴·육성함. 강의와 교육을 통해 공동체주택 설립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50대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체주택으로 주거전환에 대한 지원활동 추진 중. 중산층을 위한 노후 주거 대안이 없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소그룹 공동체에 의한 협력적 주거'라는 새로운 노후 주거의 대안을 개발. 40~60 도시 중장년세대의 주거, 관계망을 재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4. 주거관리서비스

- 1인가구의 경우 주택 수리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 주택 관련 생활 수리 및 입주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및 노후주택 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 주택관리 서비스
 -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중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 서비스 내용은 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싱크대 수전, 손잡이, 커튼 설치 등 클린케어

서비스와 홈케어서비스 등임. 서비스 제공 기준은 1인가구당 50만 원 이내로 중위소득 120% 미만은 재료비 포함 전액을 지원, 중위소득 120% 이상은 서비스 비용의 50% 본인이 부담임

- 서울시 내 기초지자체에서도 대상,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주택 관리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사례〉

양천구 1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두드림’

양천구는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음
1인가구 중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수리(형광등 방충망 수리) 혹은 청소(세탁, 화장실, 방) 중 하나를 선택 지원하고 1인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동구 ‘우리동네 맥가이버’ 사업

강동구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을 지역 내 철물점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음
제공 서비스는 형광등 콘센트, 방충망 설치와 실내청소, 정리정돈 등 주거지 청소가 포함되며, 가구당 5만원 이내 소모품(형광 등, 안전고리 등)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철물점 연계 출장 수리 서비스는 연 2회 가능하며, 1회 5만원 한도에서 제공함

서초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리풀뚝딱이’

서초구는 민간 플랫폼 청소서비스 기업 ‘청소연구소’와 MOU를 맺고, 1인가구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만50세 미만 가구에 청소 및 수리서비스 혹은 포장이사(1.5톤 내) 혹은 주택 입주청소 (15평 기준)를 제공하고 있음
청소연구소 어플을 통해 1회 3시간30분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면 해당가구가 집안 내 소규모 수리 및 청소서비스를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연 10만원 한도 내 제공함

5. 해외 사례

□ 싱가포르 캄퐁 애드머럴티(Kampung admiralty)

- 싱가포르는 2020년 고령층 인구가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18년, 시니어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공간으로 ‘캄퐁 애드머럴티(Kampung Admiralty)’ 프로젝트를 시작함
- ‘캄퐁’은 말레이어로 마을(village)이며 ‘애드머럴티’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캄퐁 애드머럴티는 마을과 같은 건물을 의미함. 축구장 2개 정도 크기 공간에 ‘마을 건물’을 세워 시니어 주거용이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싱가포르 주택발전국(HDB)이 건축디자인회사 WOHA가 함께 조성하였으며, 그 외 싱가포르 보건복지부, 환경부, 유아발전청 등 8개 정부기관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함
- 11층으로 구성된 캄풍 애드머럴티는 2층은 푸드코트로, 3~4층은 정형외과, 한의원, 재활의원,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제공하는 병원이, 5층·7층~11층은 104채의 원룸 아파트로 구성됨. 아파트에는 55세 이상 고령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억원 미만 가격에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함. 6~7층은 공중정원과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유치원을 구성해 거주민 간 사회적 관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함
- 고령 세대를 포함, 연령통합 형태의 지역주민 친화적 시니어 주거인 캄풍 애드머럴티는 건축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2018년 세계건축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세계 건축상(World Building of the Year 2018 Award)’을 수상함

□ 영국 런던 OWCH(Older Women's Co-Housing)

- 런던 OWCH은 1998년 시니어 공동주택 연구자인 마리아와 6명 여성이 시작함
-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Housing for Women(H4W)’와 함께 여성주거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H4W와 함께 현재 25세대 중 8세대는 주택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임대
-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때, ‘The Tudor Trust’ 영국의 커뮤니티 그룹을 지원하는 자선단체가 지원함
- 입주자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27개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입주자 사이의 갈등 예방을 위한 ‘상호지원정책’을 두고 있으며, 시설관리, 주거 입주규칙 등을 입주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함
- 현재 25세대 26명이 입주했으며(발기인 6명 중 한 명만 입주함) 12명의 비거주자 회원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스웨덴

- 스웨덴 정부와 시민단체는 1인가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동주택에 관심을 기울임(김형균, 2019)
-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Tech Farm에서 운영하는 K9이 있음. K9은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거주비용은 한 달에 8,000크로나(약 97만 원)로 스웨덴 평균 월세와 비슷하면서 운동 시설 및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동아리가 있어 친밀한 유대관계 및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을 쌓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고령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으로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이 있음. 총 7층으로 43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공유공간인 세탁실, 운동실, 휴식공간,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저녁 식사는 공용 주방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6주에 한 번씩 요리와 청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즐김. 입주민 43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은퇴한 시니어들로 중장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 살고 있음

6. 소결

-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 보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높은 주거비용과 공급 부족으로 주거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소단위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셰어하우스와 공유·공동체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1인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과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 공동체 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이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의 공유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이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하거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이는 입주자 간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여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 입주자 정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관심사와 각기 다른 라이프사이클 등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이들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관심사를 공유하고,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게 중요함

○ 여성가족부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사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양하게 분산화된 1인가구간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주거와 관련해서는 1) 사회주택을 비롯한 공동체 주택의 공유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거나 2) 기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센터 혹은 가족센터가 없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의 공간이 1인가구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3절 ▶ 안전

- 동거 가구원이 없어 응급 및 위험 상황을 오롯이 혼자 맞닥뜨려야 하는 1인가구에게 안전은 삶의 질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임. 개인이 집 안팎을 단속하는 노력과 더불어 거주지역 치안과 지역사회 문화가 결합하여야 함. 따라서 지자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1인가구뿐 아니라 전 가구의 치안과 안전은 지자체 중요 역할이므로, 1인가구 안전 치안 문제는 지자체에게는 당연한 주요 현안이기도 함
- 1인가구 중 가까운 주변에 가족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위급상황에 빠진 것조차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외부 침입에 의한 공격에서부터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등 1인가구 당사자가 위기에 처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치안과 방범, 위급상황 시 대처 등은 민간과 지자체, 정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방범 인프라 공유, 현장 출동 및 주변 경찰청, 응급의료센터와의 연계 등 민관을 아울러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임. 지역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필요

1.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

- 1인가구 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지원 사업과 정책을 펼쳐옴. 1인가구 주거지에 안전·방범을 강화하는 방식을 지원하거나, 주거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고 귀가를 동행해주는 사업 등이 대표적임
- 1인가구 거주공간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안심홈세트’, ‘안전도어 지킴이’ 등의 사업은 관련 물품 혹은 서비스를 1인가구가 신청해 주거지에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임.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 조치로 ‘무인택배함’ 및 ‘안심벨 서비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임
- 1인가구 귀가를 함께해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마을 보안관’은 마을 안전과 치안 강화 효과는 물론 지자체별 예산을 통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 1인가구 주거지 방법 강화

□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서울·대전·대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지원
- 대체로 시가 예산 편성해 자치구에 사업을 이관하는 형태임. 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여성 1인가구가 대상자로 남성의 경우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서울시의 경우 광역에서 관련 예산을 자치구로 전달하면, 자치구별로 안심홈세트 물품을 공급하는 조직(대체로 컨소시엄 형태)을 선발하는 구조임. 자치구는 대상자 선정 및 해당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컨소시엄 업체에서 장비를 확보해 대상자 가정에 설치하는 작업까지 맡고 있음

□ 안전도어 지킴이

- 주거 침입 등의 범죄 발생 시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안전을 위해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를 결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라면 성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최초 1년은 월 1,000원, 이후부터는 월 9,900원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서울시와 SK실터스와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

□ 세이프홈(Safe-Home)

-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구·군, 대구경찰청이 직접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인 세이프홈을 진행. 주거 취약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를 지원

나. 안전조치

□ 무인택배함

-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가 본인의 주거지 노출 및 택배기사와의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 1인가구가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대체로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사업 진행
- 택배 이용 시 물품 수령 장소에 안심택배함 주소 사용, 지정된 택배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 배송일시와 인증번호가 서비스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이후 인증번호로 물품 수령 가능

□ 안심벨 서비스

-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고정형 비상벨 설치를 지원함(추후 경기도 전반 확대 예정) 1인가구가 밤길 혹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나 몸이 아픈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1인매장 운영자 등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대응 가능

□ 안심이앱(서울시)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1인가구의 귀가 모니터링, 안심택시, 안심 귀가 스카우트 예약 등을 통합하여 운영. 현재 기능 개선 추진 중으로 하는 한편 택시 승하차 알림서비스 신설 등을 추진 중임
- 서울로 출퇴근하는 타 지역 거주민을 위해 타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어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안전을 도모하려 함
 - 서울시-국토부-안양시 3자 간 협약으로 안양시에서도 안심이앱 활용 추진한 사례가 있음.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또는 연계 협약 시도해 볼 만함
- 유지보수는 서울시 예산으로 처리하되, 자치구별 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진행
 - 서울시는 2022.8월부터 SKT·시립대와 함께 통계·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1인가구 생활특성을 매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업데이트할 예정임

□ 안심이앱(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 안심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보급함. 이는 합천군이 개발한 ‘합천 안심서비스 앱’을 모든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것
- 경남 안심서비스 앱은 지정시간(기본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입력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최소 12시간부터 설정할 수 있음
- 합천군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주말부부 등 1인가구의 고독사를 막고자 2019년 앱을 개발함

다. 지역사회 치안 강화

□ 안심귀가 스카우트

-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함.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자치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 예산은 서울시에 서 지원함
-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심마을 보안관

- 심야시간(평일 21시~다음날 새벽 2시 30분) 2인 1조로 구성된 보안관이 동네 곳곳을 다니며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으로 현재 서울시 관내 15개 구역 지정하여 운영 중. 경비 전문업체 SK실터스에서 보안관 선발·교육 및 운영관리 전 과정을 위탁 운영
- 은퇴자 등을 선발하여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동네 안전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경찰청과 협력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안심구역’ 51개소를 지정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5개 구역 선정 시 시민 공모로 선정한 2곳 포함 13개 지역은 주거안심구역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 부산광역시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해당 시설은 2세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설계)를 통해 안전을 더욱 강화함
- 2023년까지 해당 지역에 ▲혁신 셉테드 인프라 조성 ▲범죄 취약가구 방법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스마트 도어락, 창문 잠금장치 등 ‘1인가구 안심홈세트’를 지급할 계획임

표 3-11 |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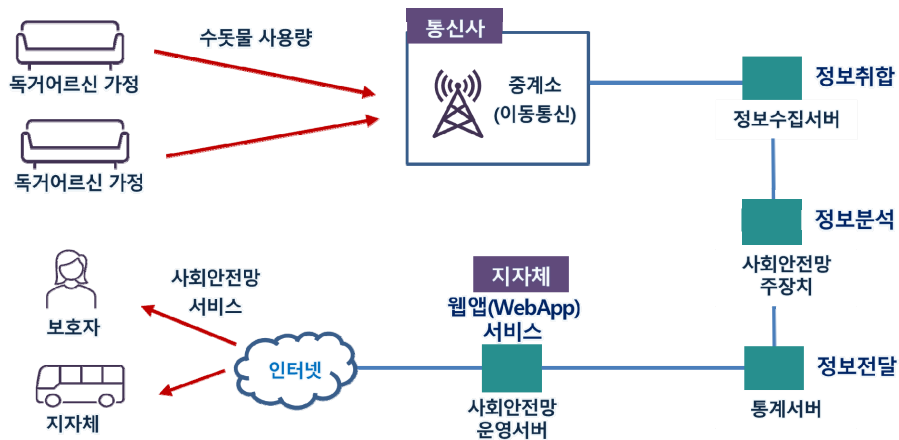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1인가구 주거지 방법 강화	안심홈세트	• 현관문 및 주거지 방법을 강화하는 기기를 설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
	안전도어 지킴이	• 현관 앞 도어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지 및 알림이 가능함. 가정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음
안전조치	무인택배함	• 택배 이용시 물품수령 장소에 안심택배함 주소 사용, 지정된 택배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 배송일시와 인증번호가 서비스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이후 인증번호로 물품 수령 가능
	안심벨 서비스	•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및 고정형 비상벨 설치.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거나 몸이 아픈 경우 1인사업자도 활용 가능
	안심이앱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귀가 모니터링, 안심 택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약을 통합하여 운영
지역 치안 및 네트워크 강화	안심귀가 스카우트	•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자치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 예산은 자치구에서 지원함
	안심마을 보안관	• 서울시 사례로 심야시간 2인 1조로 구성된 보안관이 동네 곳곳을 다니며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 현재 15개 구역 지정, 운영 중

2. 국내외 기업 서비스 및 사회공헌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시간 수도물 원격검침을 이용해 취약계층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수도물 사용 검침 시스템에서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알려 위험을 대처하는 서비스를 말함
- 이는 수도의 경우 전기나 가스와 달리 사용량의 변동 폭이 커서 다른 검침 항목에 비해 위기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2017년 연구 분석에 따른 것으로,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독거고령자나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2017년에 경북 고령군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2019년에는 18개 지자체,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수립함

| 그림 3-5 |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시간 원격검침을 이용한 ‘위기 알림’ 서비스 구성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리본¹¹⁾

- 레이더 센서가 내장된 태블릿PC 기반의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의 심박수나 호흡 등을 체크해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응급상황 시 인근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생활 안전 플랫폼 서비스(리본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11) <http://livon.kr/>

- 1인 또는 2인 가구의 생활 공간에 특수 센서를 설치하고 해당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택내 활동상황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본인 및 자녀와 함께 공유함
- 가족들은 ‘패밀리앱’을 통해 부모님의 활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잠재적 위급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음

□ 일본 오사카 가스보안 서비스 주식회사

-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고령자의 돌봄과 안전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민간회사인 오사카 가스보안 서비스 주식회사¹²⁾는 가스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다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법·방재·보안 영역 서비스를 제공 중. 1인 및 고령 가구가 늘어나며 서비스 이용 증가
- ‘홈 보안 서비스’, 위급상황 시 대처하는 ‘긴급신고 서비스’, 평소 상황을 체크하며 위험상태를 감지하는 ‘안심 건강서비스’ 및 ‘건강 콜 플러스’, 냉장고 개폐로 상황을 유추하는 ‘미마모 메일’, 말하는 음성을 깨끗하고 크게 들리게 해주는 대화지원 스피커 ‘코뮌’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들이 계약하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초기비용을 지불하고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구조
 - 여러 개 서비스 중 한 개를 택하면 초기 비용+월정액을 납입하는 구조.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홈 방법 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센서 기기를 공사 후 서비스 개시. 홈 방법 서비스 이용 시 초기비용 없이 기본 월 일정액(3080엔, 한화 약 3만 원 가량) 매월 납부, 5년 계약(중도 해약 가능)
 - 부재중 침입 및 기타 이상 상황이나 건강 이상 시 방법·방재를 감시하는 컨트롤 센터, 건강상담을 접수하는 간호사 콜센터, 가스 감시센터인 오사카 가스 SP 감시 센터 3곳이 연동해 대비. 건강상담은 24시간 휴일 없이 간호사 및 보건 자격증 소지자가 대응
- 긴급신고 서비스
 - 몸에 착용하거나 욕실에 설치하는 비상버튼 제공 및 설치. 사용자 집 열쇠를 보관하고

12) <https://www.oss-og.co.jp/personal/>

병원 기록 등 건강정보 데이터를 보관하여 위급상황 시 빠르고 안전한 대응 가능. 연락 되지 않는 가족원 혹은 다른 사용자를 위한 출동 가능

○ 안심 건강서비스

- 방법 등의 침입은 물론 가스 누출 등 사고 예방과 고령자의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정기적으로 전화해 상태를 확인 및 건강상담까지 제공

○ 건강 콜 서비스

-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전화해 건강은 물론 생활의 사소한 부분도 상담, 간호사 및 보건 자격증 소지자가 서비스 진행. 전화통화로 단순한 안부 확인부터 이용자가 건강하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파악. 기존 이용자들이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미마모 메일’ 서비스

- 전화 및 인터넷 회선이 없어도 회사가 제공하는 센서를 냉장고에 부착하면 사용 가능. 냉장고 개폐 상황을 하루 1회 지정된 연락처로 메일로 송신하는 서비스

| 그림 3-6 | 오사카 가스보안 서비스 주식회사의 안심서비스 체계도



자료: 오사카가스보안서비스

3. 소결

- 1인가구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과 사업이 돋보임.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무인택배함, 안심홈세트 등의 사업을 시행해 이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구분을 없애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점차 전국 각 지자체로 우수 사례가 확장되어 가는 중임
-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은 초기 주거지 방법 강화를 위한 물품 지원과 귀갓길 동행 등의 해당 1인가구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건강, 신변이상, 안전 등에 문제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된 벨을 눌러 119 안전지원신고센터, 경찰청 등과 정보가 공유, 협력 시스템을 갖추나가고 있음
- 또한 지역 은퇴자 및 지역 주민을 활용해 안심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치안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임
- 기업의 경우 국내외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면서 계량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사용량을 측정해 평소와 다른 사용량이 보이면 위기상황을 의심하는 서비스 혹은 사회공헌 사업들이 보임
- 1인가구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안심홈세트 등의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이 필요 기자재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게끔 독려할 수 있음
 - 예비 혹은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일 경우 지자체에게는 우선 구매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내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안심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방식의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해 관계망을 형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혹은 지역 내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이 안심 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에 참여한다면 결국 내가 사는 마을의 치안을 개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지역 내 관계망 형성·강화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협동조합 혹은 다른 사회적경제 방식의 조직 형태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조직 단위로도 구성할 수 있음

제4절 > 사회적 관계망¹³⁾

- 현대사회로 이행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는 가족 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옴. 이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주요한 거시적 원인 중 하나임. 장기적 실업(Brand & Burgard, 2008), 중장년층 퇴직(이훈희, 2015), 혼인율 감소와 비혼율 증가, 지역에서의 청년 유출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사회적 고립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¹⁴⁾’으로 개념화되며 외로움 혹은 고독(loneliness)과 구분됨. 관심의 부족 또는 상실에 의한 반갑지 않은 감정인 외로움이 주관적 개념이라면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 자체를 의미하는 객관적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Gardner et al. 1999)
-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중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과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정의(김춘남, 2018)
 - 국가 통계에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의 항목으로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성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배경¹⁵⁾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높은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서술함
- 외로움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사업 등은 정신적 돌봄 영역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13) 대체로 1인가구 정책 및 지원 서비스에서 사회적 관계망 강화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돌봄 및 주거, 안전, 생활 등 타 영역에서 생활 지원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방향임.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 혹은 방식의 자리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1인가구를 참여시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들을 발굴하려는 사업임. 이 연구에서 전자는 각 영역에서 포괄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후자의 경우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 혹은 방식으로 1인가구를 연결하여 관계망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

14) ‘가족 친족관계나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작위적인 척도를 설정하고 어느 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권혁남, 2013)

15)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 짓는 학자들은 외롭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de Jong Gierveld & Havens, 2004 등).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학자들은 주관적인 경험인 외로움과 현재 행동상태인 고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Vincenzi & Grabosky, 1987 등)

는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정책 연관성 차원에서 이 절에서 다룸

-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이어진 공식·비공식적 관계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더 나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도 함. 가까이로는 친구, 지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욱 폭넓게 지역 사회 등 공동체 영역에서 활동은 개인으로서는 자존감과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고취하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선순환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 단위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많은 경우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함께 요리 및 식사를 하거나 교육 및 만들기 수업 등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함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강화, 외로움 관련 심리지원 사업이 진행 중. 비교적 여성, 청년 1인가구 대상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고 최근 중장년 남성 및 고령 1인가구 프로그램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사회적 관계망 정책 및 사업들은 1인가구에게 노출 및 홍보를 통한 참여가 중요. 서울시는 1인가구 대상 웹사이트(쌍글벙글 서울)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정책 홍보 및 개별 1인가구 맞춤형 정책안을 제공 중임

1. 커뮤니티 형성 및 강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가족센터,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에서 1인가구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및 정책 사업이 펼쳐짐. 크게 △일정 공간에서 다른 1인가구와 함께 공통의 주제 및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공유, 활동하는 프로그램 △요리, 정리, 청소, 안전 등 교육하는 프로그램 △세대와 젠더를 구분해 보다 관계망을 촘촘히 하려는 프로그램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나뉨
- 2021년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펼침. 주요 골자로는 청년-중장년-고령의 생애주기별 교육 및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함

- 생애주기별로 청년 1인가구에게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으로 세대를 구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첫째 전국 12곳의 가족센터에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이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려 함
- 선정된 12곳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1인가구 심리상담 및 공예 등 만들기 등이 거의 공통적 프로그램이며, 지역에 따라 반려견 케어(광주 동구), 자동차 정비(전남 광양) 등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표 3-12 | 2021년 여성가족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선정기관 및 특징

시·도	시·군·구 (센터명)	주요내용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사별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 등 • 지역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용산경찰서 협업 여성안전 교육, 다문화인과의 함께하는 세계요리대회 등)
부산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1인가구(청소년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 이혼 후 부양육 1인가구 프로그램 등
대구	서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산업공단) 연계 활동 프로그램 • 전통시장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대구	북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종합 프로그램 * 중·장년층 대상 심리·정서 상담, 호신 등 여성 안전교육
인천	중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1일,1취미 프로젝트(1인가구 소모임 운영, 지역 공예마을 연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광주	동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 1인가구 생활 개선 * 식·주거생활, 가족관계, 이웃 간 관계개선 상담 및 교육 등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홀로서기 준비’, ‘건강찾기’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 관계망 구성 등
충남	공주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형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 안전, 돌봄, 생활편의 교육 및 커뮤니티 등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의(뜻 意), 식(먹다 食), 주(살다 住) * 여가·문화, 건강관리, 심리방역 및 교육 등
경북	포항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포항공단) 연계, ‘지역 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및 자기개발 지원 등
경북	문경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형 1인가구 체형 프로그램 ‘와이너리’ * 문경시 특산물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 담기 체험 •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미술치료
경남	양산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후기청소년 1인가구 지원 * 생활디자인,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

□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사업 초창기(2016년~)부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우선 방점을 두었음

- 이에 각 자치구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 관계형성 및 유지, 신체·정신건강, 가정관리·생활역량, 경제활동 등 4개 핵심요소별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대표적으로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은 지역 내 조리학원, 쿠킹클래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공동부역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 코인세탁방 등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운동·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
- 사회진입 예정자에게는 독립생활에 필요한 준비 교육과 상담, 고령 1인가구에게는 배우자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같은 정서 지원 제공
- 공동부엌, 반려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여가활동을 지원. 지역 내 조리시설 및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시원 주방 및 자치구 1인가구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간 등과도 연계

표 3-13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대표 프로그램

건강	▲서대문구 ‘건강가득, 영양가득 일거양득’ ▲용산구 ‘건강을 위한 홈트’ ▲은평구 ‘1인가구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경제·자립	▲관악구 ‘맞춤형 금융자산 관리 및 투자법’ ▲양천구 ‘재무관리교육(사회초년생편)’ ▲용산구 ‘합리적인 재무관리’ 등
안전	▲강남구 ‘중장년 1인가구 스마트플러그 안전확인 서비스’ ▲마포구 ‘셀프 보디가드’ ▲성북구 ‘자기방어 연습’ 등
주거	▲강남구 ‘주거계약 기초교육’ ▲강서구 ‘집수리 교육, 스위트홈’ ▲금천구 ‘집과 집 만들기’ ▲양천구 ‘주거환경 개선, 두드림’ 등
사회적 관계망	▲강서구 ‘함께 Well-living’ 모임 ▲노원구 ‘관계의 재발견’ ▲동대문구 ‘1인가구 자조모임 늘벗’ ▲성동구 ‘관계증진 슬기로운 1인생활’ ▲양천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홀로그램’ 등
특화	▲강서구 ‘메타버스 기초, 팀별미션 수행’ ▲노원구 ‘환경캠페인 제로웨이스트’ ▲마포구 ‘환경교육 with Earth 챌린지’ ▲서초구 ‘고양시 건강상식’ ▲용산구 ‘반려견 간식 만들기’ 등
여가	▲마포구 ‘k-pop댄스 챌린지’ ▲용산구 ‘컬러테라피’, ‘명상요가’ ▲구로구 ‘텃밭가꾸기’ ▲종로구 ‘플라워테라피’ 등

자료: 서울시 1인가구포털

□ 경기도는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부엌’ 사업 진행

○ 관내 중장년 1인가구 15개 공동체에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엌·요리교실·식사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해당 사업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식생활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표 3-14 |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주요 지원 프로그램

외로움·고립 극복 프로젝트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수다 살롱” 커뮤니티 지원 ▲AI 친구 만들기(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1인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소셜다이닝 프로젝트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삼시세끼” 제공 행복나눔터 운영
홀로서기 지원 프로젝트	▲훈(자) 라이프 꿀팁 교육 ▲물품 공유 서비스
실태조사	▲1인가구 실태조사
건강 지원 프로젝트	▲콜벗 서비스(전화 심리상담),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안전 생활환경 조성 프로젝트	▲안심마을 운영,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안전지원 -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 보급 - 청년 경기행복주택 연차별 확대 보급
웰다잉 지원 프로젝트	▲웰다잉 준비교육(인생노트), ▲상속재산 관리 사전 컨설팅 지원

자료: 경기도

□ 경상남도는 2022년 4월부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추진

○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 18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예·요리·운동 △스트레스 관리법, 간편한 밑반찬 만들기 △셀프집수리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집단상담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함께 영화보기, 전문심리상담, 문화체험 △재테크 교육, 비대면 홈트레이닝, 동아리활동 지원 △반려 동·식물 키우기, 쿠킹클래스, 정리수납 가사교육 등이 있음

2. 심리상담 지원 사업

- 가족센터 및 광역, 기초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인가구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대상으로 생활상의 문제나 가족 및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과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 상승 등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을 제공함. 또한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도 심리상담을 지원함
- 서울시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은 1인 가구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멘티와 멘토로 연결해 맞춤형 심리상담과 그룹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임. 올해 9개 자치구, 총 180명(멘토 42명·멘티 138명)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멘토링 횟수는 1인당 15회임(기존 10회). 멘티들은 멘토들로부터 일대일 심리상담을 받고, 멘티 모임에도 참여해 독서, 미술 등 관심사와 관련된 문화 활동을 진행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하며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본인이 자비 부담(1회 6~7천원). 국민행복카드 이용해 이용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임. 기본 10회 지원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함
- 인천시는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에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에게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함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취약한 1인가구를 발굴, 심층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 이를 위해 ‘1인 가구 자살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사·전입 등 1인 가구를 발굴하기 쉬운 공인중개사협회, 행정복지센터, 셀프 빨래방,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
- 부산시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치료의 개념을 넘어 위로와 공감으로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1:1 심리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추진하며,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동·서 권역별로 상담기관을 1곳씩 선정. 1회 상담 시간은 50분으로 최대 7회까지 가능

-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의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려 함. 영국 정부는 2023년까지 전국의 건강의료시스템에 ‘사회적 처방’을 적용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의사가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활동가에게 연락해 케어를 받게 함. 2020년부터는 초중학교에 고독 관련 학습시간을 넣은 커리큘럼도 구성

3. 해외사례: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 아다치구의 ‘고립제로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일상적 돌봄이나 말 걸기 활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활동 등 사회참가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
 - 2013년 1월부터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을 구 조례에 명시, 시행 중임
 - 아다치구는 ‘고립’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가구원 이외의 사람과 10분 정도 대화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1회 미만이거나 일상의 어려움 상담 상대가 없는 상태로 정의
- 주민 정보를 바탕으로 ‘고립 우려 여부’에 대해 마을회·자치회, 민생·아동위원 방문조사 실시. 조사 결과 고립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 중심으로 정기방문을 통한 일상적인 접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으로 연결
 - 1) 고립 파악 단계: 안심협력기관, 민생위원 등이 1차 조사를 하고, 구내 305개 단체에서 2차 조사 실시. 2018년 3월 말 실태조사 결과, 조사 세대수 48,900세대 중 고립 우려 세대는 5,876가구로 고립 우려 비율이 12%였음. 이 고립우려 세대에 대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4,630가구가 지원으로 연결됨
 - 2) 연결 단계: 조사 결과 고립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창구, 고령자 창구(지역포괄지원센터), 장애인 창구(복지사무소, 보건종합센터), 청년창구(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함
 - 3) 접근 단계: ‘인연의 안심협력원’이 정기 방문과 지킴이 활동 등을 실시함
 - 2021년 6월 1일 기준, 안심협력원 등록 총 1036명, 안심협력기관 등록 총 898개임
 - 안심협력기관 종류 : 마을회·자치회, 일본우편 주식회사, 소방·전력·가스, 금융기관, 신문, 배식 서비스, 의료기관 등

- 4) 거처 제공 단계: 주거 센터, 유유칸(60세 이상 이용 커뮤니티 센터), NPO, 자주 그룹 등의 거처를 제공함
- 5) 사회 참여 단계: 평생 학습, 대학, NPO 자원봉사, 마을회·자치회 활동, 취업, 사고 모임 등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지역포괄지원센터, 안심협력원, 협력기관이 제휴하여 ‘안심네트워크’ 구축

- 협력기관: 고립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이변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하는 협력기관으로, 목욕탕, 마을자치회, 우체국, 신문배달점, 배식서비스사업소 등이 포함됨
- 안심협력원, 안심협력기관, 민생위원 등의 관계자가 모여 활동 방향성, 지역 과제, 네트워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구내 25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연 6회 개최하고 있음

4. 소결

- 사회적 관계망 정책사업은 불특정 다수에서 1인가구를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특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 상향식(bottom up)으로 중앙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사회적 관계망 사업 특징은 ‘자조’ 모임 성격을 지니고 있음. 특정 주제로 일정 인원이 모여서 활동을 진행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1인가구 참여자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기를 희망. 한편 여성가족부 사회적 관계망 사업은 세대와 젠더를 구분해 보다 1인가구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
- 과거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되었던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 문제와 연결해 1인가구에게 지원하는 심리상담 사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관계망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임
-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기획-모집-홍보-운영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구를 위해 만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기획 구상에 대한 한계를 토로함.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짓수가 많지 않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대상 사업담당자들이 모이는 정례적 자리에서 타 기초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벤치마킹하기도 함
- 또한 1인가구들은 본인이 1인가구임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명이나 홍보에서도 고충이 많음. 더불어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이어서 모집과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앙정부나 광역 등의 큰 단위에서 홍보하거나 혹은 관련 사업들을 모아볼 수 있는 플랫폼 등의 필요성을 얘기함
- 많은 가족센터 및 지자체에서 1~2명이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기획에서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방식이 많이 보임. 해당 구조에서는 새로운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기획이나 발굴은 쉽지 않아보임
-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온라인 버전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포털(쌍글빙글 서울) 등을 참조해볼 수 있음. 나아가 가족센터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 타 부처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종합해 보다 적극적으로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제공·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제5절 > 생활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큰 차이를 보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청소와 빨래, 요리 및 식사, 집안 환경정리 및 수리 등은 개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임. 특히 1인가구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오롯이 혼자 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과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부동산 계약 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점차 1인가구 생활과 관련된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
- 최근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1인가구 생활과 관련된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1인가구에 적합한 혹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 및 유인책 필요

1.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는 1인가구에게 주택관리 서비스 및 이사 지원 등을 제공함(3장 제2절 주거 참조)
 - 제공 서비스 내용은 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싱크대 수전, 손잡이, 커튼 설치 등 클린케어 서비스와 홈케어서비스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 기준은 1인가구당 50만 원 이내로 중위소득 120% 미만은 재료비 포함 전액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 이상은 서비스 비용의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서초구는 거주 1인가구 또는 전입하는 1인가구 대상으로 포장이사 지원 또는 입주청소 중 하나를 제공. 성동구 역시 거주 및 전입희망 청년 대상으로 소량 이사 차량 지원 및 차량 운전 지원
- 경상남도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고령 1인가구의 대형 빨래 어려움과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운영함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2.5톤 트럭에 세탁기 4대와 전기온수기, 발전기·급수탱크 등을

설치해 현장을 찾아가 바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2. 민간 영역

가. 커뮤니티

□ 혼족의 제왕

- ‘삶의 질이 높아지는 1인가구 자취 가이드’를 표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민간업체임. 청소 및 식생활 챌린지 등의 캠페인, 공동구매,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
 - 25~35세 여성 수도권 거주자인 사용자들이 많으며 20~30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1인가구 기간이 1~2년 이하 이거나 5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음. 가사 및 요리에 대한 어려움은 1인가구 기간에 상관없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홀로¹⁶⁾

- 1인가구 혼밥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혼밥’·‘혼술’·‘배달맛집’·‘핫플레이스’ 장소를 추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혼밥 정보 커뮤니티와 밥 메이트(Eating Mate) 시스템을 통한 데이팅 기능, ‘홀로 마켓’ 및 ‘홀로 TALK’ 등의 기능을 제공함
- 현재는 1인가구 특화 배달시스템인 ‘홀로 배달시스템’ 개발 예정 중임

나. 보관 서비스

□ 아이엠박스¹⁷⁾

- 1인가구 증가와 청년 1인가구의 짧은 평균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물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임. 수도권 10개의 보관소를 운영하며, 배송 정직원을 두고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6) <http://holoinjung.com/>

17) <http://www.iambox.co.kr/service/>

- 아이엠박스 고객의 76%가 1인가구이고, 보관 이유의 48%가 이사 날짜 상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이외에 보관 공간 필요(32%), 장기 보관(20%)의 이유로 물건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고객 1인당 평균 4.4개월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

□ 마타주¹⁸⁾

- 물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보관 예약, 물건 확인, 물건 촬영·세탁 서비스 신청, 찾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리한 이용방법으로 20~40대, 특히 1인가구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보관 중 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관함당 최대 40만 원을 배상해주는 ‘마타주 Car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이사 서비스

□ 다섯시 삼십분¹⁹⁾

- 1인가구와 소형 가구를 위한 이사 서비스 ‘짐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
- 고객이 이삿짐의 포장과 정리를 담당하고 기사님과 함께 이삿짐을 운송하는 ‘기사도움’, 이사팀이 이삿짐의 운송만을 담당하는 ‘일반이사’, 대형짐·잔짐 포장을 담당하는 ‘반포장이사’, 이사팀이 이삿짐의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하는 ‘포장이사’로 나누어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정리 수납 등

□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²⁰⁾

- 정리수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2012년 설립되어 정리수납교육 및 정리수납컨설팅을 하는 협동조합임. 10년간 정리수납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토대로 대상자 발굴, 사전 심리상담,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후 코칭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음. 지역 내 고립

18) <https://matazoo.net/>

19) <https://zimcar.kr/>

20) <http://www.ocoop.or.kr/index.html>

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사업, 전통시장 점포정리 및 청소 코칭지원사업, 지역문제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지자체와 협업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함. 2022년에는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인 ‘서울 청년 1인가구 슬기로운 혼삶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만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의 혼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리, 청소, 세탁, 요리, 배출(5대 생활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참여자의 90% 정도가 여성이며, 참여자들은 3개월간 규칙적인 삶의 습관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음

마. 집 수리

□ 라이커스 협동조합

- 라이커스(Like-us)협동조합은 젠더프리브랜드 메이커 주식회사 ‘왕왕’이 2019년 11월 런칭한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리서비스 협동조합임
- 20~30대 여성 1인가구들의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 ‘주거환경 수리’와 ‘주거 침입 안전’에 주목²¹⁾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서비스교육을 받은 여성 수리 기사가 이용자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출장비는 1회 22,000원이며 형광등, 수전 수리, 가구 교체 등 서비스 비용은 수리 규모에 따라 다르나,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은 기업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상세하게 제공됨
- 2019년 11월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됨

바. 특수청소

□ 리본²²⁾

-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청소 및 특수청소 서비스 전문 협동조합으로, 고독사 징후가 보이는 대상들의 생활환경 개선

21) KB금융의 1인가구 보고서, 2019년

22) <http://coopreborn.com/about-us/>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차후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함. 또한 문제 발생 시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특수청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 반려동물

□ LG U+ 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

-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두는 시간이 많은 이들을 위한 원격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출시함
- 360도로 회전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해 반려동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맘카(CCTV), 스마트폰 앱으로 로봇을 조종해 반려동물과 함께 놀아주는 ‘펫피트니스’, 휴대폰 앱으로 조명과 음악을 켜주는 ‘수면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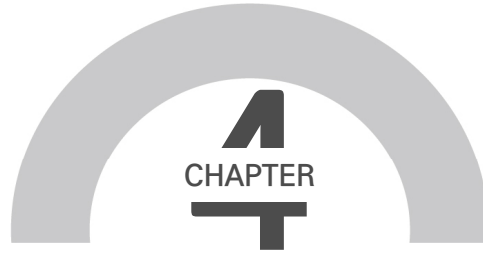
- ‘반려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비영리 동물 병원을 설립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고양이 돌봄 품앗이’라는 소모임을 운영하여 반려인이 집을 떠나 있을 때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돌보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반달(반려동물 공동 돌봄서비스)

- 이웃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그 시간만큼 내 반려동물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공동 돌봄 서비스 플랫폼임. 반려동물이 돌봄을 받는 대가를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지불한다는 것이 특징임
- 누구나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몇 가지 확인을 거쳐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최근 반려동물용품 구매 플랫폼 사업 확장 중

3. 소결

- 생활과 연관된 서비스들은 누구나 매일 필요한 사안이며 물품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임. 1인가구 맞춤 물품 혹은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1인가구 당사자들은 소용량의 신선한 먹거리뿐 아니라 소용량 생활용품,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음
- 1인가구 당사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유통행태인 대용량 묶음 판매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며, 소용량일 때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 등에 불만을 표함. 그러나 소용량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포장재, 유통단계 등의 추가적 비용과 부자재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생협 등)을 활용해 신선 채소 꾸러미 등을 보급하며 사회적 관계망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혹은 장기적으로 소용량, 소분 판매 방식에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구매자에게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생활에 대한 서비스 중 대면하거나 집 안에 발생한 크고 작은 수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이유로 여성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음. 여성 집수리 협동조합 사례처럼 특정 세대 혹은 젠더별 1인가구 필요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1인가구 생활(요리, 수납, 수리, 인테리어)과 관련된 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가족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에 활용해 1인가구 관련 강좌 개설. 나아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체 역량단절 여성들에게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하나의 사회적경제 법인체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1인가구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이 점차 나타나는 중임. 이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유인책을 주어 보다 시장과 생태계를 넓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가족친화(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해 1인가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독려 및 접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목적 중 1인가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도 적극 포괄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방안



제1절 영역별 주요 내용	111
제2절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 방안	119
제3절 연구의 한계	142

4 CHAPTER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방안

제1절 영역별 주요 내용

- 1인가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개 주요 영역을 도출해 각 영역별 민·관 사례를 조사함.
1인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이라는 공통점 외에 세대·젠더·자산·계층에 따라 무척 이질적이고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각 특성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홍승아, 2017)
-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은 돌봄·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생활 5개 영역이 대부분 2~3개 영역이 겹쳐짐.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고 관계망을 강화해 1인가구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건강과 신뢰,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꾀하려 함
 - 서울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고령 1인가구 중 돌봄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다른 고령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서적 지원과 건강을 챙기는 활동을 진행 중. 이는 고령 1인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역 내 돌봄과 더불어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더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임
- 각 영역별로 돌봄은 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타 영역에 비해 비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많았음
- 고령층의 돌봄은 지자체 및 정부의 재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청년, 중장년층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매칭 돌봄서비스 사례가 많았음

- 주거의 경우 중앙정부 및 광역시 등의 규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1인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이사비 보조 프로그램, 집수리 프로그램 등 보다 많은 1인가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프로그램도 진행
- 안전 영역은 정책 초기 ‘안심 홈세트’ 지급 등으로 주거지 방범 강화를 위한 물품 지원과 귀갓길 동행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마을 치안 강화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음. 또한 건강, 신변이상, 안전 등에 문제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된 장치로 119 안전지원 신고센터, 경찰청 등과 정보 공유,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음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음. 도시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여 하나의 주제 혹은 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음. 지역의 경우 1인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자이기에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청소, 빨래 등의 가사, 짐 보관 서비스, 반려동물 케어까지 소소해 보이지만 일상인 생활 영역에서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진입시도가 가장 많았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1인가구 시장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5개 주요 영역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별, 정부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

1. 돌봄

- 돌봄의 경우 영국 및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형태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도시는 물론 지역으로 갈수록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돌봄 정책은 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 중장년 대상의 돌봄 정책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음
- 중장년은 생애주기상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고령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책과 함께 돌봄 정책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정신 및 신체 건강 향상 정책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문적 돌봄에서 일상의 돌봄과 정서적 돌봄까지 돌봄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정책은 그 자체로만 작동할 수 없으며 주거, 사회적 관계망 등의 영역과 함께 설계될 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해외 사례의 주된 시사점은 1인가구 대상 돌봄 정책이 단독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본, 주거, 안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한편 지역사회 기반으로 돌봄사업을 설계하여 진행하려는 공공과 현장의 필요가 확인되고 있음. 이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돌봄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돌봄을 책임지는 당사자 간 협력 체계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밀착형 돌봄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

2. 주거

- 중앙정부 및 광역 단위에서 청년 및 1인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어져 옴. 또한 민관이 함께 청년, 저소득층 1인가구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기획, 실행하는 사례가 있음.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계속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552명, 출자금은 1억 4,950만 원(2021.12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 달팽이집 운영 중(2022.2월 기준, 서울 11개소, 부천과 전주 2개소)
- 터무니있는집은 2018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출자하고, 시민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연대형 주거모델을 제시. 현재 시민출자기금은 166명(곳)의 개인 및 단체 참여,

8억 2,590만 원임(2021.12월 기준). 관리책임자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은 기금을 운영, 입주자인 지역 청년은 주택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활동 전개

- 기초지자체에서는 청년 및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계약 시 행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집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민간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 주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조직이 있었음
- 주거 계약 경험 및 논의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계약 지원 정책, 반값 공개보수, 이사(비) 지원서비스 등이 실시 중임.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는 집수리 등을 제공하기도 함
- 한편 중산층 대상의 노후주택을 직접 설계하며 건강한 공동체에서의 삶을 그려가는 노력도 있음.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은 중장년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주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넓혀가고 있음
- 1인가구 주거지 안전 위험 요소를 낮추고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외에 입주자 간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함
- 공동체 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이를 지역사회와도 함께 공유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공동체 주택 지원 조례에 명시함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터무늬있는집 등 사회주택들은 입주자 모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하게 분산화된 1인가구 간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존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택을 비롯한 공동체 주택의 공유공간을 연계한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가족센터 혹은 가족센터가 없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의 공간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

3. 안전

- 응급 및 위험 상황을 혼자 맞닥트려야 하는 1인가구에게 안전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줌. 2010년대 초중반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방법 정책이 확대되어 최근 1인가구의 방법, 치안 등 종합적 정책이 발표됨
-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무인택배함, 안심홈세트 등의 사업을 시행해 옴. 이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구분을 없애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점차 전국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임. 특히 1인가구 현관문, 방범창, 응급시 사용하는 호신세트 등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는 1인가구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음
-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은 초기 주거지 방법 강화를 위한 물품 지원과 귀갓길 동행 등의 해당 1인가구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건강, 신변이상, 안전 등에 문제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된 벨을 눌러 119 안전지원신고센터, 경찰청 등과 정보 공유,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음
-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1인가구 주거지 방법 강화(안심홈세트 등) ▲안전조치(무인택배함, 안심이앱 등) ▲지역 치안 및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구분됨
- 특히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안심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방식의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해 관계망을 형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혹은 지역 내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이 안심 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에 참여한다면 결국 내가 사는 마을의 치안을 개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경력단절 및 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지역 내 관계망 형성·강화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협동조합 혹은 다른 사회적경제 방식의 조직 형태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조직 단위로도 구성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국내외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면서 계량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사용량을 측정해 평소와 다른 사용량이 보이면 위기상황을 의심하는 서비스 혹은 사회공헌 사업들이 보임

4. 사회적 관계망

- 1인가구 정책 및 지원 서비스에서 사회적 관계망 강화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하나는 돌봄 및 주거, 안전, 생활 등 타 영역에서 지원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를 도모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 혹은 방식의 자리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1인가구를 참여시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들을 발굴하려는 사업임
- 고독사 등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숨어있는 취약 1인가구 발굴이 필요해지며,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1인가구 지원정책을 펼침.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 및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음
- 사회적 관계망 정책사업은 불특정 다수에서 소규모 1인가구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음
- 과거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되었던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 문제와 연결해 1인가구에게 지원하는 심리상담 사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관계망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임
- 최근 전국으로 1인가구 관련 사업들이 퍼져나가는 추세임. 특히 1인가구에게 중요한 문제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그러나 적은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된다는 불만도 있음
-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기획-모집-홍보-운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 온라인 버전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포털(싱글벙글 서울) 등을 참조해볼 수 있음. 나아가 가족센터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을 아울러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5. 생활

- 생활과 연관된 서비스들은 누구나 매일 필요한 사안이며 물품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임. 1인가구 맞춤 물품 혹은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1인가구 당사자들은 소용량의 신선한 먹거리뿐 아니라 소용량 생활용품,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음
 - 1인가구 당사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유통행태인 대용량 묶음 판매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며, 소용량일 때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 등에 불만을 표함. 그러나 소용량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포장재, 유통단계 등의 추가적 비용과 부자재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생협 등)을 활용해 신선 채소 꾸러미 등을 보급하며 사회적 관계망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혹은 장기적으로 소용량, 소분 판매 방식에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구매자에게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생활에 대한 서비스 중 대면하거나 집 안에 발생한 크고 작은 수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이유로 여성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음. 여성 집수리 협동조합 사례처럼 특정 세대 혹은 젠더별 1인가구 필요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1인가구 생활(요리, 수납, 수리, 인테리어)과 관련된 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가족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에 활용해 1인가구 관련 강좌 개설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하나의 사회적경제 법인체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음
- 한편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1인가구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이 점차 나타나는 중임. 이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어 보다 시장과 생태계를 넓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가족친화(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해 1인가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독려 및 접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목적 중 1인가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도 적극 포괄

- 지자체에서도 집수리, 주택관리, 코인 세탁 등의 서비스를 1인가구에게 제공하는 곳들이 있음. 이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위탁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2절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 방안

- 1인가구 대상 정책 및 지원사업은 주거,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개별 영역에서 설계되지만 1인가구의 필요를 충족하고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연계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관계망은 1인가구 삶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정책 구상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요소임
- 예컨대 주거+사회적 관계망(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돌봄+사회적 관계망(예: 강원 원주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혹은 생활+돌봄+사회적 관계망(생협 돌봄 활동) 등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1인 가구 성별 및 세대, 거주 지역과 정책목적을 고려해 개별 영역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책 로드맵을 구상한 뒤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

| 그림 4-1 | 1인가구 주요이슈별 결합 예시



- 특히 전국 244곳에 소재한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유관 기관을 활용해 1인가구 발굴 및 사례를 축적함은 물론, 1인가구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기능까지 모색해 볼 수 있음
- 다인가구는 물론 1인가구에게도 가족센터는 통합지원과 종합 돌봄의 매개체가 되어야 함.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가 생애별 필요 정책과 정보를 전달받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
- 새일센터, 양성평등센터 등 여성가족부 산하 정책지원조직을 활용해 기본 각 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결합한 1인가구 정책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음
- 더불어 1인가구 지원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필요함. 예컨대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 1인가구 비율이 높기에 보건복지 영역과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음. 정책 중복

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사업 진행을 위해 타 기관과 부처와의 유연한 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1인가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한 1인가구의 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가족·새일센터 등을 활용해 1인가구의 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며, 이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하고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얻음. 지역 공동체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1인가구 예상 위험을 사전에 대비

○ 1인가구와 관련된 주요 영역에 사회적경제 조직 유입을 활성화하여 해당 시장을 육성. 더불어 참여주제 및 참여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자신감을, 1인가구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현재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조건에 1인가구 배려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거나,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시작해볼 수 있음

□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함

○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1인가구 돌봄 및 사회적관계망 지원사업

○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지원 사업

| 표 4-1 |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방안 정책안

구분	세부 안	주요 내용
중간지원조직 활용 1인가구 지원사업	가족센터 중심 1인가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들과 결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으로 편입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생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돌봄 네트워크 마련과 동시에 돌봄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의 주체 양성
	농산어촌 다문화가구원 및 경력단절자 연계 1인가구 돌봄 지원사업	농산어촌 지역의 다문화인 혹은 경력단절자들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돌봄 교육을 제공, 이수 시 고령 1인가구 가사 및 돌봄 인력으로 활용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	지역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을 통해 유류 식자재를 활용, 먹거리 취약 1인가구에게 키트 지급
	청년 안심 주거지 탐색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학생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주택탐색비용(중개수수료, 분쟁비용 등) 지원
	지역특화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청년 및 1인가구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탐색해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
1인가구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감소 SIB(사회성과보상) 사업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대상으로 사회성과사업(SIB) 추진, 민간의 전문성과 아이디어, 재원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확보
	1인가구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1인가구에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중장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희망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창립 지원 및 육성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인가구 대상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제공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지원 사업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기업을 중심으로 비혼을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등 직장 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1인가구 관련 제도 고려	1인가구를 배려한 기업 문화와 관련 제도를 가족친화 활동으로 인정해 직장 문화 개선을 촉진

1. 정책 제언: 중간지원조직 활용한 1인가구 지원사업

- 전국 각지에 위치한 가족·새일센터 등을 통해 △1인가구 돌봄/주거/안전/생활 서비스 지원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과 양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허브로써 일상적 물리적 정서적 지원 제공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가. 정책 사업 1: 가족센터 중심 1인가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정책배경

- 전국에 소재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돌봄 및 관계망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1인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망 편입과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정책목적

-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들과 결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으로 편입 및 지역 공동체 강화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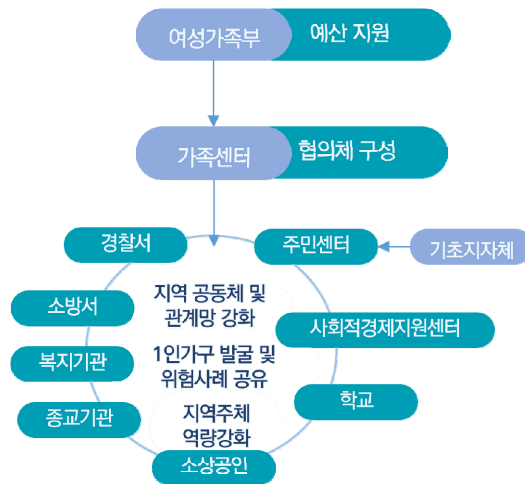
- 정책 내용: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119 안전신고센터, 복지기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학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1인가구 돌봄 및 관계망 협의체 발족
- 참여 주체별
 - 주민센터: 사회적 고립 상태의 1인가구 혹은 고령가구 발굴 의무 있는 주민센터에게 대상자는 물론 예비 대상자라 할수 있는 1인가구까지 포함해 지속적 1인가구 관리 가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 내 네트워크망을 가진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찾아 협력을 제안하거나 혹은 지역 1인가구에게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찾아 연결할 수 있음. 또한 협의회 주체 및 참여자, 혹은 대상자인 1인가구에게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이를 통해 참여 주체들은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경찰서 및 소방서: 사회적 고립 정도가 심한 1인가구나 그 외 소외가구들을 파악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복지기관: 협의체가 발굴한 1인가구 중 필요시 관내 복지기관과 연결, 혹은 복지기관이 파악한 위험도 높은 1인가구 타 주체들에게 연결해 필요시 적절한 대응 빠르게 조치 가능
- 소상공인: 슈퍼, 목욕탕, 편의점, 약국 등의 소상공인을 협의체 주체로 이끌어 주변 1인가구 중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면 협의체와 공유해 적절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지역 소상공인으로 책임과 공동체 의식 강화

□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별 1인가구 이슈 확인 및 공동체적 대응 능력 강화
- 협의체 구성 후 각 주체별로 파악한 1인가구 정보 공유, 위험군은 주체 간 공유를 통해 주체별 1인가구 발굴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그림 4-2 | 1인가구 가족센터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참고사례: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중 ‘안심네트워크’ 구축

- 지역포괄지원센터, 안심협력원, 협력기관이 제휴하여 ‘안심네트워크’를 구축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체계

- 협력기관: 고립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이변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하는 역할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욕탕, 마을자치회, 우체국, 신문배달소 등이 포함됨
- 안심협력원, 안심협력기관, 민생위원 등이 모여 정기회의 개최. 활동 방향성, 지역 과제, 네트워크 등에 대해 논의함. 관내 25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연 6회 개최되고 있음

나. 정책 사업 2: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정책배경

-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관계망 구축 필요
- 1인가구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상황은 물론 미래 위험까지 대처할 수 있음. 1인가구는 스스로의 돌봄 이슈가 발생할 경우나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보완·보전해줄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됨
- 한편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이용 접근성이 낮아 보건 의료, 복지, 식사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넓은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1인가구에게 효과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광역 및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의 필요에 기반해 지역사회, 지역 주민에 밀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특히 돌봄 이슈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를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임

□ 정책목적

- 생활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돌봄 네트워크의 마련
- 지역사회 내 돌봄의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의 주체를 양성해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 세부내용

- (준비단계) 가족센터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 협약 체결로 가족센터 내 ‘(가칭)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참여 주체)

-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예산 책정(참여자 활동비 등 지원 필요),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가족센터 내 개설 및 운영 지원, 돌봄리더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품(혈압계, 체온계, 활동가방, 운동용품 등) 지원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리더 양성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돌봄리더가 1인가구의 안부 확인, 건강증진 활동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
- (돌봄리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최소 교육훈련 시간 필요),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있는 1인가구를 매칭하여 돌봄 활동을 추진함. 1인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하며 참여에 따른 활동비, 상해보험료 등 지원받음

○ (실행단계)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취약 1인가구 대상으로 돌봄리더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1인가구의 이상 상황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보고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를 지자체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전달해 필요시 식사, 이동, 거주 등 관련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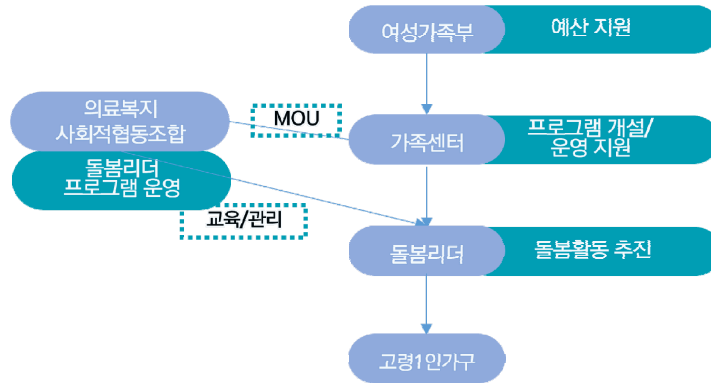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상호 호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
- 지역 공동체와 지역 민간자원이 수동적인 비자발적 취약 1인가구에 정책이 닿을 수 있는 매개로 역할

□ 참고사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돌봄활동

| 표 4-2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요 프로그램

협동조합	프로그램	내용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전)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리더	2016년부터 시작, 올해 총 19기 약 300명 수료 틈새돌봄, 예방돌봄, 마을일자리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건강공동체 건강반	예방활동, 관계형성, 건강돌봄 역량강화

| 그림 4-3 | 농산어촌 고령 1인가구 자생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다. 정책 사업 3: 농산어촌 다문화가구원 및 경력단절자 연계 1인가구 돌봄 지원사업

□ 정책배경

- 농산어촌 지역 사각지대 1인가구 대상의 가사 및 돌봄 서비스 필요성 증가
- 중장년 1인가구나 고령이지만 장기요양 등급외자인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사 서비스 혹은 정서적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
- 가사 및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인과 경력단절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모색

□ 정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사각지대인 중고령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다문화인 혹은 경력단절자들의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 고령 1인가구 돌봄지원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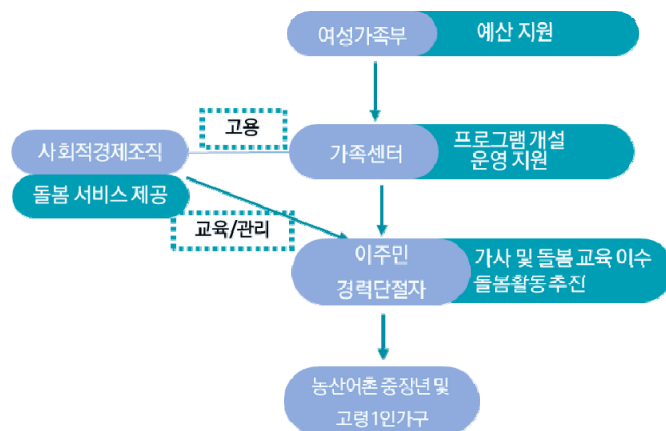
□ 세부 내용

- (서비스 대상자) 농산어촌 65세 미만 중장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1인가구(독거 및 조손가구 포함) 혹은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외자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식사 도움 및 취사, 청소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가사·일상생활 관련 교육 제공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해당 지역 가사 및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한국인 혹은 경력단절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 중 적격자를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하는 형태. 가사 및 돌봄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운영해 가족센터와 협업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자 가정에 가사 및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자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 등에서 가사 및 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 사각지대인 중고령 1인가구 가사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이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1인가구 돌봄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사 및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가능

| 그림 4-4 | 농산어촌 다문화인 및 경력단절자 연계 고령 1인가구 돌봄 지원사업안



라. 정책 사업 4: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

□ 정책배경

-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가운데(황운재, 2021), 저소득 중장년 (남성) 1인가구나 보호종료 청소년 등의 1인가구는 사회복지 및 지원 체계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주 등 일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에서 지역의 잔여 식자재를 활용해 먹거리 나눔을 진행,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관계망을 강화하기도 함

□ 정책목표

- 안전망 밖의 취약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
- 지역 내 유휴 식자재를 활용하고, 농가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 지역 내 먹거리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상생 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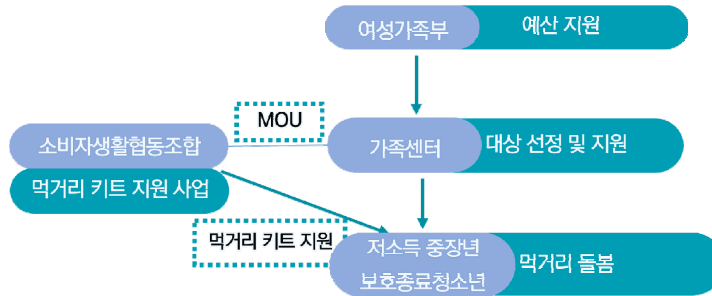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서비스 대상자) 1인가구 내 먹거리 취약계층(저소득 중장년, 보호종료청소년 등)
- (서비스 내용) 먹거리 취약 1인가구에게 지역 내 유통가능한 신선 먹거리 키트 구성 및 전달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센터 등이 협력해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은 유휴 식자재를 활용해 이들에게 먹거리 키트 제공
- 기부 물품 및 못난이 식재료, 혹은 상품에 이상 없으나 여타의 이유로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 등을 먹거리 키트에 포함, 농가 및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취약 1인가구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

□ 기대효과

- 취약 1인가구 먹거리 돌봄과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1인가구를 발굴하고,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지역 주체 참여로 식자재 공급망 개선은 물론 문제 해결 역량 증진, 공동체 강화 기대

| 그림 4-5 | 먹거리 취약 1인가구 지원 사업안



□ 참고사례

○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숨뽕살레'(나눔냉장고)

- 제주방언으로 '숨뽕'은 수북하다, '살레'는 찬장을 의미. 한살림 자체 예산과 조합원·생산자의 기부, 주민참여예산 활용. 현재 제주 4개동 5곳에 나눔냉장고 설치
- 주민, 기업, 자원봉사단체, 지역공동체, 한살림에서 기부한 물품 및 지역주민 텃밭 수확 채소로 나눔냉장고 물품 구성 및 먹거리 키트 구성
- 복지 공무원 및 동네 주민이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약 400여 가구가 2주에 한 번 주민센터 방문해 식자재 수령. 숨뽕살레에 관심을 가진 주민센터 이용 주민들도 개인 기부

마. 정책 사업 5: 청년 안심 주거지 탐색 서비스 지원 사업

□ 정책배경

- 1인가구가 많이 분포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주택계약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세대이기도 함. 청년 학생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뢰받는 종합주거서비스 필요성 제기
- 청년·학생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거주 기반의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필요

□ 정책목표

- 청년·학생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 청년·학생 주택탐색비용(중개수수료, 분쟁비용 등)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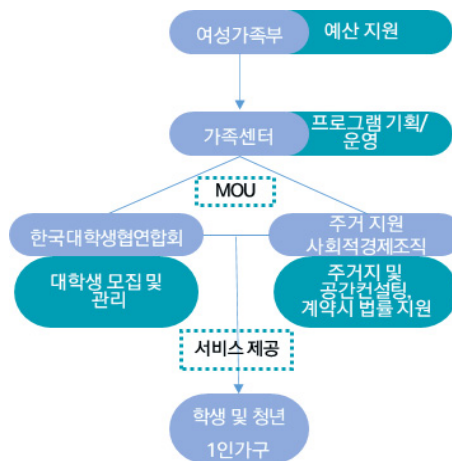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서비스 대상자) 청년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청년·학생이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 중개 및 주거 컨설팅 제공
- (실행주체 및 방법) 가족센터와 주거지원 사회적경제조직, 한국대학생협연합회(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등 전국 29개 대학생협이 회원으로 참여)등이 협약을 맺고 청년·학생 1인가구 중 주거종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예산 책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주거공간 중개 및 주거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생협 혹은 주거복지센터와 사전 사업 설계 및 참여 학생 대상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학생 모집 및 관리
 - (주거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유관 단체와 협력 강화 등을 모색
 - 주거복지센터, 공인중개사연합회 등과도 협약을 맺어 사업 필요성을 공유해 협력 모색

□ 기대효과

- 청년·학생의 개인별 상황 및 욕구를 반영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주거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

| 그림 4-6 | 청년 1인가구 주거 지원 사업안



□ 참고사례

○ 일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주거지원 서비스

- 일본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의 서점, 식당은 물론 학생 대상 호텔사업, 공제사업, 부동산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와세다대학생활협동조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유형, 임대 비용,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물론 하우스링 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 영국의 유니폴은 리즈(Leeds)를 포함한 영국 북동부 도시의 주요 대학 및 학생회와 협력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비영리기관임
- 유니폴은 대학교 기숙사와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중개(무료) 및 관리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주거 관련 무료 컨설팅, 청년주택 주거기준 개발 및 적용 등의 활동도 수행함
- 유니폴은 임차인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차인-임대인 상생 체계 구축에 집중함

바. 정책 사업 6: 지역특화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정책배경

- 청년 및 1인가구의 분절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사무실 혹은 대학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 청년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정주 여건과 공동체 의식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거주자들인 청년이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여 이를 통해 청년 및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제 혹은 개선점을 찾아 지역 주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정책목표

- 청년 및 1인가구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탐색
- 청년 및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지역 주체로서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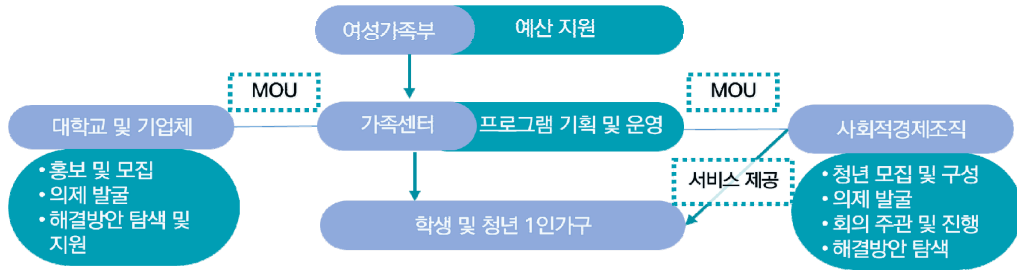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서비스 대상자) 사무실 및 대학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청년 1인가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의 청년
 - 청년의 경우 1인가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1인가구가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해 인위적 구분된 모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1인가구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서비스 내용) 청년을 조직화해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실행주체 및 방법) 해당 지역 가족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학 혹은 기업, 청년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거나 특정 주제의 이슈를 지역에 적용, 해법을 찾는 회의와 과정을 지원
 - (여성가족부) 예산 책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할 가족센터 모집 및 선발·관리
 - (가족센터) 지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대학 및 기업들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홍보(가족센터 외 지역 의제나 정책목표에 맞춰 양성평등센터 등 타 유관기관 활용 가능)
 -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청년 및 1인가구를 모집, 주제별로 구성하여 지역 문제를 찾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유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모색
 - (대학 및 기업) 가족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지역 문제 발굴 및 해법 찾기 과정 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해법 적용 단계를 시범 적용하는 등의 사례 개발

□ 기대효과

-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던 대학가, 사무실 밀집지역, 산단 등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청년들의 관계망을 강화
- 머물러 있는 지역에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움

| 그림 4-7 | 사회적 의제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 참고사례

○ 일본 대학생활협동조합 ‘사회적과제 위원회’

- 일본 대학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전국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사회적과제위원회는 환경, 기후변화, 평화, SDGs 등의 주제에 대해 팀별로 협의하고, 각자의 사례를 공유
- 위원회는 일본 각 지역과 계층별 위원회 대표가 모여 조직됨. 매회 회의 안전에 대해 각자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회의 후 해당 내용을 속한 지역과 학교에 공유

2. 정책 제언: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1인가구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육성을 지원함.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서비스 확대를 모색토록 유인하고, 새롭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조직에게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영역을 제시할 수 있음

가. 정책 사업 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감소 SIB(사회성과보상) 사업

□ 정책배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에 이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중장년과 노인 인구의 고독사 비율도 늘어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고독사 관련 정책 대부분이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음. 이들의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목적

- 민간의 전문성과 아이디어, 재원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확보
-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위한 현실적 정책의 수립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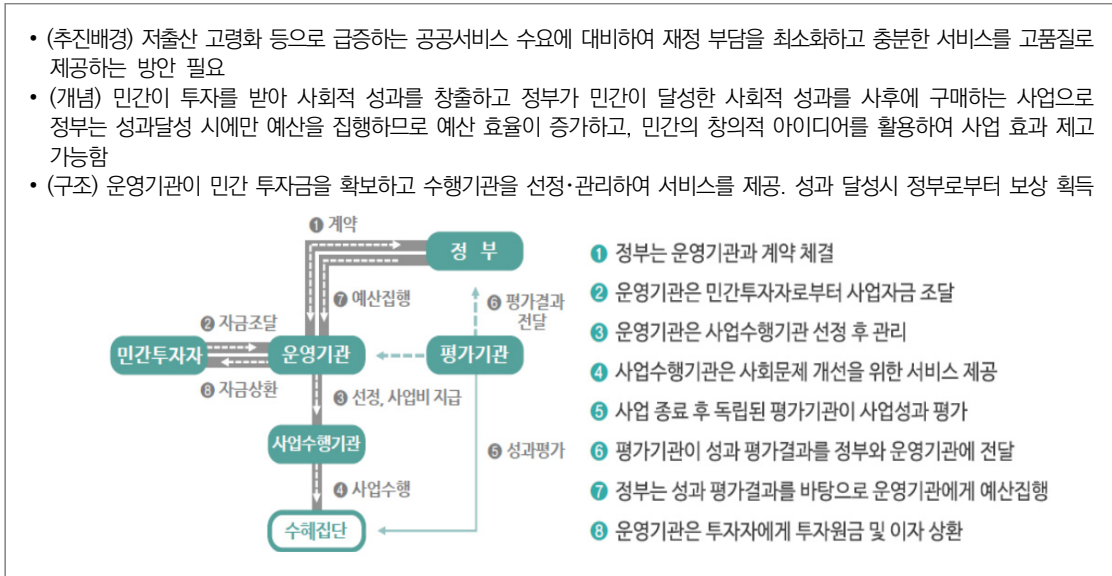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준비단계)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기획하는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참여 주체)
 - (여성가족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싶은 행정서비스를 선정하고 사업의 평가지표와 투자자에 대한 지급조건을 설정함
 - (운영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행정서비스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사업수행기관)함. 운영기관-행정, 운영기관-투자자 사이의 성과보수형 다년계약을 체결함
- * 사업수행기관 또는 민간투자자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가능
- (실행단계)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성과가 행정, 투자자, 사업수행기관 사이에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행정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이 상환됨. 사업성과가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금을 포함한 지불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부로 처리됨

□ 기대효과

- 새로운 방식의 민관 협치 체계 구축 및 사업 성공 시 더 많은 1인가구에게 양질의 서비스 확산 가능

표 4-3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및 구조



출처: 행정안전부(2017)

□ 참고사례

- 영국 우스터셔주 재결합 프로그램(Reconnections Worcestershire): 영국 우스터셔주에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장년층이 약 1만 2천명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재결합을 도우면 약 3천 6백만 파운드(약 548억 원)의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장년층의 사회적 단절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함
- 네스타(Nesta), 케어 앤 웰빙 펀드(Care and Wellbeing Fun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자선재단인 에이지 유케이(Age UK)에서 우스터셔 주 내 50세 이상 장년층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UCLA외로움 척도가 8~12점 사이로 측정된 고위험군 대상)

- 프로그램은 일대일 맞춤에서 시작해 사례관리자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40명의 맞춤형 결합으로 이어짐.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친구맺기, 그룹활동, 사별증후군 극복과 같은 활동을 6~9개월 동안 수행하며 여기서 성과를 낸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볼 것을 권유받고 참가자들 간의 더 깊은 유대를 맺은 기회를 얻게 됨. 전체 참여자의 64%가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끼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고독감 지수는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평균 -1.39점, 1년 경과 후 -1.28점 낮아진 것으로 확인함

나. 정책 사업 2: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 정책배경

- 1인가구에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중장년 혹은 경력단절 및 재취업 희망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혹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 1인가구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 1인가구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 모색

□ 정책목표

- 1인가구 생활과 관련된 영역인 주거관리, 돌봄, 가사, 이사 등 영역 시장 확대
- 재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경력의 여성(남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및 창업 등으로 삶의 새로운 시작을 모색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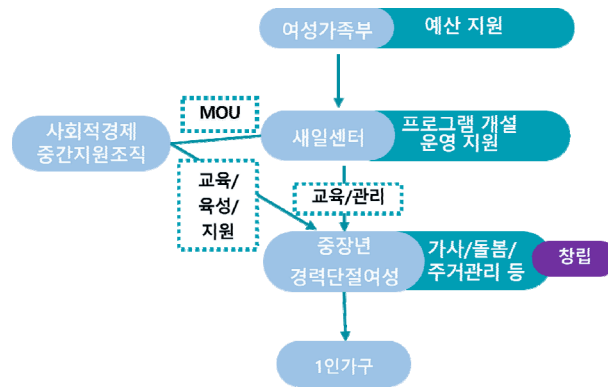
- 가족센터/새일센터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양해각서 등을 통해 협약을 맺어 재취업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및 1인가구 필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인큐베이팅 지원
- 가족센터에서는 취업 혹은 창업 희망 여성 모집 및 홍보와 교육,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인력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결해 주거나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창립 지원

- 교육 이수생들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인건비 지원 혹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제공 등

□ 기대효과

- 1인가구 관련 시장 확대와 중장년 여성 혹은 재취업 희망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해당 영역 사회적경제 조직 유입 및 확장 가능성

| 그림 4-8 |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인력 양성안



다. 정책 사업 3: '1인가구 관련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정책배경

- 1인가구 정책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1인가구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욕구 또한 연령, 세대,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공감받는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함

□ 정책목적

- 1인가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1인가구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세부내용

- 1인가구 대상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제공
 - 선정된 아이디어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숙성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공모전은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혹은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함. 공모전의 주제를 통해 시장에 하나의 신호를 주어 참여자들의 관심과 실행력을 이끌어 냄
 - 1인가구 관련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것은 해당 시장이 존재하고 확장한다는 신호임
 - 1인가구 관련 서비스 및 물품을 구상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직접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유인으로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됨

□ 기대효과

- 비즈니스 모델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1인가구 대상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유인 신호

3. 정책제안: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지원 사업

-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미완성’, ‘부족’, ‘결핍’ 등)를 개선하고 독립된 가구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임을 알림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함

가. 정책 사업: 기업 내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 정책배경

- 유통 및 금융 등 국내 주요 기업과 IT기업 중 비혼 직원에 대한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 직원 중심으로 기존 다인가구 중심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음. 더불어 기업 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을 배려한 기업 문화 조성 및 교육,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정책목표

- 기업을 중심으로 비혼을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
- 1인가구를 배려한 기업 문화 조성을 지원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등 직장 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세부 내용

- 비혼,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등 1인가구는 물론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사내 교육, 직원 복지 프로그램 등에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혹은 가족친화 인증 평가 항목에 고려하는 방법
-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향후 캠페인, 포럼 등을 통해 1인가구 사내복지 모범사례를 홍보·공유함
- 예) 반려동물 의료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 지원, 가사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연계해 1인가구 대상 1인 집안 및 청소 지원, 비혼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반찬 만들기, 가사, 목공 등 클래스 운영 등

□ 기대효과

- 기존 가정 중심으로 설계된 사내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상황의 직원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정책 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1인가구 관련 제도 고려

□ 정책배경

- 1인가구는 제1의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정책적 소외를 경계해야 함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가족'에 대한 확장적 개념을 제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소외 방지
- 1인가구를 배려한 기업 문화와 관련 제도를 가족친화 활동으로 인정해 직장 문화 개선을 촉진

□ 세부 내용

-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중 다인가구 근로자 지원제도뿐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제도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반영
- 예) 다인가구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를 비혼 혹은 자녀계획 없는 가구에게도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인증 시 고려(예: 러쉬 코리아 사례 등(〈표 4-4〉 참조))

□ 기대효과

- 기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제도 구축과 인식개선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배려와 이해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표 4-4 | 국내 주요 기업 1인가구 복지 프로그램

기업명	사내복지 사례
펄어비스	사내 비혼 복지 공모전 진행 (독립 거주자 대상 집안 정리 및 청소 등을 월 1회 지원) 반려동물 보험 지원 제도 - 반려동물의 의료비, 반려견 보상 책임(3마리 제한)
러쉬코리아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비혼 선언의 날'로 지정: 비혼 임직원에게 결혼 축하 관련 사내 복지 등을 기혼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함(50만 원의 축의금, 10일의 유급휴가) 월 5만 원 지급, 반려동물 사망 시 1일 유급휴가 지원
신한은행	기혼 직원의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동일 액수인 10만 원을 비혼 직원의 생일에 지급 건강 검진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1인'에서 '본인과 가족 1인'으로 변경
우리은행	격년으로 비혼 직원 부모 중 1인에게 종합 건강 검진 기회 제공 비혼 직원만 참여할 수 있는 필라테스, 요리 등의 특별 클래스를 운영
IBK기업은행	기혼 직원의 결혼기념일 축하 선물을 비혼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 타지 발령 여비를 비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현대백화점	여성 1인가구 직원을 대상으로 열선 감지기 등 무인 경비 시스템 지원
롯데백화점	여성 1인가구 직원 거주 자택 내부에 출입문, 열선 감지기 설치

제3절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1인가구 삶의 질 제고를 꾀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1인가구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시장 등 생태계를 구성,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여러 문헌조사와 1인가구 당사자, 정책 전달자 및 서비스 제공자, 학자와 연구자 등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고 현재의 가족·새일센터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고려하며 다양한 제안을 마련했으나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
- 대상과 범위의 포괄성: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사례조사
 - 1인가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주지했듯 유사한 성격의 동질집단이 아닌 자산과 성별, 세대와 지역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사실상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과 민간의 서비스를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
 - 향후 후속 연구에서 대상을 특정 세대 및 지역, 성별 등으로 구분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역 사례 발굴 필요성
 - 1인가구 정책 및 지원 사업은 날로 늘어가는 1인가구 수와 고독사 등 직접적 문제에 부딪힌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것이 중앙정부로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1인가구 관련 정책과 시스템은 서울특별시가 2010년대 초반부터 젠더와 세대를 특정해 관련 정책을 진행해오다 차츰 대상을 넓힘
 - 광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우수 사례가 전파되었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인가구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지역 자생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태임
 - 한편 현재 국내 1인가구의 분포는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가구가 절반가량을 차지함(전남 50.5%, 경북 43.6% 등(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 이 경우 보건복지 영역에서 관장하는 돌봄으로 편입되는 사례들이 있고,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음

- 반면 지역의 청년 1인가구 관련 정책 혹은 사업의 경우 사례 수 자체가 적고 우수사례로 거듭난 것들이 많지 않음
- 향후 필요하다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사례를 더욱 발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4), 47-56.
- 권혁남. (2013). 고령화 시대에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인문과학연구, 34(1), 245-277.
- 김성아, 박민진, 김정아. (2022).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영.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김준형. (2012). 1인가구 증가와 대도시 도시형 생활주택. 대구경북연구원.
- 김춘남.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 김형균. (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Vol. 11, pp. 5~15
- 김혜란. (2018). 4차 산업혁명과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현황. 보험연구원
-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남춘호, 김정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북의 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2), 117-149.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문은영, 강희영, 권용희. (2013).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70.
- 문정희, 이재정, 김형균, 이동현, 오동하, 오재환 외. (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연구보고서, 1-357.
- 박건, 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정책연구-13.

- 박미선, 우지윤. (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 박미현. (2020).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1), 5-30.
- 박승곤. (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8(1), 187-219.
- 박은미. (2018).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박준범. (2020).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 박형수.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연구원.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SDI정책리포트. 30호.
- 변미리.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오픈서베이. (2022). 1인 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2.
- 윤혜준. (2018). '외로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과 정책적 함의. 글로벌 이슈 & 리포트.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미애. (2013).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일본어문학, 63, 349-370.
-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세종:보건복지부, 동의대학교.
- 이석환, 최조순. (2015). 경기도 1인가구 특성분석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 이수인, 전희진, 최지훈(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북연구원.
- 이현진, 김흥주. (2015).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서울 올림두레생협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311-352.
- 이훈희. (2015). 100세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2: 활동적 고령화를 위하여, 민주정책연구원.
- 임우연. (2018). 충청남도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임우연. (2020).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장온정. (2015). 중년남성 1인가구주의 사회자본 형성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7(3), 67-100.
- 장진희, 김영정, 김혜영, 장명선, 이인희. (2018).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진희, 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26.
- 장진희. (20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일상생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71-113.

- 전성제, 박천규. (2022).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56.
- 전희진, 김시백, 오병록, 전아람. (2021).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여성정책연구소.
-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 11, pp.42
- 정인, 강서진.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1인가구 연구센터.
- 정지은. (2021). 민간부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돌봄 서비스제공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109(2), 167-207.
- 정혜은. (2022).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2021). 2021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재구성 사업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안내서.
- 홍승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9.
- 황경란, 박소영, 박수선, 조성희, 최성은. (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 황재영. (2015). 지역고령자 돌봄을 위한 포괄케어체계 구축방안. 부산복지개발원
- 사회보장위원회.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1985~2045).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이현주. (2017년 5월 1일). [1인가구의 비극②]"현실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망 중요해져".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50111224899891>
- 한경미. (2012년 2월 18일). 91세 할머니와 23세 여대생이 같이 살아요.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8952
- Brand, J.E. & Burgard, S. (2008). Job Displace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over the Lifecourse: Findings for a Cohort of Joiners. *Social Forces*, 87(1), 211-242.
- de Jong Gierveld, J., & Havens, B. (2004).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troduction and overview.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23(2), 109-113.
- Gardner I, Brooke E, Ozanne E, & Kendig H. (1999). Improving social networks. a research report: improving health and social isolation in the Australian veteran community. Melbourne: Lincoln Gerontology Centre, La Trobe University.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57.
- Zamagni, Stefano & Zamagni, Vera. (2009).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송성호 역). 북돋움.

[기타 자료]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4&ccfNo=4&cciNo=1&cnpClsNo=2>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공급현황

<https://datastudio.google.com/u/0/reporting/bfff9085-101f-4e32-9df4-443b16b7ad23/page/EvYOB>

GOV.UK. 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2018).

GOV.UK. Loneliness Annual Report : The first year. (2020).

<https://www.gov.uk/guidance/governments-work-on-tackling-loneliness>

https://www.cas.go.jp/jp/seisaku/kodoku_koritsu_taisaku/index.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https://jfsstl.org/norc/>

<https://www.sdsheiff.gov/community/you-are-not-alone>

<https://www.sdsheiff.gov/home/showpublisheddocument/739/637461520302200000>

<https://www.nodaweb.org/>

<https://www.mealsonwheelsamerica.org/>

<https://www.oss-og.co.jp/personal/>

<https://www.dss.gov.au/communities-and-vulnerable-people-programs-services/seniors-connected-program>

<https://www.k9coliving.com/history>

http://www.fardknappen.se/public_html/In_English.html

라이커스 홈페이지 <https://like-us.co.kr/>

홀로 홈페이지 <http://holoinjung.com/>

리본스마트케어 홈페이지 <http://livon.kr/>

아이엠박스 홈페이지 <http://www.iambox.co.kr/service/>

마타주 홈페이지 <https://matazoo.net/>

짐카 홈페이지 <https://zimcar.kr/>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http://www.ocoop.or.kr/index.html>

협동조합 리본 홈페이지 <http://coopreborn.com/about-us/>

와세다대학생협 주거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https://wcoop-sumai.re-ws.jp/>